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상의 모든 것
책임 성담에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1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관광사찰의 포교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관광사찰'은 60여 곳에 이른다. 관람료를 받지는 않지만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전통사찰 역시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가 되기 마련이어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관광사찰들은 관광객들의 나들이 장소로 전락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처이자 중생들을 부처님께 인도하는 사찰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 사찰의 관광 상품화로 인한 위상 격하, 관람료 수입으로 야기된 수행가풍의 변질, 개발로 인한 사찰 주변환경의 파괴 등의 폐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는 스님들이 사찰이 관광지화 됨에 따라 '수행환경의 파괴'라는 피해의식만 가졌을 뿐, 포교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불교알리기 역할 못하고 나들이 장소로 전락위기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찰을 포교도량으로 활용하려는 스님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이수한 포교사나 예비역군법사들을 각 사찰의 상임포교사로 상주시키거나 전문 가이드를 두고 사찰참배 요령이나 기본적 불교교리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새로운 불법 홍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어 및 일본어 홍보물 제작, 외국인 수련회 실시, 성보박물관의 건립 등도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물론 국제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일 것이다.

관광사찰이 관람객들의 바람직한 관광을 유도하면서, 이들에게 자연스런 불교 알리기를 시도한다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을 불교 입문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포교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조흥은행 189-13-03929-3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종단 민원상담실 필요하다

도심사찰 증축 · 복지시설 건립등 불사마다 마찰

권역별 자문변호인단 구성도 대안

최근 들어 건축불사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세금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자치단체와의 마찰 또는 건축불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상담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자문변호사가 있으나 종단의 주요 소송 대행과 종헌 · 종법의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에 머물러 있다.

서울성북구 전등사(주지 동명)는 증축공사 완공을 앞두고 인근 일부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찰은 선수련 모임인 전등회와 일반인들의 선수행도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백평 규모의 도심포교당 건축공사를 지난 해 10월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도심포교당 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지붕에 원정사 8각9층석탑(국보 48호)의 상위 3층과 상륜부를 실물 크기(7m)로 설치했다.

주민들은 지붕에 얹은 불탑을 문제삼아 지난 10월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아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탑을 철거하라"며 성북구청에 진정서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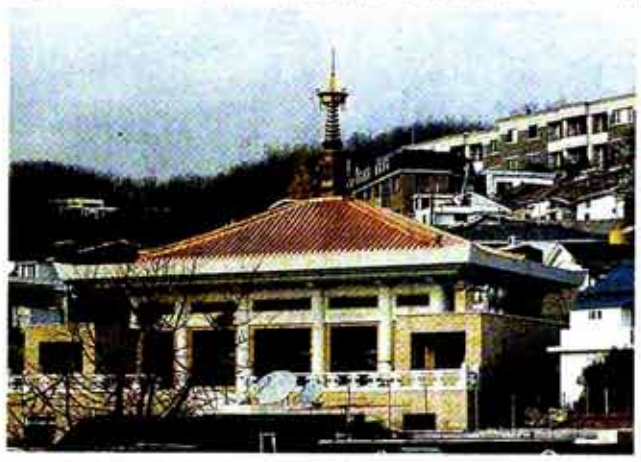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집은 전등사와 30m 가량 떨어져 있고, 전등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건축법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데도 성북구청은 "민원이 있으니 당사자들이 협의해 조정하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주 A사의 경우도 지난 해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인근 주민들의 딴지걸기식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원의 내용이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사유는 아니었지만, 이 사찰의 주지스님은 이후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해 동네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내놓고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S사는 지난 3월과 9월 시설수용자 8명의 주민세 청구서를 받았다. 예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담당자가 자치단체에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로 등록하지 않아 세수 확대 독촉에 어쩔 수 없이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공무원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담당공무원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에 세금을 내고 말았다.

일선 사찰의 스님들은 "이같은 일이 발생해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다"며 종단이나 종단협의회에 세무 · 법률 상담실을 설치해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알려주길 바라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수행과 포교만 하는 스님들이 사회일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자문변호인단을 권역별로 구성하는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탑 철거" 민원 골치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사 완공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경. 주민들은 전등사 불탑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의 집은 전등사보다 높은 곳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동안거 결제

2천여 수좌 용맹정진

불기 2543년 동안거(음력 10. 15~2000. 1. 15)를 맞아 해인총림 조계총림 덕숭총림 고불총림 등 조계종 총림을 비롯 비구선원 42곳, 비구니선원 30곳, 해외선원 2곳 등 80여 선원에서 2천여명의 수좌들이 22일 일제히 안거에 들어갔다. 이날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과 방장스님들은 결제 법어를 내려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혜암 종정 법어 3면〉

혜암종정 "율원 활성화" 당부

정대스님 당선인사 원당암 예방

조계종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7일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고 있는 종정 혜암스님을 예방하고 "소신을 가지고 총무행정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인사했다.

원당암 염화실에서 마주한 두 스님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혜암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만큼 원력을 갖고 하시되 언제라도 총무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소신껏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대스님은 "종정스님의 말씀대로 미련없이 소신껏 책무를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혜암스님은 이어 "정부나 타종교가 불교를 압잡아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적하고 "율원을 활성화해 종단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암스님은 또 "유아교육과 군포교 등 교육 및 포교사업에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대스님은 "종정스님의 하명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달에 한 번씩은 원당암에 내려와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원택스님과 종회의원 세영스님이 동행했으며, 혜암스님의 안내로 원당암 내 선불당을 둘러본 뒤 퇴설당으로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방문했다. 〈관련기사 3면〉

해인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고도보존법 다시 입안

임진출의원 국회제출

고도(古都) 경주 보존을 위한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진출의원(경주을)은 15일 "고도보존법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고도보존 및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와 관련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을 개인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현행 문화재보존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발굴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도보존특별법안은 지난 8년 동안 8차례의 법안 또는 입법 건의서가 제출됐으나 번번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입법이 미뤄져왔다. 이윤호 기자

태고종 종회의원 53명 선출

12월 16일 개원식…평균연령 낮아져

태고종은 16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각 교구 종회별로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 당선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실시, 지역구 48명과 직능직 5명 등 모두 53명의 당선자를 확정, 공고했다. 〈당선자 명단 2면〉

53명중 초선의원은 18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9대 종회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40~50대가 38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령 의원은 임자광스님(77세 · 부산종무원 부원장)이다.

10대 종회 개원식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선암사 대웅전, 10대 종회의원의 임기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년이다. 이경숙 기자

생명나눔 10월 대법회 헌혈 · 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일시: 11월 27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진각종 종립 진선여자중 · 고등학교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생명나눔실천회) (02)913-0136(진각종)

구산선문 참선 기행

12월 : 사자산문(법흥사) · 보덕사

12월에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곳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적멸보궁을 건립했다는 사자산문 법흥사를 찾아갑니다. 구산선문의 하나로 전국의 수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을 정도로 선종을 크게 떨쳤던 법흥사는 최근 선문종찰로서의 옛 자취를 되찾기 위한 중흥불사가 한창입니다.

법흥사 인근 요선정에서는 미래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74호)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단종의 애사가 어려있는 보덕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 12월 5일(일) 오전 7시 · 조계사앞
◇회비 : 3만5천원(중식 포함)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마음속 자연을 그려보세요!

무지개 빛 단풍이 어우러진 시골냇가-
졸졸졸 냇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풍잎 주워 말리던 그때-
책갈피속에 가지런히 꽂아두고 옛 추억 떠올리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시절-
그 맑고 깨끗한 자연을 생각하며 작은 추억을 나누어 보세요.



포항제철
http://www.posco.co.kr

사 설

왜 문화재 보호해야 하나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예견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살았던 한 시대를 통해 이루어 놓은 정신적·물질적인 일체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여러 부분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런 생활양식의 흔적들을 우리는 문화재라고 한다. "문화활동의 소산으로 문화 가치가 있는 산물"이라고 문화재를 정의하는 뜻도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1월10일 법률 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이 법의 1조에 보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새삼 끄집어 내는 뜻은 이런 원론적인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화재의 훼손이나 도난, 개악과 같은 범죄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아끼자는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왜 문화재를 아껴야 하는가를 진실로 알지 못한다면 한낱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비단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사회적 병폐나 개인들의 부도덕성 등을 바라보면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가장 바탕이 되는 의식이 똑바르지 않고선 어떤 이야기도 구두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인가. 다시 되돌아보자. 입으로는 세계적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런 말로만 한다고 세계문화유산이 되는것은 아니다.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 나아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재청 감사결과를 보면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마구잡이 용접으로 훼손되는가 하면 발굴된 유물 수십만점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또 발굴된 유물도 보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식되고 있다고 한다. 보물로 지정된 불교경전 두점은 행방조차 묘연하다는 것이다. 범죄다. 이러고도 우리가 문화민족 운운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난을 이기기 위해 문화 운운하는 것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기였다고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도난 당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의식과 사고 그리고 행태적 우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바탕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문화재관리법의 제1조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의식과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단기간에는 안될지 모르지만 이 바탕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훼손을 막을 방법도, 어떤 활용도, 어떤 기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그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전국민적인 바탕의식이 싹트고 자랄 때까지 차라리 문화재 발굴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 본다. 문화재는 우리민족 모두의 것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자산이며 미래의 후손을 위해 온전히 전해 주어야 하는 아주 귀한 것이다.

조계사 성역화 계획대로 될까

조계종사태 여파 주요사업 연기·수정 불가피

승가대 김포이전 내년초 예상… '선원총람' 발간도 올 넘길듯

10월1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로 야기된 조계종 분규의 여파로 조계종단의 주요 사업의 연장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했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물론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불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협상 주체가 바뀌어 대화가 불투명해진 조태분규해결위원회, 발간이 내년초로 연기된 〈선원총람〉, 1기월이상 표류한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족 등 굵직한 현안들의 일정이 대부분 조정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조계종 사태로 야기된 종단 주요 현안의 진행 과정을 점검한다.

■ **조계사 성역화사업**:조계종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쯤 기본설계에 들어가 청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기본설계를 이달 안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선거공약에서 '불교회관 건립'을 제시해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 등 종단화합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에나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태분규해결위**:지난 7월 당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만나 조-태분규 해결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이후 두 종단의 부·실장 스님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두 종단의 대표가 분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힘을 합쳐 큰불교를 만들자"고 했으나, 10월 발생한 조계종사태로 더 이상 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전 원장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단 안정을 위한 여러 일들이 당면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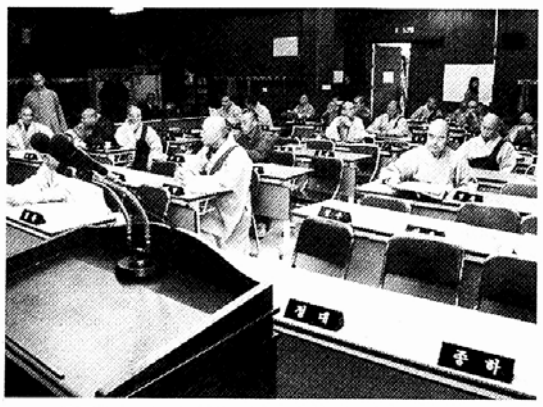
■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조계종 사태는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불사를 2~3개월 이상 지연시킬 전망이다. 사태 여파로 준공검사 등이 지연되었고, 공사대금 지불 문제도 기존의 중앙종회 김포학사특위가 협상 창구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행히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김포학사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약속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김포학사 공사대금 인하와 지불기간 연장 등을 조건으로 건설업체인 풍림산업과 협상(총무원청사 건립 공사의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예산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 **〈선원총람〉 발간**:올 연말에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발간 예정이던 〈선원총람〉은 조계종 분규 여파로 자료 정리, 교정 등 마무리 작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어 내년 초 발간이 불가피해졌다. 그간 기초자료가 전무했던 전통선원의 역사와 현황 파악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선원총람〉 발간은 조계종의 정체성 확립 및 선풍 진작은 물론 선원 안거성만자 관리방안과 관련되어 향후 종단이 선원과 안거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시급한 과제로 꼽혀 왔다.

■ **불교여성개발원**:한달 이상 표류한 불교여성개발원 발족은 다음주 중에 포교원 포교부장 현진스님과 주비위원장 이인자 교수, 주비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12월내에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0년도 포교원 주요사업의 하나로 현재 내년예산에 3천8백만원이 상정돼 있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총무원장선거 후유증 탓일까. 성원이 안돼 열리지 못하고 폐회된 조계종 145회 정기중앙종회.

조계종 종회 선거후유증 성원미달 거듭 자동폐회

예산심의 임시종회 열어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가 총무원장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종회는 16, 18일 145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하려 했으나 이틀 연속 성원이 미달돼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자동폐회됐다. 개회 첫날인 5일 안건심의 순서를 정하고 곧바로 휴회, 총무원장선거 이후 속개키로 했으나 성원미달 사태를 거듭했다.

16일 오전, 회의 예정시각을 30분 가량 넘기자 의장 법등스님은 "어제 총무원장 선거를 끝내 많은 의원들이 심적인 부담도 크고 지쳐 있는 것 같다. 18일 속개하도록 하겠다"며 휴회를 선언했다.

18일에는 오전에도 성원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하자 오후에 속개키로 했으나 끝내 회의는 무산됐다. 2시 속개키로 했던 오후 회의는 의사정족수인 39명(77명의 과반수)에서 1명이 모자라 1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 종무행정 감사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종회 소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총무원장선거에서 정대스님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종회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종회의원은 "선거와 종회는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 따질 일이 있으면 회의에 나와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장 법등스님은 "또 종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을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정성운 기자

"강원 교재 통일-졸업고사 실시"

17일 전국강원 교직자회의서 결의

조계종 강원(지방승가대학)의 교재가 통일되고, 졸업고사가 시행된다.

전국강원교직자회의(회장 지오·해인사강주)는 17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원 전문과정(치문, 사집, 사교, 대교)의 기본·필수 과목화(선택과목은 자율), 교재의 오탈자 및 출간·번역 주체와 관점 등을 연구·시행할 '교과 정비·편찬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각 교육기관별로 졸업고사 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조성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강원교직자회의는 그러나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제안한 본사 주지의 강원 학장 겸직안에 대해서는 강당의 독립성 문제와 강주의 역할 축소 등 교육자치권 침해나 상실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각 교육기관별로 운영위원회(당해사찰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자격있는 스님이 종무행정을 담당케 하는 승가고시법 및 승가고시위원회법이 사문화되어 개정하기로 했으며, 승가고시위원은 현직 교직자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btn 이사회 소집 놓고 이사측-허문도씨 '이견'

22일로 연기됐던 불교TV 제30차 이사회가 허문도 등기상 대표이사에 의해 12월 6일로 연기되자 효강 총지종 법장원장, 신허·범하스님 등 이사 3인은 17일자로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내고 오는 24일 오후2시 불교TV 10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통보서에 따르면 허문도 등기상 대표이사는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라는 허위 연기사유로 이사회 소집을 해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24일 이사회에서는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허문도씨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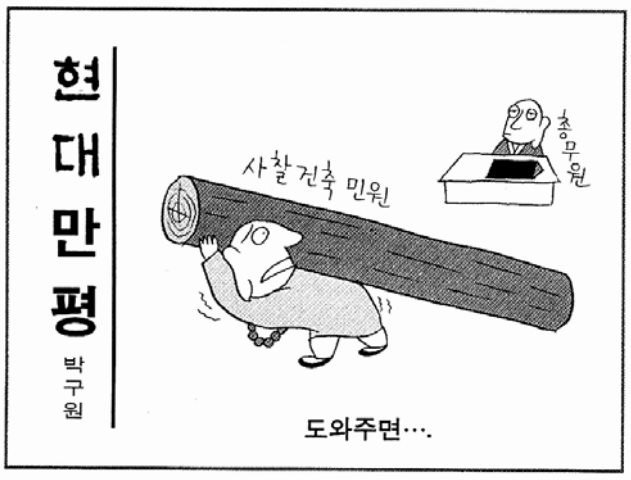
위영란 기자

태고종 10대 종회의원

※괄호안은 지역, 현직순

△조완월(서울동부, 서울 용학사 주지, 新) △이보봉(서울중서부, 중서부종무원장) △송종연(서울남부, 서울 성주암 회주) △정일호(서울북부, 서울 수도사 주지) △강청봉(경기동부, 양평 덕혜암 주지) △김법장(경기남부, 수원 대련사 주지), △전성오(경기남부, 안성 성은사 주지, 新) △이혜각(경기북부, 파주 약수암 주지, 新) △김학성(부산, 부산 종무원장), △임자광(부산, 부산종무원 부원장, 新) △정대은(인천, 인천종무원장) △김월해(대전, 대전종무원장) △이도안(대전, 대전종무원부원장) △박동파(울산, 울산 대원사 주지) △박운곡(강원, 중앙포교원장, 新) △박성주(강원, 태백 심적사 주지) △박운봉(강원, 원주 용덕사 주지, 新) △박성수(충북, 충북종무원장, 新), △김각성(충북, 괴산 보타사 주지), △박원명(충북, 제천 원각사 주지, 新) △김일로(충남, 충남종무원부원장, 新), △박정담(충남, 홍성 천국사 주지, 新) △유남파(전북, 전북종무원장) △최진관(전북, 완주 관음사 주지) △성수종(전북, 임실 백룡사 주지, 新) △윤법천(광주·전남, 광주 선양사 주지) △권성모(광주·전남, 장흥 장원사 주지) △전동표(광주·전남, 여수 관음사 주지) △김일우(대구·경북, 경북종무원장) △김재만(대구·경북, 대구 만성사 주지) △최혜담(대구·경북, 대구 보은사 주지) △전법담(대구·경북, 마산 원각사 주지, 新) △이월봉(경남, 경남종무원장, 新)△권무애(경남, 김해 천불사 주지) △김수암(제주, 제주종무원장) △권청운(제주, 제주 청강사 주지, 新) △박인공(봉원사, 봉원사 주지) △김대운(봉원사, 봉원사 전주지) △최월해(백련사, 백련사 주지), △김운경(백련사, 종승연구원장) △김심곡(안정사, 안정사 재적) △정지허(선암사, 정수원장) △백설운(선암사, 양주 기원정사 주지) △최혜초(법륜사, 전 총무원장)

△송정오(해외, 일본 백룡사주지) △박운정(비구니회, 비구니회장, 新) △박대각화(교임협의회, 교임회장) △이한준(전국신도회, 충북교구신도회장, 新) △서철화(직능직, 고시위원장) △김동호(직능직, 호계위원장) △유우담(직능직, 중앙연수원장) △성원봉(직능직, 청주 보현사 주지, 新) △김법선(직능직, 불국사 주지) (존칭생략)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奉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대법회 祝

제수 합장 하옵고, 무한광명이 걸림없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빛이 둘이 아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옴도 본래 없지만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려는 이때 본종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법회를 교계 원로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져 하오니
대작불사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혜광이 함께 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일시: 불기 2543년 11월 26일 금요일(음력 10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문의 (02)733-4445~6

■ 증 명 : 일화 대종사 금암 대종사 환묵 대종사

■ 고 문 : 혜정 혜안 혜우 정각 효성 무주 월산 탄공 승덕 법성 호암 혜봉 가행 벽송

■ 자문위원 : 필종 만수 명진 승도 근원 도승 혜도 법천 성학 용락 창교 운산 상묵

■ 봉행위원

송정 지월 원봉 도명 영산 타공 능허 석호 혜청 백운 성초 혜천 성진 만성 일정 해덕 해월 법성
혜명 지오 성오 자오 연오 오현 고산 선종 봉안 혜월 법상 혜수 수덕 명관 무학 혜월 도성 성수
의정 성우 법홍 도신 도인 성신 홍인 해송 도광 삼혜 원정 대연 무애 경업 보명 성각 도행 도안
린각 지현 진허 법전 도선 도봉 도명 고원 혜성 법우 법정 진원 청호 자운 법광 도진 상원 보은
법성 광명 월산 명오 수법 지법 법현 도혜 도담 혜천 보성 명안 보덕 현장 대홍 동훈 월파 향덕
도암 만련 정원 혜일 지담 지윤 혜진 덕명 형관 진오 법륜 성원 수현 법해 법성 정현 정오 보륜
도은 수정 해천 명호 법정 영봉 선견 수월 동간 선광 혜명 혜성 광운 지견 법선 지원 선태 청곡
지엄 심진 혜성 의선 여산 정덕 만종 혜진 지광 법명 법장 지각 도원 도광 진월 우호 보현 혜능
무등 지각 혜명 마성 자명 광운 무공 수령 현설 정일 진오 혜명 일법 법인 지명 법정 지만 자성
혜산 성후 자명 명성 도백 진성 덕운 혜인 자성 자명 대원 무애 성원 보련 성인 도원 원각 각원
혜인 혜송 진홍 도현 혜륜 용각 유각 청혜 청안 지원 지명 근봉 종익 혜정 우산 혜덕 대광 보련
관음행 자비행 선심 광명화 혜련 진여심 보현 진원 계월순 보현행 보화 보광심 세안심 표화
석암 묘법 원진 문수행 무아심 공덕행 심봉화 무량화 양영옥 대지화 목화 무상주 대덕화 보덕화 대덕화
보현행 보광월 관음행 선수행 영산 월아심 연화 영림 연화심 보광심 미타원 자비심 보광심 (무순)

■ 집행위원장 : 홍구
■ 집 행 위 원 : 현오 법안 도혜 성련

불기 2543년 11월 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 5대 지천당 법선종사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회 광 합장

교육-문화-포교 '역점'

조계종 예산안으로 본 내년사업

올해보다 6.5%증액 153억 편성

사찰 회계지침 수립
불교사회교육원 설립
군포교 제도개선 착수

조계종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5% 증액된 153억1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새해 예산안은 5~19일 열린 정기중앙종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종회의 거듭된 유회로 12월 열릴 예정인 임시종회에서 확정된다. 고산 전 총무원장 당시 편성된 예산이지만,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고산스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큰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불교자주권 수호 △종단의 안정과 화합 △본말사 및 산하단체 육성 △불교문화선양 △수도권 포교활성화 △불교정보화를 6대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방향은 지난 7월 발표한 종단중장기발전계획 기운데 2000년에 시작되는 사업이 반영됐다.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실은 2년 연속해 전년보다 삭감해 편성한 예산을 3년만에 증액해 편성했다. 98년에는 149억여원을 편성하고도 IMF 외환위기에 따라 일률적 10%긴축 운영했다. 올해도 98년보다 5%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었다.

이에 대해 기획실은 문화재관람료 수입의 증대(99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4%), 관람인원의 7% 증가, 직영사찰 수입의 증대(99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7%)와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종단의 세입 여건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종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분담금은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18% 증가됐다. 각 부서와 교육원, 포교원의 내년도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 총무부

직할사찰 간담회 개최 등 직할교구 관리 강화, 고구본사·직영·특별분담금사찰에 대한 실질적인 종무행정 지도를 통한 본말사 행정의 체계화, 행정·포교·재정 등 사찰등급 분류에 의한 사찰관리의 체계화, 종단 문장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승려분한신고 실시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 기획실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법령 개정과 불교계의 대정부 현안 대처, 각종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와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고 불교자주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통합종무행정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휴대전화에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 재무부

전국 사찰의재산조사 및 망실재산 환수, 임대현황조사 등을 통한 부동산 관리 강화, 사찰 예·결산 및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사찰예산 회계지침서 수립, 조계사 성역화 불사 및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불사의 원활한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 문화부

사지와 성보에 대한 발굴·조사·보존·지정 업무를 수행할 '불교문화유산 발굴조사단' 설립이 눈에 띈다.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지정 사업, 불교문화 인명 및 단체 실태조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총무원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1억9천여만원이 증액돼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 사회부

주요사업으로 불교사회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불교사회교육원을 통해 불교사회시민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수립해 불교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인권·환경단체의 연대, 사찰환경보존 및 환경친화적 사찰만들기, 외국인 사찰체험 프로그램 확대, 2002년 월드컵 불교자원봉사단 조직 등도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승가복지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계획 수립,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수탁에도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호법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해종세력의 준동 예방, 성보 도난 및 훼불 방지, 신원조회 업무를 강화해 승풍을 진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종단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감찰 및 예방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교육원

내년을 교육진흥의 해로 정하고 행자교육 내실화, 기본교육 관리 강화, 중앙승가대 운영 종합대책 수립,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 재교육의 다양화를 핵심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도 중요한 사업이다.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의 증설,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에 대한 학업이수 독려 및 학인 이동질서 확립을 위한 학사관리 통일, 의제실시 및 졸업자격고사 시행을 통한 기본교육 강화도 올해에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종지종풍 선양을 위한 조계종사(史)를 편찬할 예정이다.

▧ 포교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직장직능단체의 연합조직 건설 및 직장직능대회를 통해 조직의 골격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신도교육 의무화에 따라 일선 사찰에서의 신도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포교와 관련해서는 군법당 건립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군승특별교구 설치 등 군승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 포교를 위한 전법도량 지정 사업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사면논의 빠를수록 좋다

정대스님 '일괄사면' 입장 밝혀
대상자도 '종단정치 불간여' 약속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첫 중점사업이 될 사면의 폭은 어느 정도일까. 정대스님이 당선 인사차 혜암종정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일괄 사면' 입장을 밝혀 대폭적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원당암을 찾은 정대스님과 혜암스님 사이에서는 사면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그러나 혜암종정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 5일, 정대스님은 지난해 정화개혁회의 핵심인사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내놓고 종정스님의 의향을 물었다. 혜암스님은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혜암스님 또한 미국에 체류중인 9~10월 지난 해 정화개혁회의에 가담해 중징계를 당한 한 스님을 만나 종단화합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스님은 이날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해 원로스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면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냈다. 법전스님이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먼저 사면 얘기를 꺼냈다. 이어 봉주스님이 "종단분규와 관련해 징계를 당한 스님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대스님은 "10년 동안만 분규가 없어도 불교는 다시 번성한다. 종단의 화합을 위해 어떤 불사보다 먼저 사면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묶어두는 식의 사면으로는 분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폭적인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미 사면 대상자인 몇 스님들과는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 의견교환 이상의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사면 대상자인 한 스님의 측근은 "종단정치 불간여, 사면 전 참회 등 전제조건에도 응한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대스님 취임 이후 사면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 논의를 길게 끌 경우 또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 화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면 논의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혜암종정이 10월 7일 종단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교시 가운데 "금반 발생한 종단 마장은 승가 발전의 좋은 기회이니 사부대중들은 환희극복하여 화발결실(花發結實)토록 하라"는 내용을 사면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성운·이윤호기자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왼쪽)과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해인사 원당암 경내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음짓고 있다. 당선인사를 하기 위해 원당암을 찾은 정대스님에게 혜암스님은 "율원을 활성화해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조계종 혜암종정 동안거결제 법어

爲結制也入地獄이요 未結制也入地獄이니
透脫一句作麼生고 良久云云
禪院相逢元故舊니 親和同契趙州茶로다.
臨濟喝喝은 狂人演劇聲이요.
德山棒棒은 盲人影像打로다.
靈鷲拈花에 滅却正法眼藏하고
小林傳法에 斷盡別傳命脈이로다.
三世諸佛과 歷代祖師가 入地獄如箭射하니
且道하라.
一着이 落在什麼處오.
金剛山色은 千古秀하고 萬瀑洞天은 萬世明이로다.
咦

결제하여도 지옥에 떨어지고
결제를 못하여도 지옥에 떨어지니
튀어나는 한 마디는 어떠한가
(잠시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선원에서 서로 만나니 본래 옛 친구라.
서로 기분 좋게 같이 조주차를 마신다.
임제의 요란한 할은 미친 사람이 연극하는 소리요.
덕산의 눈먼 방은 장님이 그림자를 두드리도다.
영취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니 정법안장이 없어져 버렸고
소림굴에서 법을 전하니 별전의 명맥을 끊어 버렸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가 지옥에 들어가기 쏜살같으니
말해보라. 이 법문의 뜻이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는가.

금강산 경치는 千古에 빼어나고
만폭동 하늘은 萬世에 밝도다.
이——

목어 공경받는 승보

혼사를 앞둔 사람 앞에 무심코 농담으로 "암세포 증식 하는군" 했다가 상대방이 약간은 기분 나쁜 듯한 반응을 보여 무안했던 적이 있다. 끝없는 욕망 추구를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삶이 암세포 같다고 생각해오던 것이 말로 튀어나와 빚은 실수라고나 할까? 그 실수는 실수라 치고, 그런 식의 인간의 삶이 암세포와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암세포적인 삶을 청산하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참생명의 실상을 깨우치고 실현하는 삶을 살려 해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암세포 조직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건강한 세포처럼, 결국 암세포에 먹히는 꼴이 되거나, 혼자서 자기 마음의 안심입명처만을 추구하다 사회적인 삶에서는 소외되고 낙오되고 말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을 참생명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함께 손을 잡고 건강한 참생명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진다.

삼계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도 참생명을 실현해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공동체의 이상도 제시해 주셨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우리말 삼귀의에는 아쉽게도 그런 공동체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개개인으로서의 스님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승보를 보아야만 될 것이다.

출가승단은 불자들이 귀의해야 할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요, 그러하기에 가장 청정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 출가 승단이 본연의 모습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지 불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이상을 잃는 것이 된다.

요즈음 조계종 사태의 흐름을 지켜보는 불자들의 눈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여, 청정성과 화합성을 온누리에 펴서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구심점으로 당당히 서기를 기대한다. 불자들 또한 올바르게 공경받을 수 있는 승보가 되기를 기원해야 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평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악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사업부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중국 황제가 천하제일 향으로 인정한 보원향 처방입니다.
보배중에 가장 으뜸으로 인정한 향입니다.

- 효능
  - 머리가 밝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보원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신비한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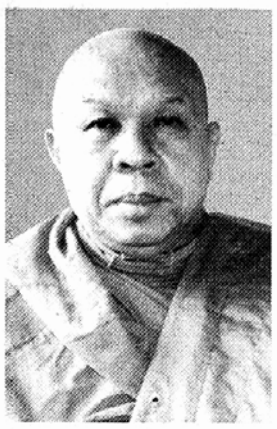
제조원: 만복당(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사업부 혜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21세기는 마음법이 지배"

내한한 태국왕사 소핏스님



"소승과 대승이란 구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상근기와 하근기가 있을 뿐이지요. 근기를 키우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서울 자비정사(주지 청목) 초청으로 10일 서울에 온 소핏스님(태국 새벽사원 방장·태국왕사)은 12일 자비정사 법회에서 "다음세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온 인류가 혼탁한 마음을 비우고 새 마음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다음세대의 문화현상 등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의 대의인 마음법이 온 세계사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고 확신했다. 또 "이날을 위해서 승단이 먼저 바로서야 한다"며 "스님들은 서로 이해하며, 오직 한가지 물질과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부해야 불교가 부흥하고 각자의 행복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불자들의 불심이 깊고 바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핏스님은 한국의 선불교가 인류사회의 대안으로 떠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핏스님은 현재 방콕의 새벽사원에 주석하고 있으며, 12월 5일 착공하는 태국왕 72회 고희기념 국찰설립위원회 설립위원장으로 국가적인 불사를 관장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교 차 로

의정부경찰서 법당개원 증명



탄성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스님은 20일 의정부경찰서 법당 개원법회에서 증명법사로 참석했다.

동화사 수성구 신도회 창립



성덕 대구 팔공산 동화사 주지는 23일 통일대불전에서 수성구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동서양 사상세미나 참석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사)태백원이 1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동서양 전통사상연구세미나에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윤리적 지평과 미래세계'에 대해 발표했다.

선원사 복원 3천일기도 회향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선원사 복원을 위한 3000일 지장기도 회향법회와 고려시대 탄생불 친견대법회'를 봉행한다. (032)933-8234

예비역군법사단 정기총회



성광 예비역군법사단 단장(화계사 주지) 스님은 2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법무연수원서 특강

혜철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스님은 11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업·연기사상과 재소자교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5일 동방인의 밤 행사

도성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스님은 12월 5일 오후 5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3회 동방인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정태혁 학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와 동문,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장상문 거사 7주기 추모법회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0일 3층 대법당에서 불교진흥원 및 불교방송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장상문 거사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진주서 공직자 대상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은 22일 진주시 문화회관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변해야 산다'주제로 강연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신광식 불교언론인회 회장(방송진흥원 관리처장)은 전·현직 불자언론인 20여명과 함께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네팔 등 부처니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따뜻한 세상 느끼게 한 릴레이 신장기증



◇용봉스님



◇지주현씨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온 한 주부에게 스님이 신장을 기증하고, 그 남편은 고마움의 표시로 다른 신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따뜻한 미담은 전북 남원 산동면 승련사 용봉스님에서부터 시작됐다. 만행중이던 용봉스님은 지난 8월 생명나눔실천회를 방문해 "모든 만물은 인연 따라 서로 돕는데 장기기증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장기증을 서약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곧바로 용봉스님과 신장조직이 일치하는 환자를 찾았고 그 중 생명나눔실천회를 몇차례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던 전정님씨(47·구리시 수택동)가 대상자로 떠올랐다. 전정님씨는 가족들과 조직이 맞지 않고 순수기증자도 없어 신장 투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던 중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씨의 남편 지주현씨(53)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신장을 기증했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와 같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김덕자씨(43·서울 광진구 자양동)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 이들 네 사람은 1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나란히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단계에 있다.

용봉스님은 수술 후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자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이로 인해 또다른 사람도 새생명을 얻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의정부경찰서 법당건립 주역 심재열 경감

경찰포교 숨은 일꾼…"종단지원 절실"



"15만 경찰이 불심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승 및 신도들의 노력과 함께 종단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경찰청 외사1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심재열 경감(54)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천후 포교사'다. 현직경찰로서는 유일하게 경찰종합학교 및 의정부경찰서 경승법사를 맡고 있는 심 경감은 태고종 승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 포교사로서 풍수지리학의 양택(陽宅, 무덤이 아닌 사는 곳의 환경을 따지는 풍수학) 부문의 권위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 어떤 일을 하든 처처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성을 쏟으면 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

20일 개원한 의정부경찰서 법당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법당 건립의 산파 역할을 한 김 법사는 94년 서울 북부경찰서 경승실 개원 및 경승협의회 창립, 96년 경찰종합학교 법당 창건 및 경승실 개원, 98년 의정부경찰서 법우회 창립 등 경찰포교의 숨은 일꾼 역을 자임해 왔다.

13일 개원한 중앙경찰학교 법당 건립을 지원하는 등 불교계와 경찰의 중개역할을 해 온 심 법사는 사재를 털어 법당 및 경승실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타종교인 경찰들의 모함을 받고 강제 퇴직을 당할 위기를 여러번 겪기도 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새벽예불과 참선, 독경을 통해 얻어진 청정심"이었다는 그는 "종단의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전무해 경승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경찰포교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동국대 법대 후원의 밤

종립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연기영) 50주년을 기념하고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 불국사 주지 성타, 은해사 전 주지 법타스님 등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 이연택 동국법대 후원회장을 비롯 학계 법조계 인사, 동문, 재학생,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18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성료됐다.

제주 감귤아가씨 '진'

불자 김경란양 선발

제주 고관사 불사리탑 신도인 김영준(전 제주도의회의원)·김명희씨의 딸 김경란 양이 6일 열린 제19회 제주 감귤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선발됐다.

제주한라대학 일어과에 재학 중인 김 양은 유창한 일어 실력으로 제주 감귤 홍보에 앞장서는 한편 불교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경 기자



인 사

동국대 △부속 유치원장=권은주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김병식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이문보 기획팀장겸 건설팀장=최창선

스리랑카 불교종정 팔리파나스님 열반



한-스리랑카 불교 교류에 앞장선 스리랑카 불교의 종정 팔리파나 다르마키르띠 스님이 8일 스리랑카 마이양가나 지역 라저마하비하르 절에서 열반했다. 세수 85세.

세계불교승가회의와 세계불교법화종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한국-스리랑카 불교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82년 동국대에서 다르샤나 비샤르드 상을 수여받고 세계불교도대회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 가르침-수행담 엮어"

'진리의 당체…' 펴낸 안영일 구청장



"현 시대의 우바새, 우바이들과 함께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하며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도서출판 여래 刊)을 펴내고 13일 출판기념법회를 가진 안영일 부산 진구 구청장(삼광사 신도회장)의 말이다.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은 8장으로 나누어 부처님 일대기, 경전의 탄생과 비밀, 종단의 성립, 우주를 향한 전법의 법륜 등 부처님의 가르침 전반을 수행담을 곁들여 서술했다. 안 구청장은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인도불교사, 부파불교시대를 비롯 우리나라 불교의 시대적 변천 등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어려운 이 돕는 공직자 될래요"

행시 보호관찰직 수석 함혜현씨



석합격한 함혜현(25)씨는 이 영광을 불전에 돌렸다. 함씨는 참선을 정신을 맑게하는 자기관리의 교본으로 삼을 만큼 신심 돈독한 청보리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93학번)에 입학한 후 불교학개론, 선실습을 통해 마음다스리는 법을 알게됐다는 함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고 밝은 등불을 밝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청각원을,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약수사 부처님을 자주 찾았습니다."

제43회 행정고시에서 보호관찰직에 응시 평균 67.93점으로 수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한국정토사·영종집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왕생론· 반주삼매경·무량수경종요·보왕삼매론· 미타예참법·정토미술	교수진	한보광스님(동국대)·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태 원스님(승가대) 주명철교수(동국대)·정태혁교수(동국대) 강동균교수(동아대)·김영미교수(이화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11월 1일~ 99년 11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12월 2일(목)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타 정 토 대 학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14일 '불광 창립 25주년과 월간 불광.300호 발행기념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제방의 대덕큰스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월간 불광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법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후원단체와 불자연예인들을 비롯해 출연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법회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정감어린 관심과 환희심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겨레와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풀어주신 후의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밝고 희망찬 불국토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보륜 지정
주지 보하 지암
회장 박 충 일 합장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13-6060 팩스413-6781 http//www.bulkwang.org



◇ 약사보리회는 지난 13일 탑골공원에서 무료투약을 실시했다.

추위 녹이는 자비인술

선재마을 의료회 조선족·외국인근로자 진료

능인 의사회 무료진료·의학상식 강좌도

약사 보리회 실직자·노인등에 무료투약

자비의 의술로 추운 겨울을 녹인다.

조선족 동포와 실직자, 무의탁 노인등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진료를 펼치는 불자 의사 약사 간호사들의 자비행이 각박한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강경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강남 봉은사 진료소에서 조선족, 외국인근로자, 실직자, 노숙자, 노인등 의료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양·한방 전과목 및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조선족과 외국인근로자 3백여명등 총 8백여명을 진료했다.

강경구회장(강내과의원 원장)은 "의사 40명, 치과의사 40명, 간호사 20명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다"며 "현재 조계사등 다른사찰에서도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능인의사회(회장 조수용)는 지역 노인과 불자들을 위해 능인선원 법당에서 2달에 한번씩 양방은 물론 한방 의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인과, 내과, 외과, 신경과, 치과 등의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2달에 한번씩은 의학상식 강좌도 실시하여 예방의학에도 힘쓰고 있다.

조수용회장(고대병원 산부인과장)은 "앞으로 14명의 회원을 두배로 확보하여 대사회적인 의료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간 매월 둘째주 일요일 탑골공원에서 실직자와 노인 1만 2천명에게 무료 진료와 투약 보시를 실시한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는 16일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보각스님(소쩍새마을 원장)등 1백여명의 후원인들을 초청해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자비의 약손으로 불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연이어 창립된 선재마을의료회와 능인의사회, 약사보리회는 조직을 확대해 새 천년을 맞는 내년에는 더욱 활기찬 자원봉사활동을 편다는 계획이어서 교계의 의료봉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국립의료원 법우회등 5개 병원불자회가 합동성지순례법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병원 불자련 결성 추진

5곳 14일 합동성지순례

12월 실무모임…내년 발족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립경찰병원직원불자회, 경희의료원 경불회, 국립의료원법우회, 서울국립정신병원불자회, 한일병원불자회는 14일 마곡사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갖고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을 위한 친목을 다졌다.

10월에 있은 병원불자연합회 준비모임에 이어 마련된 이날 성지순례는 50여 명의 병원불자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곡사 참배 및 순례에 이어 이학주 교법사(명성여고, 서울국립정신병원불자회 지도법사)의 집전으로 기도정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직원불자회 김정숙 부회장(물리치료실 실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복 받은 사람들이다"며 "열린마음으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또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에 힘을 모아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도반이 되자"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황보추 회장은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쓴 서예작품을 선물했다.

이날 참석한 병원불자회는 12월 초 실무자 모임을 한번 더 갖고 내년 초에는 연합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참사람"

유불동 서옹스님 초청법회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정덕)는 백운암 정년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초청법회〈사진〉를 개최했다.

2백여명의 불자들이 백운암 대웅전과 앞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행된 법회에서 서옹스님은 "20세기는 '욕망이 생명력'이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서양의 역사관에 의해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이 대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다른 의견을 자비심으로써 융합하는 것이 참사람운동이며, 참사람운동의 요체는 모든 학문과 철학, 종교를 초월해 자유자재한 인간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옹스님은 이날 참사람에 대한 게송을 들려주며 법문을 마쳤다.

靑山依舊白雲中 壺中自有佳乾坤
嶺上明月淸飛吹 日日新奚又日新

청산은 흰구름 속에 옛날과 다름이 없음이라/단지 가운데에 저절로 아름다운 건곤이 있도다/산봉우리 위에 밝은 달 청풍을 붊이라/나날이 새로움이며 또한 날로 새로웁도다.

정성운 기자



재소자에 합장주 보시할 분…

서울구치소불심회(회장 박종열)는 재소자들에게 줄 합장주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교무과 유화영씨는 "불심회에서 조달하는 합장주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며 재소자 교화와 포교에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불심회는 11일 도안사에서 월례법회를 봉행하고, 도운정사 주지 원봉스님은 "재소자들이 부처님 품에서 다시 태어나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0343)385-8035

무등벌서 영호남 친선교류 법회

13개 운불회 무각사서

광주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용문)는 21일 광주 무각사에서 영호남 친선교류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전주, 경주, 포항, 대구, 부산 지역회를 포함 전국 13지역회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해 영호남 친선은 물론 전국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과시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전국 회원들만으로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김용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세기에 걸쳐 위정자들의 허위와 날조로 영호남이 대립과 반목,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져 왔다"며 "'달리는 법당, 자비의 봉사자'를 표방하고 있는 운전불자들이 앞장서 부처님의 원융사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천운스님(향림사 조실)은 법문에서 "곳곳에서 활동하는 운불련 회원분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영호남이 화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회 후 5·18 망월동 묘역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심우회 장애인 돕기 바자

심우회(회장 이청정행)는 주몽재활원(원장 장선옥) 주최로 26일 오전9시~오후4시 재활원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제2회 주몽사랑나눔바자회에서 떡볶기 판매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무의탁 장애인들이 사용할 세탁기 구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날 바자회에서는 먹거리 품목과 의류, 문구류, 수공예품 등이 선보인다. 또 일일 사랑의 미용실도 열린다.

02)427-6572

스카우트 지도자회 윤독법회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0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윤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조준형씨의 강술로 신심명('信心銘) 강의가 진행됐다. 02)2292-8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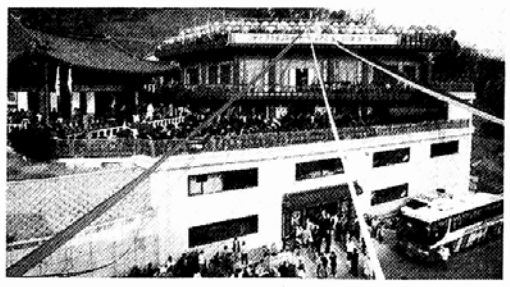
청량리기관차 가정법회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17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한 신효철 전 5대 회장의 집에서 '이사축하 가정법회'를 열었다. 이날 가정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축원,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는 창립 이후 회원들에게 경조사가 있을때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가정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02)965-9224

부산의료원 하루찻집

부산시립의료원불자회(회장 이장수)는 27일 중앙동 다전에서 행려병자를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이날 수익금은 행려병자들의 일상용품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기구 구입등의 비용으로 쓰인다. 051)879-1971



강룡사 불교회관 낙성·삼존불 봉안

천태종 강룡사(주지 월도)는 17일 종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과 1053불 봉안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이회장 한나라당 총재부인 한인옥여사, 김진선 강원도 지사,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 이웅선·박세환·유종수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과 신도 7천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논산 입소대 법당 기공식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12일 육군 제2훈련소(논산) 입소대대 법당 신축불사 기공식을 성초 통리원장, 현진 조계종 포교부장, 정남기 훈련소장, 불교어머니회, 장병등 종단 및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진각종이 건립비용 3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한 입소대대 군법당은 오는 2000년 5월말 준공 예정이다.



여불련 '남녀평등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미래 지향적 남녀평등의 방향'을 주제로 제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단국대 이영애 교수, 국회여성특위 박숙자 정책위원, 최정희 전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동국대 교육아동학과 백경임교수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동산반야회 창립 17돌 기념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3일 서울 안국동 동산법당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동산불교대학 졸업생과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법회에서 동산반야회 법주 무진장스님은 "항상 초발심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수행과 정진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집 문경새재
전화 0344)917-9224 팩스 0344)918-9224 전자우편 mbook@netsgo.com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당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마주한 적 있는가!



다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며

가을이 한창 산문을 물들이던 어느날,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고산 큰스님은 노구를 탁마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짧은 기자회견만으로 조계사를 떠나셨습니다.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피할수 없었던 종단분규로 인해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잃었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우리는 또 어느 세월, 어떤 스승을 만나 이 풍진 세상의 화두를 찾아낼 수 있을런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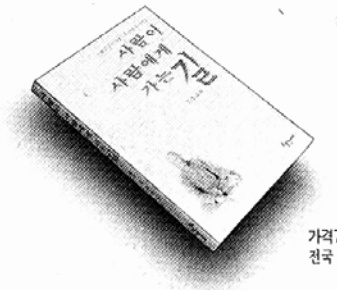
산 , 그보다 푸르고 깊은 마음을 담아

당신은 버리고 떠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으로 돌아가시던 그날, 유난히 커보이던 대웅전 부처님과 환송식에 모인 사람들은 더이상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가을비가 당신의 발걸음만 가볍게 적셔줄 뿐, 그날 이후로 당신을 마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 책에는 오로지 수행자라는 외길로 일생을 살아온 고산 큰스님의 질박한 삶과 부처님 이야기를 통한 잔잔한 가르침이 지혜롭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쉽게 큰스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삶을 위해 서라면 더욱 큰스님이 육필로 남기신 이 고마운 법문을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가격7,500원 /국판/260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뜻 있는 주지스님들과 불자분들의 많은 법보시를 기다립니다.

● 도서판매의 수익금 중 일부는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도서출판 문경새재로 안락을 주시면, 이 땅 불국토를 염원하시는 큰스님의 뜻에 따라 할인행사를 감행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기도

"온갖 번뇌 불살라 버릴 수 있다"

'대입 수능시험' 하면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극한 수행법의 하나인 기도.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요즘 업장을 참회하는 삼천배기도법회가 전국의 사찰에서 열리고, 동안거(22일) 결제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수행자의 기도 소리도 드높다.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닌 수행과 성찰의 기회로서 기도에 관련된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보현행원품〉

▨능히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들려주면, 가이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얻느니라. 〈금강경〉

▨마땅히 일념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립하여 호의(狐疑)함이 없거라. 〈반주삼매경〉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수한 문이 있다. 마치 세상의 길에 험난한 길 쉬운 길이 있어서 육로를 걷기는 어렵고 수로를 배로가면 쉬운 것 같이, 보살의 길에도 근행정진(勤行精進)이 있는가 하면, 신방편(信方便)의 이행도(易行道)를 통해 불퇴위(不退位)에 속히 이르는 방법도 있다. 만약 불퇴전지(不退轉地)에 속히 이르고 싶거든,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 받들어야 한다.
〈십주비바사론〉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 큰 불속에 떨어진대도 불이 태우지 못하느니, 이 보살의 위신력에 말미암는 까닭이다. 또 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경우라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얕은 곳에 곧 닿을 것이다. 〈법화경〉

▨아침에 관세음을 염하고, 저녁에 관세음을 염하여, 시시각각의 행위가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고, 부처님을 염하여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고난을 떠나고 몸을 떠나 온갖 재앙이 무(無)로 돌아간다. 〈몽수경〉

▨바르게 진리를 보아도 항상 부지런히 수습(修習)하지 않는다면 탐심(貪心)이 뒤섞이게 마련이다.〈성실론〉

▨제천 제왕 인민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잡고, 억념수지(憶念受持)하여 그 불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면, 그 사람이 죽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만약 어느 중생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듣잡고 신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여, 비록 잠깐 사이라도 지성으로 회향(廻向)해서 그 불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대아미타경〉

▨만약 지심으로 계념(繫念)하고 단좌정수(端坐正受)하여 부처님의 육신을 관상(觀想)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불심(佛心)과 같아져 부처님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번뇌속에 있을지라도 여러악의 가리우는 바가 되지 아니하며, 내세 어느 땐가는 큰 가르침의 비를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불경〉

▨만약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지녀 겁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지혜가 있어서 첨곡(諂曲)함이 없다면, 늘 부처님들 앞에 있게 되리라. 〈십이불명경〉

▨만약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여래의 이름과 공덕을 일컬어 말한다면, 이런 중생들은 능히 어둠을 떠나 점차로 온갖 번뇌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리라. 〈보적경〉

▨누구든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느니라. 그러나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불설무량수경〉

▨열가지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는 것, 업장의 참회, 남의 공덕을 기뻐함, 설법을 청함,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보현행원품〉

▨내가 중생들을 관찰컨대, 부처님을 염(念)치 않는 탓으로 악취(惡趣)에 떨어져 생사의 윤회를 받고 있다. 만약 이를 깨달아 길이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환과(不還果)를 꼭 얻어 미혹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본사경〉

열 린 마 당



◇13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 혁신과 자주를 위한 대토론회'

범불교 서명운동본부 토론회 '불교혁신과 자주화'

교단의 구태와 악습의 고리를 끊고 혁신과 자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한 불교정신과 실천력의 회복이 선행되고 출·재가가 상호신뢰와 인정으로 방향성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정의와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불교 서명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백창기·박광서)는 1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혁신과 불교 자주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1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판결로 야기된 '불교 자주화'의 공론화를 위해 열린 '불교자주와 혁신을 향한 범불교도 전진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김광식씨의 '20세기 불교교단의 자주화 문제', 배영진씨의 '교단의 혁신과 불교자주화' 발제문과 박수호씨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잇단 분규 자주화 걸림돌"



김광식〈대각사상硏 연구부장〉

일제하의 불교 교단은 사찰령 체제로 인해 그 설립 자체가 부정되었다. 다만 1929년 승려대회에서 제정한 종헌체제와 1941년 등장한 조계종 체제는 교단의 외형을 띠었지만 한계가 적지 않았다. 8·15 해방이후에는 주로 교단의 주도권 및 그 대표자의 인정에 관한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불교정화의 추진, 1970년대 종단 대표를 둘러싼 분규 등이 단적인 예다.

일제하의 교단 운영은 인사권,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행정체제를 장악한 일제에 의해 구속을 당했다. 해방이후는 주로 운영의 자율화, 교단의 기반인 재산권의 보호 및 불교활동을 저해·억압·탄압하였던 각종 법령 및 시책 등이 교단 자주화의 대상이었다.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 관련법 철폐와 보완, 10·27 법난 명예회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주화의 추구는 불교계 내부의 한계와 모순, 권력지향의 속성, 분규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 20세기의 교단 자주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해명하는 것은 21세기의 불교 자주화는 물론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출·재가 공동체의식 필요"



배영진〈전불련 의장〉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혁신을 이룩한 개혁가이다. 때문에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참회하며, 고뇌하고 정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님들은 출가정신의 견지와 수행풍토 조성, 지계·인욕·포교정신의 고취, 위계질서의 확립(문중파벌 타파, 막행막식승 벌도관리 등), 교단과 사찰 운영 및 경영의 합리성 제고 등에 매진해야 한다. 재가불자들도 불교도의 의무를 자각하고 사회정의 실현, 공익활동 참여, 불교와 민족의 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혁신과 자주화에 대한 출·재가의 공동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종단운영에 있어서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창구가 열려야 한다. 종단 운영에 상호부조, 상호신뢰, 상호인정 하는 방향성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총무원 종무회의에 신도회 및 청년회 대표의 참석을 의무화 한다거나, 중앙종회에 재가대표를 부분적으로 참여(또는 종회 양원화)시키는 방안이 한 예다. 특히 재가불자들은 조직을 내실화하고 활동을 전문화 활성화 해야 하며, 재가조직의 역할과 과제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교단 운영 합리화 급선무"



박수호〈고려대 강사·사회학〉

교단의 혁신과 불교 자주화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사회조직'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구체적이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현시대와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불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재가의 내부적 불신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 부처님이 평생 '좋은 벗'을 자처하며 하심 했듯이 위계에 따른 관료제적 교단이 아닌, 사부대중 모두를 도반으로 인정하는 평등한 공동체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승가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계와 인욕의 생활화가 필수적이다.

교단과 재가불자들의 상호관계가 상호인정-상호신뢰-상호협력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의 합리화,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가불자들의 활동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결사운동도 필요하다. 불교 제단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형 포교전략을 위해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목탁소리

아름다운 회향

이 경 숙 〈취재1부장〉

"나 죽으면 화장해서 첫눈 오는 날 길상사 뜰에 뿌려달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기라도 한 양 운명하기 하루전인 13일 길상사를 둘러보고 나즉막히 이런 말을 했다는 김영한 보살. 30년대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가무에 능한 명기(名妓)로 최고 인기를 끌었던 김씨였지만 그는 세속의 영화와 부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어떻게 삶을 회향해야 하는 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인간이었던 것 같다. 3년전 국내 최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해 청정도량 길상사로 거듭나게 한 김보살. 그 덕분에 태어난 조경이 잘된 아름다운 절 길상사는 삭막한 도시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부처님품으로 인도하고,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참선등 수련을 도와주고, 맑고향기롭게 운동으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여러 일을 해오고 있어 서울의 대표적 수행도량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청정한 보시정신이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원각은 싯가 1천억대라는 그 천문학적인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혈육이 있다는 사실때문에도 그가 떠난 이때 그 보시정신은 더욱 빛나 보인다.

김보살의 유해가 화장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는 법정스님 등 길상사 스님들과 가까운 친지 등 30여명만이 동행했다고 한다. 여든 셋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하고 영욕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굴곡많은 삶일수록 만년을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지와 자신이 얻은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게 가장 넓게 나누는 삶을 보여주었다.

'감투차지' '물욕'이 근본 원인이라 비난받았던 지난해와 최근의, 두차례의 조계종 분규를 겪은 불자들이기에 무소유를 실천한 그의 삶과 정갈한 마감이 더욱 한송이 연꽃과도 같은 청량한 아름다움과 감동으로 다가온다.

김영한보살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그처럼 회향하는 삶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절염 무료수술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가피나 일상생활의 행복감 등 부처님 품안이야 따뜻하기 이를데 없지만, 정작 불교계 실상은 불자들이나 사회적으로 베푸는 일이 다른 종교에 비해 인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주년으로 득자사은과 복지불사의 실천 차원에서 동인천길병원과 공동으로 퇴행성관절염 무료수술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읽고 눈이 확 열리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곧바로 신청했다. 가족과 부처님만 의지한채 평생을 살아오신 시어머님이 무료관절염으로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 건강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시아버님 간병도 제대로 못하시고 사별까지 했고 49재에도 참석하시지 못했다. 심한 고통속에 있던 어머님이 무료수술을 받아 다시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실수 있다니… 그것도 병원비 수술비 없이 무료로 지원을 해주신다니. 나는 실로 불자임이 자랑스러웠다.

어머니의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현대불교신문에서 풀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식들의 고통까지 덜어주신 것과 같다. 동인천길병원 이수찬원장님의 숨은 듯이 행하고 계시는 보시행에 절로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 동인천길병원 8층 입원실에 계신 시어머니 침상 옆에서 이글을 쓴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뒤적이며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러면서 결심한다. 회복하신 시어머님 모시고 시아버님 극락왕생을 기원하러 천도재를 모시기 위해 함께 절에 가겠다고…

본각당(용화선원 신도)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구입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대체의학과 음양침술 특별강습회

대체의학을 알면 인류는 각종 성인병과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어떤 질병이라도 5~1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사 이 상 문
■저서
음양감시보감/ 밥따로 물따로/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한국인

특강요지 대체의학이란 무엇인가?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병 증상은 수십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음양침술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37년간 응용한 비법입니다.)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혈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을 알게 됩니다.
▶첫 째 :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 째 :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 째 :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처료가 안되는 증상 등등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의학과 음양침술은 범 국민적 차원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특별 강습회를 갖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편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양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201호)
■문의처 : 02)861-5851~2 / FAX : 02)861-5852

석굴암 결로현상 시멘트 지붕구조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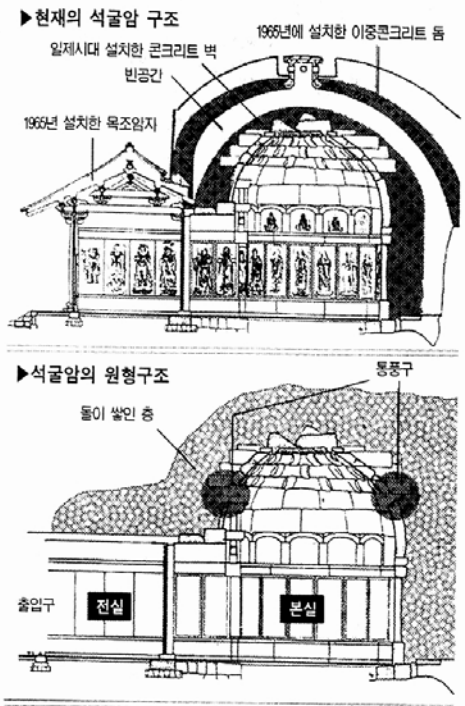
과기원 송태호 교수, 훼손원인 과학적 접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국보 제24호) 암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하얀 부스러기가 생겨 훼손되고 있는 것은 시멘트 지붕 구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 송태호 교수(기계공학과)가 '원형 석굴암의 상부구조의 장마철 결로(結露) 및 열전달 현상의 실험적 연구'에서 석굴암 결로 현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석굴암은 원래 본실 지붕인 천개석 위에는 직경 수십cm의 돌들이 1m 정도 쌓여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같은 석굴암의 독특한 덮개 구조를 주목한 송교수는, 먼저 직경 5~15cm의 화강암으로 구성된 다공성 구조물(원래 석굴암의 상부구조)과 시멘트, 물, 모래, 자갈 등을 섞은 콘크리트 구조물(일제가 보수한 석굴암 상부구조)을 만들었다. 그리고 석굴암 주변과 똑같은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만들어 두 구조물을 비교했다.

실험 결과 다공성 구조물은 외부 온도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바깥 온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다. 석굴암을 훼손시키는 결로 현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만 발견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장마가 그치고 맑은 날이 시작되면서 결로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점이다.

송교수는 이를 이슬점의 원리로 설명한다. 비가 그치고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된다. 이 공기가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과 만나면 함유할 수 있는 수분량이 적어져 여분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축되며 이슬이 생긴다.

그러나 다공층 구조물은 자연 대류의 영향으로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장마철 동안 비가 오면 다공층은 차갑게 식게 된다. 날이 개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다공층을 타고 내려오면서 수분이 응축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습 효과가 생겨 석실 내부에는 건조한 공기만 들어오게 된다. 밤이 되어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석실 안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다공층을 따라 빠져나가면서 돌에 묻어 있던 물기를 증발시킨다. 그러므로 석굴암 내부에는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송교수는 "돌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다공성 구조물은 곳곳에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어 외부 공기가 안으로 쉽게 드나들면서 열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석굴암 보존에 수천년 내려온 옛 사람의 지혜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교수의 논문 '원형 석굴암 상부구조의 장마철 결로 및 열전달 현상의 실험적연구'는 최근 열린 공기조화냉동공학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극단 완자무늬가 12월4일부터 12일까지 동숭홀 무대에 올리는 연극 '옴' 연습장면. 극중 원효스님(권성덕 분)이 만행을 하고있다. 오른쪽 사진은 원효스님과 요석공주(김지숙분).

원효스님 생애 연극으로

극단 완자무늬 '옴'…12월4~12일 동숭동아트센터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는 우리가 좇아야 할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극단 완자두늬(대표 김태수)가 원효스님의 일생을 무대에서 재현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룬 신라인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96년 연극 '뜰앞의 잣나무'를 통해 10·27 법난의 실상과 상처를 생생하게 전달했던 완자무늬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동숭동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연극 '옴'을 공연한다.

이 연극은 당나라 유학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간 원효스님(권성덕 분)의 인생 여정과 김춘추(조상건 분)·요석공주(김지숙 분) 등과의 갈등을 통해,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중생이었으며, 또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금강(金剛)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연극의 부제는 '통일 천년의 문을 연다'이고, 완자무늬가 과거로부터 불러낸 인물은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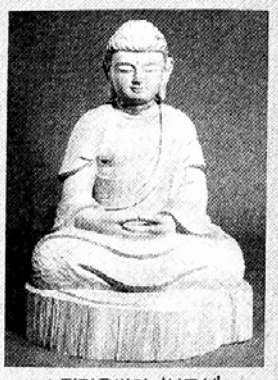
'옴'은 완성·출생·진언 등의 뜻을 지닌 범어로, 이 연극에서는 '금강'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정치와 종교는 모두 민중의 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으로 표출된다.

창단 15주년을 기념해 이번 연극을 준비한 완자무늬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에게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작가 이하륜씨는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한 원효의 자비실천이야말로 신라 삼국 통일의 밑거름인 불교의 힘이었다"고 설명한다.

연출은 96년 '뜰 앞의 잣나무'를 연출했던 김태수씨가 맡았다. 김씨는 "역사 속의 영웅적 모습보다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한 원효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물놀이 등 평면적인 다큐멘터리적 접근보다는 연극적 재미를 적극 삽입하여 역동적인 무대를 꾸미며, 다양한 형태의 조명으로 땅·물·바람·불 등의 상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02)765-5475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정경용씨의 '성도상'

정경용씨 조각전

목아박물관, 28일까지

석굴암 불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각가 정경용씨가 20일부터 28일까지 목아박물관에서 '불교조각' 전을 마련하고, 석굴암의 관음보살상과 감실 내 사유보살상 등을 모본으로 제작된 불보살 40여점을 선보인다.

전통불교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그 바탕 위에서 창작 작품 활동을 전개해 온 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조각 주재료를 돌이 아닌 흙과 나무를 선택하는 등 통일신라의 청정한 불보살을 재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0337)885-9952



불교음악 전문사이트 '만트라' 클릭하세요

인도, 티벳, 네팔의 불교음악을 다루는 전문 사이트가 개설됐다. 이 지역 음악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이름은 '만트라'.

이 사이트에는 10분 길이의 '옴 마니 반메훔' 등 각국의 전통불교음악은 물론 티벳의 피리 연주자이며 불교예불과 자연음을 도입한 퓨전 음악으로 유명한 나왕게촉이 95년 발표한 뉴에지 앨범 '카루나' 등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각국 음악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음반 구입 방법도 올려져 있다.

주소는 http://www.tibet.co.kr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한국전 참전미국인 고려금동불 기증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인이 49년간 보관해 온 고려시대 금동불상 1구가 반환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에 18일 반환된 이 불상은 높이 33cm, 가로 21cm 크기의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박물관 측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상 연구자료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불상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LA거주 찰스 슈미트가 38선 부근 사찰에서 습득, 소장하고 있던 유물로, 불상이 북한군에게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찰 스님들이 슈미트에게 맡겼던 것이다.

이번 반환은 최근 임종을 맞은 슈미트가 가족에게 불상의 한국 반환을 희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인비구 동종 7구 보물지정 예정

조선시대 뛰어난 주종장이었던 사인비구(思印比丘)의 동종 7구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포항 보경사 서운암, 문경 김룡사, 홍천 수타사, 안성 청룡사, 서울 화계사, 양산 통도사, 의왕 청계사 등의 동종 7구를 13일 지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비구가 만든 종 가운데 조성년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사인비구의 초기 종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또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문경 김룡사 동종은 신라종의 전통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조선후기 종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종이다.

사인비구는 신라 이후 승장의 맥을 이은 마지막 주종장으로, 전통수법의 재현과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면서 창조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조명하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불교공예미를 표출시킨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인비구의 동종은 모두 8구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중 '강화동종'은 1963년 보물 제11호로 지정됐다. 이들 동종은 30일간의 지정예고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찰·신행단체·계모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태국·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 ₩2,334,000
출발일 - 1월 14일 (선착순 20명 모집)
방콕-양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비라나-폴론나루와-시기르야-댐불라-캔디-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탐방)

그 나라만 생각하여도 마음이 설레이는 미얀마와 스리랑카……. 우리는 미얀마에서 높이 99.2m의 황금대탑이 있는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의 산실인 마하시 수도원, 2500여 개의 불탑과 사원이 남아 있는 파간의 아난다 사원, 세계 최대의 120m 와불을 모신 보디따다웅파고다, 크고 작은 불상 58만불을 모신 딴보디파고다 등 총 15개 성지를 순례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아쇼카왕의 아들인 마힌다 왕자가 심었다는 보리수를 비롯하여 아누라다푸라 대정사,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뽀로나뤄 와불상과 세계 10대 불상 중 하나인 아우가나 입불상, 시기르야에 있는 석굴사원의 부처님들과 아름다운 벽화,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불족봉(佛足峯), 스리랑카 최대의 사찰인 불치사(佛齒寺) 등 10여 곳의 성지를 탐방합니다.

때묻지 않은 이들 나라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례가 되리라 자신하면서, 감히 이 성지순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청하여 봅니다.

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 ₩680,000
출발일 - 12월 22일 (선착순 20명 모집)
벽운사·와불사·법해사·운거사·법원사·대종사·법운사 등
북경의 고철 순례와 만리장성·이화원·자금성 등 관광

북경은 원·명·청나라의 왕도답게 대단한 사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다음 8곳 사찰을 순례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5백 나한과 5불탑이 유명한 벽운사, 열반상이 모셔진 와불사, 수월관음을 비롯하여 중국 제일의 벽화가 법당에 가득 차 있는 법해사, 방산석경으로 유명한 운거사, 천불석주가 여럿 있는 신비의 동굴 뇌음동, 천불좌대여래상 및 각종 석불이 모셔진 법원사, 2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종과 수많은 종들을 접할 수 있는 대종사, 10m가 넘는 나무로 조성한 미륵대불이 모셔진 응화궁 등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화원·자금성과 골동품 거리로 유명한 유리창도 찾아갑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특별순례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감동과 신행·품격이 있는 성지순례!
저희 善哉여행사와 함께 하십시오.

인도 성지순례 9일 ₩1,900,000
출발일 - 1월 23일
델리 - 아그라 - 기원정사 - 룸비니 - 쿠시나가르 - 바이살리 - 나란다 - 라지기르 - 보드가야 - 사르나트 - 바라나시 - 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산치대탑·이잔타·엘로라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
카트만두·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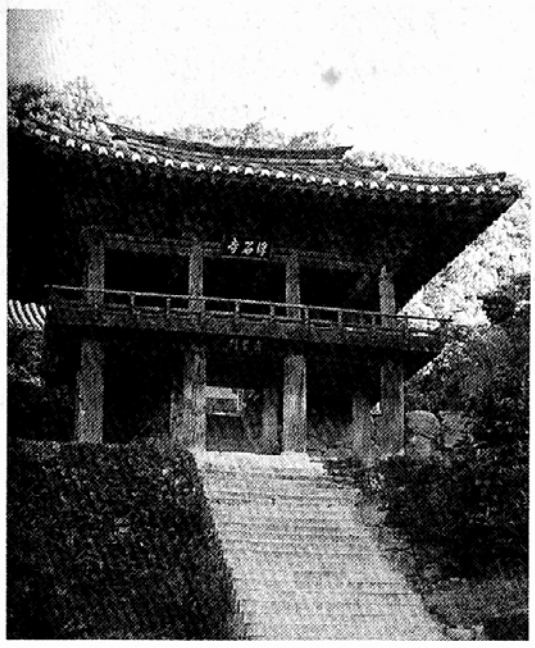
인도·네팔·태국 성지순례 12일 ₩2,100,000
출발일 - 2월 21일
방콕-카트만두-나가르코트 일출-룸비니-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살리-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사르나트-바라나시-카쥬라호-아그라-델리

중국 상해·보타산·항주·소주 6일 ₩920,000
출발일 - 1월 4일
상해 옥불사·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파 아육왕사·천동사-항주 서호십경·영은사·비래봉 석불동굴-소주 한산사·호구·졸정원-상해

◈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광세,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 각국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팁은 일체 없습니다.

善哉! 좋고 또 좋구나, 좋은 것 뿐이로다. 불교신행연구원 선재여행사 전화 : 02-582-6647~9 · 팩스 : 02-586-9078

동-서양 건축 차이 '자연과 교감'



◇우리나라의 가람배치는 자연과의 교감속에 이루어졌다. 사진은 자연에 순응해 변화무쌍한 계단처리가 잘 나타나 있는 부석사 안양루 모습.

임석재씨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동·서양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미있게 비교 분석한 〈우리 옛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대원사 刊)이 나왔다. 서양건축사를 전공한 임석재교수(이화여대)가 펴낸 이 책은 서양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개심사 범종각과 체코 프라하의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의 경우를 보자. 개심사 범종각은 흰 기둥을 사용하였고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은 찌그러진 모습으로 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건축물 모두 비정형적 건축을 추구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크다.

해체주의 양식에 속하는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은 현실 세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해체'라는 조형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범종각은 고뇌로 가득찬 부정적 현실 세계의 대안을 자연 속의 완결된 한 생명 단위로 받아 들이는 긍정적 조형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고건축의 과격이 궁극적 '긍정'이라면, 서양 현대건축의 과격은 '부정'에서 비롯된 셈이다.

사찰과 고딕 성당의 건축구조 비교도 재미있다. 사찰의 가람구조는 속세와의 경계인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을 거쳐가야 대웅전이 보인다. 하지만 서양의 고딕성당 구조는 처음부터 명확히 위치가 드러난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웅전의 모습을 숨겨두고 암시와 연상에 의해 존재를 상상하게 만드는 한국 전통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교회 앞에서면 웅장한 출입문으로부터 여정이 시작된다. 이것은 일주문에서 건축적 여정이 시작되는 한국 전통 건축과 같은 개념이다.

"가람배치의 여유로움 고딕성당의 조형미서 새천년 건축화두 찾자"

이밖에도 지붕과 처마, 돌과 담, 길과 여정 등 18가지 소주제로 구성 300여 컷의 건축물 사진을 통해 동·서양 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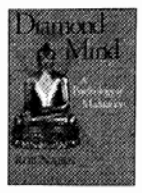
이 책에서 동·서양 건축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연과의 관계이다. 우리 옛 건축은 범종각이나 산문에서 보듯이 자연을 수용하며 어우러진다. 반면 서양에서는 인간이 만드는 완벽한 체계를 건축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 옛 건축의 우수성은 자연미속에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비교는 궁극적으로 전통건축 속에서 살다가 서양 건축을 받아들여 조형 환경의 큰 변화를 겪는 현재 한국 사회의 건축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판 그리고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

저자는 "동·서양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가치야말로 건축의 본질이며 새로운 천년의 화두임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외신간



▲금강석 같은 마음(롭 나이른 지음)= 명상 초심자들의 길라잡이 〈금강석 같은 마음(Diamond Mind : A Psychology of Meditation)〉이 출간됐다. 롭 나이른은 이 책에서 명상 초심자들에게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쉬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학'이란 부제가 있는 이 책의 구성은 명사 초심자와 전문가의 상담 형식을 빌려 올바른 명상법을 설명하고 있다. Shambhala Pubns 출판, ISBN 1570625360



▲더러운 세탁소(로버트 윈슨 지음)= 미국 산사의 수행과 일상은 어떨까? 이것이 궁금한 분자라면 〈더러운 세탁소(Dirty Laundry : 100 Days in a Zen Monastery)〉를 읽으면 된다. 이 책은 미국인 수행자들의 진솔하게 기록한 시, 행장, 야단법석, 꿈 등의 산문을 통해 산사의 인간사(史), 즉 선승의 수행과 일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친 영향을 탐문하고 있다.

New World Library 출판, ISBN 1577311051



▲침상과 나무(안토니 모리노 지음)= 인간의 본성, 즉 불성을 탐문한 〈침상과 나무(The Couch and the Tree : Dialogues in Psychoanalysis and Buddhism)〉가 출간됐다. 서양의 정신분석학과 동양의 불교를 토대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해부한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안토니 모리노의 이 책은 동·서양 철학의 퓨전(Fuzion)을 통해 인간 정신에 대한 비옥한 연구 토대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North Point Press 출판, ISBN 0865475741



소설로 읽는 인도의 불교

이명희씨 '아쇼카'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전파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마우리야왕조의 성립이다. 제3대 아쇼카왕은 칼링카국을 멸망시키며 광대한 국토를 소유하게 됐다. 이러한 정복 전쟁에서 아쇼카왕은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면서 힘의 정치를 버리고 법(法)의 정치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아쇼카왕은 불교발전에 크게 공헌하며 후세에 전륜성왕으로 추앙받는다.

아쇼카왕의 탄생 인연에서부터 견성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적은 소설 〈아쇼카〉(우리 刊)가 나왔다.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재학중인 이명희씨가 쓴 소설로,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인도의 관습과 아쇼카라는 왕을 알아야 인도를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값 7천원.

묵담스님 문집-법어집 출간

열반 20주기 맞아

"저 법계를 초월한 법성이야 어찌 생사윤회상에 걸림이 있으리요. 만일 누가 나의 오고 간 곳을 물으면 구름은 청천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하겠노라!

평생 수행과 교화로 매진한 성우 묵담스님(1896~1981) 열반 20주기를 맞아 〈묵담대종사문집〉과 법어집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가 나란히 출간됐다.

묵담문도회에서 간행한 〈묵담대종사문집〉에는 영찬법어를 비롯 예수재, 천도 및 가사불사, 대승보살계 등에서 설한 각종 법문과 교시문, 기문 등이 총망라됐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묵담당대종사 비문, 계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이 문집에는 "계율은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고, 사부대중이 성위에 오르는 중요한 문"이라고 강조한 묵담스님의 철저한 계율사상이 잘 녹아 있다.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은 서문에서 "묵담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사에 보기드문 청정율사로써 20세기 정신적 사표가 될 만하다"며 "오늘의 수행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매품.

도서출판 밀알에서 현대고승법어집 시리즈 9번째로 묵담스님 법어집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를 펴냈다. 묵담스님의 선사상이 함축된 법어를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관음선원 승가조사당 낙성법회 법문 등 각종 법회에서 설법한 20여 편의 법문을 모두 4장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정각을 이룰 수 없고 부처도 이룰 수 없다"는 묵담스님의 법어는 현 승가의 수행상을 돌이켜 보게 한다. 값 7천5백원.





겨레의 얼굴 어떤 모습일까

황규호씨 '한국인 얼굴이야기' 펴내



◇석조보살좌상 얼굴

가늘고 긴 눈썹, 살포시 감은 눈매, 다문 입술, 불상의 얼굴에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 불상의 얼굴은 아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 다양한 표정을 빚어내는 불상의 얼굴은 시대적 문화 사상 예술 등이 복합적으로 농축된 불심의 소산이다. 각 시대의 불심과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까닭이다.

충남 서산 가야산 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미소'라 일컬을 정도로 백제적이고, 경주 삼화령 협시보살은 예쁜 신라여인을 연상케 한다.

황규호씨가 펴낸 〈한국인 얼굴이야기〉(주류성 간)는 얼굴을 통해 민족 정신의 속내를 들여다 본 문화사라 할 만하다. 얼굴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은 물론 불교사, 미술사, 고고학, 민속학의 사상까지 모두 들추어 설명하고 있다.

20만년 전 구석기 사람들의 '태초의 얼굴' 조각부터 익산 미륵사지 수막새기와의 신선,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골목어귀의 장승, 고려시대 불화 등 태고부터 지금에 이르는 얼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150여 개의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누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어다. 값 1만3천원.

화제의 책

초심으로 가는 여행 | 정선스님 편저

교리·의례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



신행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리와 의례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정선스님(성취선원장)이 펴낸 〈초심으로 가는 여행〉(부흥기획 刊)은 돈독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입문서라 할 만하다.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입문〉을 저본으로 요즘 불자들의 성향에 맞게 편집했다. 초심으로 가는 여행·자세·예절·참회 등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불자들이 수행의 근본정신을 잃지 않고 신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값 8천8백원.

세계의 종교이야기 | 윤정임 옮김

60여개 항목나누어 종교별 고찰



〈세계의 종교 이야기〉(미래 M&B 刊)는 종교의 세계를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종교안내서.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에서 고도의 철학과 사상을 포함한 고등종교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종교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개념들과 각 종교에 대한 개괄적 설명, 각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신화와 전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60여 개에 이르는 항목으로 나누어 주제별 종교별로 서술하고 있다. 또 각 종교의 발생과 성장의 무대가 된 지역을 조망한 지도, 종교별 분포도 등 관련된 그림과 지도들은 이해를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종경	원 성	이 레
2	금강경강해	도 올	통나무
3	민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4	원효어록 100선	이영일	불교춘추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화 암	여 래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인호	여 백
9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10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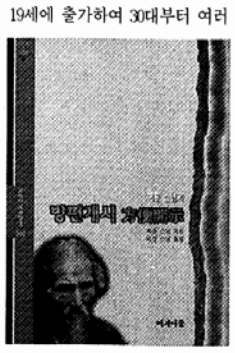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미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步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력하였고, 56세 때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학술단신

'종교사회복지' 심포지엄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는 26일 오후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21세기를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 실무자는 물론 가톨릭, 구세군, 성공회, 원불교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참여해 종교계 사회복지사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 각 교단 대표자들이 '종교사회복지의 반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교각 국제학술회의

조계종 영명사는 '동아시아 지장사상의 전개와 지장법사 그의 위대한 생애'를 주제로 12월12일 오전9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제1회 육신보살 지장법사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장법사의 사상(오형근) △동아시아의 지장사상과 신라왕자 김교각(여승구) △중국불교에 미친 지장의 영향(謝樹田) △지장신앙과 지장법사(이희재) △김지장의 차연구(王鎭恒) △김지장의 신자료 검토(허흥식) △지장시왕도를 중심으로 한 지장도 연구(김정희) △한국의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조용헌) △11세기 김지장석상에 대하여(조영록) △중국 구화산의 지장법사와 석대암 이순석의 비교연구(최석환) △당시의 시문학(오윤숙)등이 발표된다.

'종교연구' 18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황필호)는 5일 〈종교연구〉 제18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에는 △근대 한국불교개혁 패러다임의 성격과 한계(이재현) △불탑 신앙의 기원과 그 본질에 대해(안양규) △고려시대의 종교지형과 유불관계(신광철)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의 여부에 대하여(최준식) 등 논문 13편이 수록돼 있다.

'시와 불교' 학술회의

한국불교어문학회(회장 홍신선)는 12일 서울불광사 3층 회의실에서 '시와 불교'라는 주제로 제9회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창랑시화(滄浪詩話)〉가 한국불가비평(韓國佛家批評)에 끼친 경향'을 시선일여론(詩禪一如論)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 임종욱 동국대 강사는 "시선일여에 대한 연원은 엄우(1175?~1264?)의 〈창랑시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엄우의 시선일여 이론이 상당 부분 불가문집 서발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며, 때로는 흐름을 달리하여 재론된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빠사나 간화·묵조

지혜력 계발 중시 화두 행법에 비중

종호스님 '선수행법 비교고찰' 발표

선불교(禪佛敎)의 직관과 상상력이 대중문화는 물론 우리 일상과 만나는 일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미망과 자유를 나직하고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적 기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선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빠사나와 간화선, 묵조선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고찰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모은다.

한국불교학회(회장직대 목정배)가 1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32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 동국대 종호스님(선학과 교수)은 '선 수행법 비교고찰'을 주제로 각 수행법의 특색과 차이 등을 분석, 발표했다.

종호스님은 위빠사나의 수행법은 최초 지계를 통한 예비단계를 거쳐 호흡 등 육신의 동요에 대해 살피고 이후 느낌이나 생각 등 정신적 움직임을 살펴나가도록 하는 등 매우 세부적이면서 직접 겪게 되는 문제점들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간화선이나 묵조선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선 수행의 핵심으로 삼는 특색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빠사나는 지혜력의 계발만이 현실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간화와 묵조는 지혜의 개발보다 화두의 참구나 행법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화와 묵조 간에 있어서도 간화는 궁극의 본원경지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직 체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관점을 갖고 묵조는 이미 완전히 체현되어 있다는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 목적 또한 위빠사나는 열반을, 간화는 성불, 묵조는 본증(本證)합일을 통해 해탈을 얻은 각자(覺者)의 삶을 추구한다고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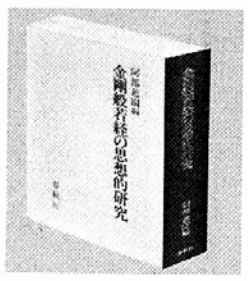
수행 형태에 있어서 묵조선은 좌선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간화선은 화두 드는 것 자체를 강조할 뿐 상대적으로 거의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위빠사나도 묵조와 같은 비중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빠사나는 경행의 방법이나 수마의 극복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간화와 묵조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고찰했다. 경행의 경우 위빠사나는 '한 시간의 좌선과 한 시간의 경행'을 일반적으로 설하고 있으나 간화에서는 경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상에서 몸의 굳어짐을 풀어주기 위한 일시적 방법이고, 묵조에서도 경행 자체를 좌선행과 동일시하면서 한 걸음 한걸음 집중하여 걷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위빠사나와 비교했다. 졸음의 극복에 대해서도 위빠사나에서는 마음의 관념을 바꾸고 자리와 자세를 바꾸며, 귀밑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눈에 찬물을 끼얹는 등 구체적인 극복법을 가르치고 있으나 간화나 묵조의 전적에서는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종호스님은 "전체적으로 위빠사나는 수행의 방법이 세부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단계적 형태의 과정을 보이는데 반해 간화와 묵조는 단도직입으로 본질계에 직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동양 5개국 금강경 연구 50년간 발표논문 모았다

日서 '금강반야경의 사상적 연구' 출간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인도 티벳 등 5개국의 〈금강경〉 사상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연구 논문집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출간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가마구라 소재 묵선사 주지 아베지온스님(명치대 교수)이 엮은 〈금강반야경의 사상적 연구〉(춘추사 刊)에는 한일 불교계 석학 34명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논문집은 '인도불교에 있어서 〈금강반야경〉', '즉비논리의 해석에 관해서', '티벳 불교에서의 〈금강반야경〉', '중국불교에 있어서의 〈금강반야경〉', '중국선과 〈금강반야경〉', '한국불교와 〈금강반야경〉', '일본불교와 〈금강반야경〉' 등 모두 7부로 구성됐다. 이 논문들은 일본 인도불교학회, 일본종교학회, 일본불교학회 등 일본의 주요한 학회에서 지난 50년간 발표된 〈금강반야경〉에 관한 대표적 논문과 한국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한일 양국이 5개국 〈금강경〉 사상을 논문집으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문집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문 5편도 실려 있다. 원의범 동국대 명예교수의 '〈금강경〉여래설의 해석'을 비롯 〈금강경〉을 시대별로 정리한 김영태교수(동국대)의 '한국의 〈금강경〉신봉과 〈금강경찬〉에 대해서', 혜원스님(동국대)의 '조선초기의 기화의 선사상', 유병덕교수(원광대)의 '〈금강경〉과 소태산의 교판사상', 오진스님(일본 동방학원 강사)의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금강경〉'이 각각 실려했다.

이번 〈금강반야경의 사상적 연구〉 논문집 출간에 대해 한일 불교학계는 대승불교의 방대한 경전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금강경〉 사상을 새로운 각도로 고찰한 획기적 논문집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현성스님 회갑기념 논총 봉정식이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현성스님 회갑기념 논총 '현대불교의 향방' 출간

새 천년을 앞두고 현 한국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현성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회갑 기념 논총 〈현대불교의 향방〉(민족사 刊)이 출간됐다.

이 논총집에는 지관(가산불교연구원 원장)·인환(동국대 명예교수)스님을 비롯 목정배·서윤길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의 논문 23편이 실려 있으며 '문화재 관리에 관한 연구', '불교청소년 복지에 관한 연구' 등 현성스님의 논문 2편이 수록됐다.

1부 '불교사상론'은 원시불교부터 신라 백제불교 등 한국불교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동국대 명예교수인 인환스님이 '원시불교선정의 조직구성', 김선근교수가 '초기 대승경전이 간디의 무소유 사상에 끼친 영향', 목정배교수가 '신라불교와 범망경', 종범스님이 '조계종풍의 통합성'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상성을 조명했다.

2부 '불교문화론'은 불교문화와 문학에 대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문화부문에는 지관스님(가산불교연구원장)의 '사원의 창건 배경을 통해 본 불교의 효사상', 문명대교수의 '고구려 재명금동불상의 양식과 도상해석의 과제' 등이, 문학부문에는 법산스님의 '선시의 세계' 홍기삼 교수의 '불교문학을 위한 한 응호' 등이 각각 실려 있다.

3부 '불교사회론'에는 홍선스님의 '포교학 서설'을 비롯 김용택교수의 '한국불교의 사회복지 실천과 과제', 김보현교수의 '불교승려 연금제도의 구성요소', 홍윤식교수의 '사회변화와 종교부흥의 문제성'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김중근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미산 보현도량

그래픽 파일로 보는 보현도량 '웅장' 만년사 라마탑·화엄동탑도 볼거리

인터넷으로 중국 천성 성도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유적을 찾아보자. 육로를 택한다면 당연히 성도 서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가로질러 강줄기 저편으로 가야겠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드래곤투어(Dragontour)'을 방문해 보현도량 아미산을 클릭하면 된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고화질 그래픽 파일로 보는 아미산은 눈앞에 박히듯이 달려드는 우람한 산세로 가득 찬 한 폭의 산수화다.

아미산은 문수도량 오대산, 관음도량 보타산, 지장도량 구화산과 더불어 보현도량으로 중국의 4대 불교성지 가운데 하나다. 해발 3,099m의 주봉을 둘러 산자락에는 복호사, 보국사, 만년사, 화장사 등을 비롯해 20여개 사원이 있다. 이 가운데 보국사는 아미산 전도량의 총본산격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국사의 사찰 구조를 그래픽 파일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찰이 보현도량임을 설명하는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의 글도 텍스트 파일로 읽을 수 있다.

보국사란 편액의 산문이 있고, 그 뒷면으로는 보조선림이란 편액이 앞뒤로 걸려있다. 선(禪)불교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산문 좌우에는 법고와 금고를 매단 누각이 좌우 일직선상에 배열돼 있다. 산문 안 쪽에는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이 있다. 미륵전의 안쪽 중심부에는 석가여래좌상을 주불로 모신 대웅보전이 있다. 대웅보전을 지나 이 가람의 제일 안쪽에는 보현보살을 봉안하고 있는 보현전이 있다.

조희장은 "보국사의 중심은 석가여래상을 본존불로 봉안한 대웅전이지만 대웅전 앞의 미륵전의 포대화상 미륵불은 석가여래에 의해 새롭게 전개될 미래불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 "가장 안쪽에 보현보살상을 봉안한 것은 불교의 구제력이 시공의 인연법에 따라 수없이 많으나 보현보살의 구제력을 특징으로 삼는다는 신앙형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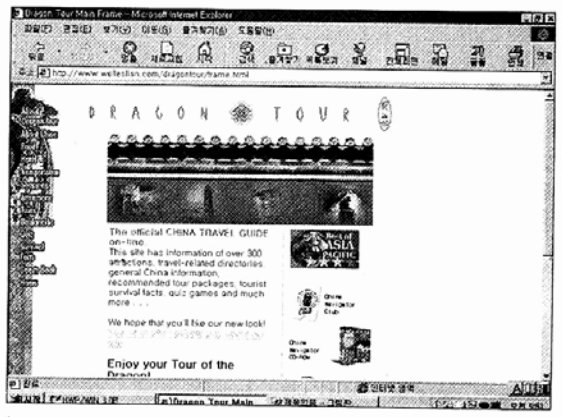
아미산의 또하나의 보현도량이 만년사이다. 이 사찰의 장엄전은 전각양식과 보현신앙의 구체성이 돋보이는 걸작으로 꼽힌다. 이 사이트에서는 만년사의 라마탑, 불상군(群), 화엄동탑, 24나한상 등을 그래픽 파일로 볼 수 있다.

라마탑 양식의 돔형 건조물 내부에는 코끼리를 탄 대형 보현보살상이 있다. 양 벽면에는 24나한상이, 그리고 천장에는 무수한 불상들이 그려져 있어 티벳불교의 만다라 흔적이 엿보인다. 만년사는 동진(東晋)때 창건돼 보현사라 했고, 당대에는 백수사, 송대에는 다시 보현사라 했다가 명대 이후 만년사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유입된 초기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국불교의 역사 자체라 할 만하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복호사와 화장사의 장엄한 불상과 탑들을 그래픽 파일로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www.welleslian.com/dragontour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보현행 실천이 화엄삼매"

화 엄 경 ㊦

글쓴이

김 호 성
〈동국대 교수〉

경전 속의 禪 사상 42

보리가 무심히 나타난 게 해인삼매
해인속엔 선정·지혜 함께 들어있어

〈화엄경〉 속의 어떤 가르침이 선불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리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행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화엄의 수행론은 무엇인가?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적어보자. 〈화엄경〉에는 수많은 삼매가 제시된다. 삼매야말로 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또 각종 각양의 보살행이 강조된다. 대승경전 중에 그 어떤 경전도 보살행을 설하지 않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화엄경〉만큼 곡진(曲盡)한 경전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열번씩은 반복되는 강조의 수사학(修辭學)을 생각해 보라. 특히, 그 극적 전범을 우리는 보현보살의 행원 속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리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은 다시 '선과 보현행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보현행 역시 성기와 맥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화엄경〉을 대표하는 이들 두 사상은 다시 해인삼매와 화엄삼매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대 중국의 주석가들에 의해서 해인삼매는 총정(總定)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동시에 그것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선정(果定)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해인삼매'가 설해지는 맥락 중의 하나가 '성기품'이라는 점은 수행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해인삼매가 사실은 성기와 잇대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기품'의 한 게송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모든 법이 허공과 같아서 / 아(我)도 아니며 무아(無我)도 아님을 요달하여 모든 법을 등각(等覺)하는 것이다. / 비유하면 모든 대해에 모든 중생들의 모습이 두루 나타나므로 / 일체인(一切印)이라 설하는 것이다. / 시방세계 중의 모든 중생류는 / 무상보리의 바다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일체인이 곧 해인이다. 다시 이러한 해인삼매는 정혜등지(定慧等持)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선종의 육조(六祖)가 말한 것처럼, 선은 바로 정과 혜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같은 점에서, 모든 삼매가 바로 선의 세계 아님이 없지만, 해인삼매 속에서 우리는 선적 취의(趣意)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징관(澄觀)이 해인삼매를 "보리가 무심(無心)히 돈현(頓現)함"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같은 특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리라.

이같은 해인삼매에 대하여, 그의 사상이 선사상과 연결된다고 평가되는 의상(義相)은 〈법계도기〉에서 2번에 걸쳐서 언급한다. 첫째는 왜 법계도는 그림에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해진다. 그같은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이 해인삼매에서 우러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는 해인삼매가 곧 성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계도〉의 운문 부분인 법성게에서 "해인삼매 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부사의한 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바로 이타행을 설하는 맥락이다. 이를 종합하면, 해인삼매는 성기로서 화엄삼매의 보현행으로 나아가는 전제, 내지 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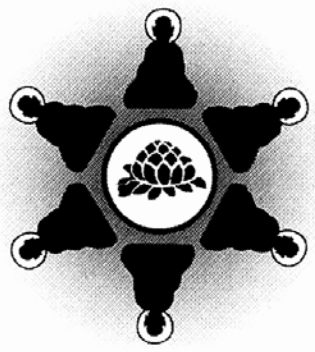
화엄의 이타행, 즉 보현행을 〈화엄경〉에서는 화엄삼매로 말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있어서 저 십우도의 열번째 그림 입전수수(入纏垂手)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깨침을 얻은 선사가 다시 저잣거리로 들어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십우도의 그림은 일반의 선입견과는 달리 선이 독선(獨善)의 길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중생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임을 말해준다. 경허(鏡虛)와 같은 선사들의 무애행을 보현행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성기 = 해인삼매" → "보현행 = 화엄삼매"의 구조는 곧 "돈오 → 만행(漸修)"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화엄사상의 선적 취의와 실천지향성을 '화엄선(華嚴禪)'이라 부른다. 미래불교의 명운은 선과 화엄의 조화, 즉 화엄선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과 학 산 책

통일장과 불교

통일장과 관련된 이론을 살피면서 표면적인 수준에서는 달라보이는 것들(입자와 힘, 서로 다른 입자들)이 그 보다 더 섬세한 수준에서는 동일한 장(場)의 다른 표현이라는 통합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 즉, 어떤 시간과 거리 영역에서는 다양성을 보이던 것들이 그 보다 더 고에너지 영역(다른 말로 하면 더 섬세한 '시공간')에서는 다양성이 통일되어 하나 혹은 몇 개의 기본 요소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다양성은 사라지고 통일성이 나타난다. 반대로 에너지가 낮아지면 통일성을 보이던 것들이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타종교와는 달리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수많은 방편을 사용할 수 있다. 달을 가르키는 손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지 않던가. 이는 달을 가르키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달을 보는 것이지 방법이나 이름에 사로잡혀 달을 보지 못하는 우를 경계하는 말이다. 물론 여기에서 달이란 자신 안에 있는 본성 혹은 주인공(主人空)을 말하는 것으로 달을 가리키는 모든 방법론은 주인공의 체험을 향함일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이 날뛰는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많은 유연성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근본에서 나왔다

통일장 다양한 물질 뿌리는 근본장

불 교 자성佛이 세상만물 만들어

하나의 근본 장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통일장 이론의 가설은 아직 물리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삶의 근본은 자성, 혹은 주인공(空) 이라는 견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골자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본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물리학 발전의 성공적인 한 장을 이룬 양자장 이론에 의해 보통 수준에서는 다른 입자로, 혹은 힘과 입자로 구별되는 다양성은 더 깊고 섬세한 수준, 다른 말로 하면 보다 근본(통일장)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역시 통일된다. 이는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본래 자리, 주인공에 가까워질수록 분별심은 쉬게 되고 나와 남, 다른 생명, 무생명을 구별하지 않는 경지에 들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통일장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전자와 중성미자가 서로 변환 가능한 입자사이의 변환, 힘과 입자 사이의 기능의 변환과 같은 자유로움은 근본인 통일장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 불교 수행에서도 근본에 가까울수록 걸림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점은 근본에 이르는 것이다.

일상적인 에너지 단위에서 통합성이 나타나지 않고 더 에너지가 높은 섬세한 상태에서 통합성이 나타나는 것은 통합성을 매개해주는 가상입자들의 질량이 크고 이로 인해 이 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인식의 깊이에서는 통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인식에서는 다양성만 보이며 그 다양성의 뿌리인 근본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세계를 보면 규칙성 보다는 다양성을 발견하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더 섬세한 원자와 아원자 수준에서는 단지 4가지 기본적인 상호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중력적 상호작용, 방사능의 원인인 약한 상호 작용, 전자기적 상호 작용, 강한 쿼크 결합의 상호 작용이다. 이 4가지 상호 작용들 각각은 자신과 연관된 아교 입자(그루온)를 가진다. 매우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이 4가지 상호 작용은 서로간의 다른 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세기도 모두 같아진다. 아직 완전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4가지 상호작용들이 실제로 단지 하나뿐인 통일장의 다른 나타남에 불과하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상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㉓

현대인의 불법 ②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라

신이나 독단적 교리는 정신발전 막아

불교는 우리를 혼자 서게 해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준다. 불교만큼 능력이야말로 모든 선한 일의 뿌리임을 거듭 강조하고, 정신적 무기력과 게으름을 단호하게 경계하는 종교적 가르침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해탈에 이르도록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고 가르쳤다. 귀의한 사람이 거듭 깨우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해야할 것이며, 그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과보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줄 존재가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악업을 짓는 것도 자신이고 청정함을 행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다. 청정함이나 불순함이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느니."

불교는 누구든 자신의 선행과 불선행의 책임을 져야하며 오직 자신만이 자기 운명의 모양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불자라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하여 자기 확신에 이르게 된다. 사람이 신이나 어떤 가상의 힘에 의존하게 되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약화되기 마련이고 그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이 확고하고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처님은 모름지기 전통이나 권위에 끌려 믿어서는 안되며, 누구라도 자기완성과 해탈을 하는 사람은 독단적 교리나 신앙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자신의 이해력과 사고력에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들 마음 속에 자기신뢰와 자기확신을 더욱 계발해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은 참으로 유익한 영향을 끼칠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권위나, 경전이나, 제의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며, 스스로의 점검을 용납하지 않는 교리는 필시 사람의 정신을 침체상태로 몰아가게 뻔하다. 정신적 발전은 사고의 자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어떤 정신적 발전도 이룰 수 없다. 사고의 자유는 정신적인 활력과 발전을 가져오지만 독단적 견해는 정체를 몰고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단적 믿음은 편협한 마음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독단적 태도를 취했다하면 곧이어 편협심이 뒤따르게 되어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처럼 편견없는 아량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를 감싸안는 보편적인 자비심이다. 남에게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이 자비심이야말로 불교가 모든 도덕적 사회적 발전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는 것이다. 실제로 참다운 불교국가의 분위기는 모든 존재를 감싸안는 자비심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계명을 무턱대고 따라서가 아니라,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아래로는 한낱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생존의 조건과 법칙을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듯이 그들도 존재한다. 그들이 존재하듯이 나도 존재한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겨야하며, 산 것은 그 어느 것도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된다.

불교에서만큼 보편적인 자비심과 무사무욕의 사랑을 선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자비심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고, 슬픔을 모르고, 행복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주 만물에 대한 사랑의 찬가'인 〈자비경〉은 불교국가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남녀노소 할것없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야 할 마음의 양식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증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징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결실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사찰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 식탁의 안전과 우리농촌을 살리는 실천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생(共生)·상생(相生)의 생활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봉은사 생협 매장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고르고 있는 불자들. 사진=고영배기자



◇생태공동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생명으로 삼는다. 전북 남원 실상사 생태공동체 주민들이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배추를 묶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일보

장바구니 들고 절에 간다

사찰 생활협동조합 무공해 먹거리 '풍성'

16일 오전 11시40분 서울 강남의 봉은사. 법회를 마친 한 무리의 보살들이 사찰 입구 왼쪽권 한 구석으로 몰려 들었다. 왁자지껄한 소리. 무엇인가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꽉 시장을 연상케 한다.

"이 시금치는 맛이 달라. 고소하고 부드러워 겉절이 무쳐 먹어도 그만이고…" "값이 좀 비싼데… 믿을만한 건가?" "이게 뭐가 비싸. 유기농 시금친데. 부침개 해먹어도 맛부터 달라 사서 먹어봐"

송파구에 사는 석명순보살(44)은 오늘도 절에 오면서 장바구니를 챙겼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이곳에서 장을 본다. 석보살은 봉은사에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열리고 나서도 바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20%정도 비싸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4Kg들이 일반쌀이 1만~1만2천원 선인데 비해 유기농쌀은 1만5천원이나 되고, 배추와 무우도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이 포기나 개당 400~500원 가량 더 비쌌다.

하지만 석보살은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유기농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보살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다소 늘어나는 부식비 규모는 좀 더 알뜰하게 가계를 운영하면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석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유기농 시금치를 적극 권한 것은 이용해본 결과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봉은사·능인선원등 6곳 운영중
200여곳 내년 개장준비 한창

최근 유전자 조작콩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변질된 수입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우리 식탁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 게다가 수입되는 먹거리가 갈수록 늘어나 우리 농촌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먹거리를 통해 식탁의 안전을 꾀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 유기농 먹거리와 생협은 '식탁불안'과 수입의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7평 남짓한 봉은사 생협매장에는 쌀·배추·무우·오이·호박 등 온갖 농산물들이 깔비하게 늘어서 있다. 간장, 된장 등 가공식품류와 물비누 등 천연세제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다. 슈퍼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우리말로 만든 과자들도 있고, 낯선 포장의 라면도 있다. 모두 유기농산물로 가공된 제품들이다. 상품마다 표시된 원산지와 재배기법을 보면서 보살들은 이것저것 고르느라 손놀림을 재촉한다.

지난 7월 문을 연 봉은사 생활협동조합은 절에 다니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에게도 인기가 높다.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와 연결해 직판하니 믿을 수 있고 따로 시장엘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찰내에서 유기농산물을 직판하는 생활협동조합은 봉은사를 비롯해 능인선원·영화사·수원포교당·광명 금강정사·부천 석왕사 등 전국에 걸쳐 모두 6곳이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주의 전북불교회관이 매장을 확보하고 시장조사에 들어갔으며, 조계사·화계사·동학사·갑사 등이 내년 초 생활협동조합 매장 개장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소한 20여개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생협이 사찰의 또다른 문화로 자리잡을 날도 멀지 않았음을 예견케 한다.

이들 사찰의 생협 매장은 모두 봉은사와 마찬가지로 200여종의 각종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모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열며, 하루 평균 200~300여명이 이용한다. 휴일이면 이용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조직해 운영한다.

현재의 사찰 생협은 석왕사는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부터 생긴 것들이다. 그 수는 적지만 2년만에 다섯곳이 생긴 것은 사실상 빠른 속도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처럼 단시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생협의 이념이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 생협의 역사는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천 석왕사는 경내에 15평 규모의 매장을 설치하고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직송해 불자들과 지역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300여종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갖추고 전화주문도 받는다.

그러다가 지난해 도법스님이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생태공동체를 형성하고 불교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찰 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마침내 98년 8월 영화사가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매장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석왕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불교귀농학교를 모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전국 40여곳의 유기농 생산지에서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한 생활협동조합은 가톨릭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리고 개신교에 이어 불교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생협의 근본 이념은 불교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상생(相生)'의 이념과 같다는 점에서 어느 종교보다도 발전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사찰 생협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속도라면 5년 이내에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창출해내는 지역의 '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생활협동조합이 대자대비의 실천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상생(相生)의 생활문화로 뿌리내릴 날도 멀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사찰 생활협동조합

봉은사	02-545-1448
능인선원	02-577-5800
영화사	02-3437-4363
금강정사	02-893-2731
수원포교당	0331-255-2692
석왕사	032-668-0072



▶서울 능인선원 생협. 생산지에서 직송된 먹거리를 직판해 믿을수 있고 시장엘 따로 가는 불편도 덜 수 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역할

사찰 생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성관·정덕스님 박광서 정해숙)의 역할이 컸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현재 각 매장에 유기농 물품을 공급하는 중간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사찰로의 생협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 5월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출범시키기 전까지는 도농공동체운동본부라는 명칭으로 불교귀농학교 및 생태학교 운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농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론이 대두됐고 사찰 생협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뜻있는 몇몇 사찰과 협의를 거쳐 현재의 사찰 생협을 일궈냈다.

전국사찰로의 생협 확대 추진
환경-식량문제 불교적 대안제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사찰 생협이 불교사상을 잘 알릴 수 있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환경과 식량문제를 불교사상에 입각해 풀 수 있는 '문명대안운동'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생협운동의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 사찰에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택하고 있는 생협 운영방식은 생협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생협 활성화로 돌리는 피드백(feed back) 시스템. 생산지에서 사찰을 잇는 중간유통 단계에서 얻은 이익금은 귀농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전문가들이 다시 일선 사찰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생협활성화를 위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협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불자들은 신앙이념과 생활이념이 따로따로인 이중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생협은 생활과 신앙을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인간성 회복·환경·생명·공동체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현재 생활협동사업본부를 통한 생협운동과 귀농전문학교, 귀농학교, 불교생협학교, 우리옷 강좌와 우리 옷을 보급하는 물푸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2)3281-1888



◇2불병좌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괴산 마애불 병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괴산 마애불 병좌상

벼랑위 감실안 두 불상 배치
평면적 조각기법…고려때 조성

충북 괴산의 높은 벼랑위 감실안에 앉힌 이 마애불은 두 불상을 나란히 배치한 병좌상으로는 희귀한 예로 주목된다. 넓적하면서도 함있는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한 입 등의 조각수법은 평면적으로는 양감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얼굴 전반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 한결 자비로운 느낌을 준다. 신체 또한 반듯한 어깨, 풍만한 가슴 등으로 형식화되었으며 통견의 법의 주름은 무딘 선각으로 표현되었다. 광배에는 화불이 조각되어 있으나 세부수법은 마멸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두 불상을 나란히 조각한 예는 죽령 마애불, 대전사지 출토 청동2불병좌상 등이 있다. 괴산 마애불 병좌상은 〈법화경〉의 사상을 반영한 석가 다보 2불병좌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2불병좌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98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9425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중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깨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세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선 달마도를 고급 도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중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⑱

我今若自生退屈 或生懈怠
아금약자생퇴굴 혹생해태
而恒常望後 須臾失命 退墮惡趣
이항상망후 수유실명 퇴타악취
受諸苦痛之時 雖欲願聞一句佛法
수제고통지시 수욕원문일구불법
信解受持 欲免辛酸 豈可復得乎
신해수지 욕면신산 기가부득호
及到臨危 悔無所益 願諸修道之人
급도임위 회무소익 원제수도지인
莫生放逸 莫着貪淫 如救頭然
막생방일 막착탐음 여구두연
不忘照顧 無常迅速 身如朝露
불망조고 무상신속 신여조로
命若西光 今日雖存 明亦難保
명약서광 금일수존 명역난보
切須在意 切須在意
절수재의 절수재의

내가 지금 만일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알고, 받들어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위태로운데 이르러서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목숨은 석양과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았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開得充滿 又教化爾所世界一切衆生
개득충만 우교화이소세계일체중생
令得四果 其功德 無量無邊
영득사과 기공덕 무량무변
不如一食頃 正思此法 所獲
불여일식경 정사차법 소획
功德 是知我此法門 最尊最貴
공덕 시지아차법문 최존최귀
於諸功德 比況不及
어제공덕 비황불급

또 세상의 유위(有爲)의 선을 따라도 삼악도의 고통을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뛰어난 과보를 얻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법문이겠는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떤 비유로도 말할 수 없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찬 칠보로써 세상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四果)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동안 만이라도 이 법을 바로 생각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살펴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이 가장 높고 귀하여 모든 공덕에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故云經 一念淨心是道場
고운경 일념정심시도량
勝造恒沙七寶塔 寶塔畢竟碎爲塵
승조항사칠보탑 보탑필경쇄위진
一念淨心成正覺 願諸修道之人
일념정심성정각 원제수도지인
研味此語 切須在意
연미차어 절수재의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차신불향금생도 갱대하생도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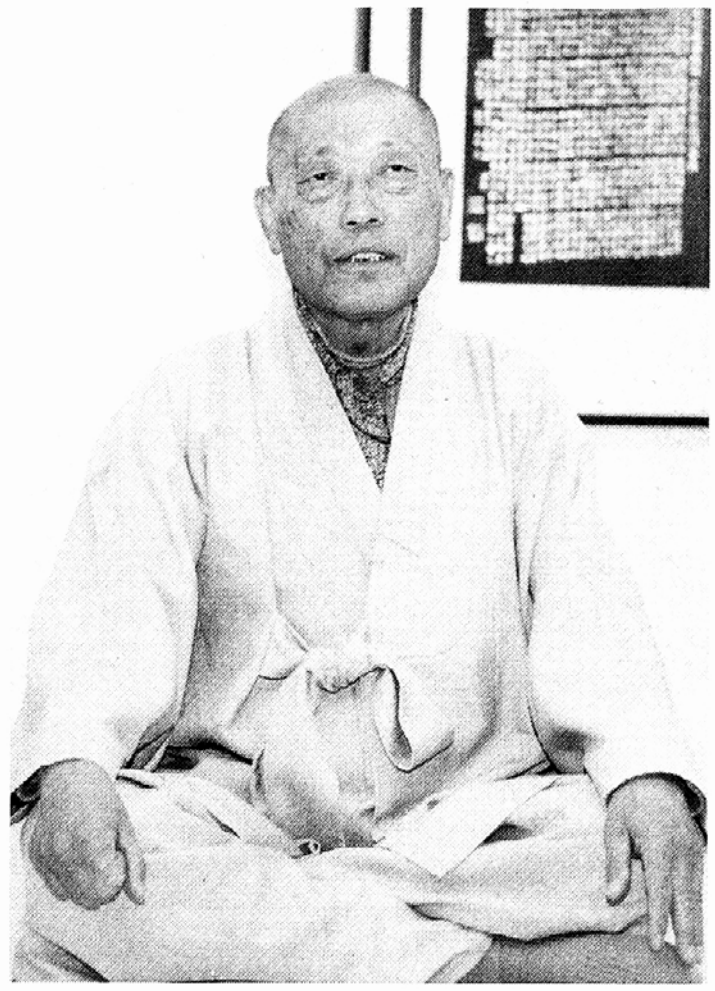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갠지스 강의 모래 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하였다. 원컨대 수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중생이나 부처이나

종화스님 〈태고종 승정〉



대오견성(大悟見性)이라요. 깨끗한 마음과 정진하는 지세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출가한 이후 60여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부처님을 시봉하는 스님으로 평생을 살겠다며 입산(入山)했던 게 10살 소년 때였습니다. 일체가 무상한 도리인지 진작에 알았지만 세월이 부질없는 일이더라구요.

〈금강경〉 첫머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량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한 사람도 나에게 제도 받은 사람은 없느니라."

이 경전을 처음 배웠던 게 42년 경북 의성군 고운사에서 대교과를 배울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금강경〉의 참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사이신 권유선 스님께서 제가 경전을 배우면서 끙끙대고 있다는 어려움을 전해 들으셨던지 하루는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금강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면 깨침의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 스님의 가르침대로 정성스럽게 독송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금강경〉의 본래 면목을 범어사 하안거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범어사 선방을 책임지고 계셨던 분이 영운스님이셨는데, 그 분은 선기가 성성한 선객이었죠. 안거는 당연히 '묵언정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는 틈나는 대로 스님에게 〈금강경〉의 참 뜻을 물었습니다.

"마음을 똑바로 갖는다는 것, 그것이 마음의 본연자세 갖기."

영운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략했지만,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습(習)이 된 것이지요.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49년간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수행자 한 사람 불자 한 사람이 '부처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꿈이고, 성불했다는 것도 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싱거운 소리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자리 '부처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처자리', 그것을 깨치라는 말입니다.

1935년 고운사로 입산해 13년째 되던 1948년이 되어서야 스님의 도리가 사부대중이 '부처자리'를 찾는 것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본분임을 배울 수 있었던 셈입니다.

제가 일찍 출가를 결심했던 것은 화봉스님의 영향 때문입니다. 경북 안동 봉정사 주지로 계셨던 스님은 사실 저를 낳아주신 부친입니다. 어려서부터 불단에서 예불을 올리고, 목탁을 치며 염불하는 모습이 항상 제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로 비쳐졌던 것입니다.

부처님을 평생토록 시봉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10살에 입산해, 3년 후 삭발했던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 고운사, 통도사, 은해사, 김용사 등 큰 절 선방에서 공부를 했고, 오산불교중학교를 다니며 3년간 공부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산불교중학교는 경상도 일대 5본산, 그러니까 고운사, 대승사, 김용사, 은해사, 동화사 등이 참여해 설립한 종립학교입니다. 이 곳에서 저는 불교 의식을 배울 수 있었죠. 의식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닦아진 마음을 세인의 눈에 표출하는 일종의 유형의 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불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저를 가르쳤던 어떤 스승의 말씀인데, 항상 마음에 담고 다닙니다.

또 있습니다. 불교는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즉, 믿고 알고 닦고 깨닫는 네 가지 수행을 형식의 큰 틀로 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믿음이 제일 먼저이며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서로 믿고 신용을 잘 지키면 모든 일을 안심하고 해나갈 수 있으나 서로 불신하고 의심만 하게 되면 불안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속에서 살면서 부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면 개개인의 생활이 행복하고 안락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만약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사공 없는 배를 타는 것과 같고, 또한 고삐 없는 말을 타는 것과 같아서 구렁에 떨어져감과 같으니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무엇이 보인다' '무엇이 들린다' '무엇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그것은 불법하고는 어긋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의 무슨 기특한 소견이 나와서 남이 못하는 법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빗나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법문을 곰곰이 되새기면 어느 부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이의 근기가 낮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말하는 이가 본질에서 벗어나 아상을 드러낸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을 초월하라' '내 기분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의 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 1921년 경북 안동군 生
· 35년 고운사 입산
· 41년 고운사 유선스님을 은사로 출가
· 45년 고운사 대교과 수료
· 47~52년 범어사 통도사 은해사 선방 수행
· 54~82년 동악사 서악사 법화사 옥천사 주지 역임, 태고종 종회의장, 종무원장 역임
· 현재 태고종 승정, 강릉 옥천사 주석

"맑고 원만한 자성 알때 한없는 행복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생사윤회 초월한 경지"

이 책이 서울대 선정도서
나관중의 '원본 삼국지'다
원작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삼국지! 범우비평판세계문학 41-① '99 新개정판
원본 三國志
나관중/중국문학가 황병국 옮김

원작의 광대함과 박진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은 편역하거나 윤문한 삼국지가 아니라 중국 삼민서국과 문원서국판을 대본으로 하여 원전에 가장 충실하게 옮긴 '원본 삼국지'입니다. 한시(漢詩) 원문, 주요전도(戰圖), 출사표(出師表) 등 각종 부록을 대거 수록한 99년 신개정판.
• 작품 해설: 장기근(서울대 명예교수, 한문학 박사)
* 전5권/각 500쪽 내외 · 크라운변형판/각권 값 9,000원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주소 http://www.bumwoosa.co.kr

〈무소유〉 발간 25주년 기념 개정판
25년 전 〈무소유〉 초판본(76 4 15일자 법정본)을 보내주신 분께는 개정판(양장본)을 보내드립니다
무소유
법정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 김수환 추기경
교보 ·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신 4×6판 양장본 값 6,000원
갠지스 강가의 모래알 數의 갠지스 강들에 가득찬 모래알만큼의 七寶 공덕이 못 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名을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지혜.
— 도올 김용옥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겠다.
—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팩스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영 박물관 신화 시리즈 출간

아즈텍과 마야 신화
칼 토베 / 이응균 · 천경효 공역
신국판 / 180면 · 값 7,000원

이집트 신화
조지 하트 / 이응균 · 천경효 공역
신국판 / 186면 · 값 7,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
헨리에타 맥컬 / 임 응 옮김
신국판 / 184면 · 값 7,000원

로마 신화
제인 F. 가드너 / 이경희 옮김
신국판 / 186면 · 값 7,000원
* 전국 주요서점 판매중

그리스 신화
루실라 번 / 이경희 옮김
* 근간 예정임
(대영박물관과의 저작권 계약으로 위 도서들의 한국어판 간행은 범우사에 있습니다)
범우사 TEL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www.bumwoosa.co.kr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하나에 달렸죠"



◇ 1981년 동해 김용사에서 태고종 분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종화스님.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에서 생겨요"

불심은 몸과 마음으로 익힌 선한 도리
남의 허물 보지말고 나부터 청정하게

아무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자유자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자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여년간 이 곳 옥천사에서 셀 수 없는 불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공부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익히 선(善)한 도리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고운사에서 대교과 강주였던 원규스님께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규스님은 젊은 학승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했었는데, "불심은 곧 중생이 행해야 하는 선(善)한 도리"라고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이것을 수행자로서 마음과 몸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한량없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며 고통을 덜어주고 성냄과 친철함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 불자들의 불심이 열매맺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또 인연을 따라 멸한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은 인류의 대도(大道)이며 우주법계의 광명(光明)"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福)은 검소함에서 생기도 덕(德)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즉 눈과 입을 특히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또 입을 조심하며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항상 써야 하며 어질고 착한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고 잘못한 이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의 대우를 바라지 않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아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도리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어렵고 모르는 것을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자들이 행해야 하는 도리는 신(神)을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모르는 것과 의문되는 것을 바르고 밝게 깨닫고자 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일전에 강원도 군부대 군법당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조금 밖에 보조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아주 훌륭한 법당이 세워졌습니다. 군단장의 원력과 순전히 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불법이 움트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불법을 구하는 데는 오직 바른 마음으로 참된 길을 수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불법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로 인하여 중생도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하루빨리 참되고 지혜롭고 어질게 마음을 닦아서 원만하고 한없이 자비로운 '부처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다 생각이다
어리석어 어두운 중생이다
깨달음이 크면 부처이다

사람의 마음 자성은 영원한 것이며 변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성이 완전히 맑고 원만할 때 더없고 한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여 생사윤회를 초탈한 불생불멸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선하고 참된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옥천사는 강릉시 옥계면에서 유일한 절입니다. 이 곳에서 30여년간을 살면서, 조석예불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더 급하다 싶은 다른 불사를 앞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도리를 이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옥천사는 일개 암자에 불과했었죠. 신도도 30여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00여명의 신도들이 신령산 도량에서 신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법당을 세웠던 마음과 제가 이 곳에서 불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60여년 이상 절밥을 먹었던 노스님과 군인 불자들의 마음이 같다는 것은, 깨달음이란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행동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항상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경지에 들어서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이 한없이 맑아져서 본래 자기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촛불도 제 몸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자리라고 일러주지만 이것을 모르고 깜깜 절벽을 더듬거리며 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아니고, 사상도 신앙도 아니면서 다만 우리 개개인 속에 살아 있을 뿐입니다. 바로 신심이죠. 또 경계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시공을 한꺼번에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천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항상 내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못 찾더라도 내 마음자리가 부처인데 한 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속세로 내려가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화엄경〉은 "불법은 항상 다니며 먹고 눕고 자고 앉고 머무르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곳에 모두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불법이 있건만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 들을 수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뜻을 나타내 보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은 이 몸이 생길 때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임종을 맞을 때까지 이 곳 옥천사에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신령산의 아침을 열고, 또 하루를 닫으며 나고 멸함이 없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불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천명일 〈부산 설원장〉

천수경 외우고 뜻 새기며 신심다져
망집 벗어나려고 매순간 마음 단속

불자라면 마땅히 종교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말씀인 〈천수경〉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지당하다. 그런데 나는 일반 불자 독송집에 있는 〈천수경〉만 잘 외우면 되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경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무조건 다라니만 입으로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암기력만 자랑하며 청산유수로 염불만 고집했다. 이것이 최고의 신행생활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외운 다라니 덕분에 세상을 별 어려움 없이 신선처럼 복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불교대학에서 〈천수경〉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저 별 생각없이 가볍게 "네, 그러지요"라고 대답했다. 〈천수경〉강의쯤이야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경문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병적으로 경솔한 어리석음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이 경을 처음부터 훑어가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천수경〉을 해설해 가면서 느낀 것은 이 경이 알기쉬운 경전도 아니려니와 실은 뜻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비로운 경임을 알게 됐다. 오로지 굳건한 믿음 하나로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의 경이며 그 비법은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신비로운 가르침에 감히 누가 무슨 뜻을 더하고 빼겠는가. 그래서 〈천수경〉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심을 느낄 수 있는 소견을 최대한 부처님의 지견에다 맞추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강의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들은 거의다 인도 고대어로 적은 것을 중국에 와서 뜻글자인 한자로 의역한 경문이다. 때문에 한문경전을 일반 번역문처럼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 뜻을 알기 힘들다.

〈천수경〉 번역서는 많이 나와있다. 나와 같은 신행의 그릇된 길을 똑같이 밟게하지 않으려고 〈천수경〉를 새롭게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원전을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시작했다. 다만 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배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도설한 원이삼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명했다. 그밖에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해서 '깊은뜻이 담겨 있는 〈천수경〉'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나는 주로 염불기도를 주요 신행으로 생활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염불기도에서 일어나는 맑은 의식은 불교의 본질에 가깝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선사들의 법문을 읽고부터 다. 불교의 근본뿌리는 깨달음이다.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정신작용의 감성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하는 감성작용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사실을 뜻밖에 알게 되는 지각과 몸으로 느낀 감각이나 육감으로 의식하는 영감 같은 것을 깨달음이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식의 반대인 무의식한 무감각을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양면성을 전체로 깨닫는 전지전능한 각성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는 두가지 근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중 하나가 시도때도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하늘의 구름과 같은 마음을 자성이라 고집하는 망집이다. 나는 항상 일어서려는 망집을 없애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정진한다.

나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 터득한 것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외우기만 해도 누구나 본묘각을 덮고 있는 억겁생사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청정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체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1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완전 초보에서 60일에 영어회화가 술술해진다??

AMT AUTO MEMORY TAPE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2~3년의 시간과 노력을 60일만에)

방법만 달리하면
최단 시간내 가능!!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리아헤럴드 A.M.T (AUTO MEMORY TAPE)는 영어의 기본요소인 형태(FORM), 의미(MEANING), 사용(USE) 중 한국인이 가장 취약한 사용(USE)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특수 기능성 TAPE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A.M.T. PORGRAM은 한국어 구조에 익숙한 우리의 중추대뇌신경을 영어 발성구조로 변화시켜 줍니다. 영어식의 생각의 틀 형성 및 발성구조가 영어식으로 바뀌게 하는 PORGRA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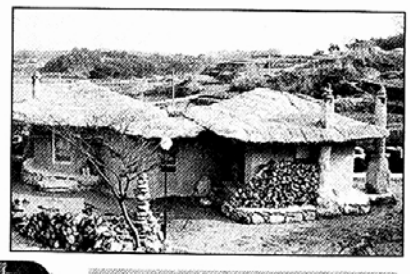
AMT는 50년 전통의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가 최초로 검정 감수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M.A.P(Master and pay Later) 마케팅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영어학습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께 학습을 마친 후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문장 자동암기 TAPE학습 및 프로그램 문의
051-861-7705 척척영어 코리아헤럴드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용과 봉황 가득한 정토

개암사 대웅보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16

99건축문화의 해

전북 부안군 산내면 감교리 울금산 정상에는 잘 생긴 한쌍의 바위가 불쑥 솟아있다. 이 바위가 울금바위고 산 정상부의 산성이 울금산성이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후 도침과 복신의 지휘아래 저항군을 이루어 백제부흥운동을 벌였던 주류성이 바로 이곳이라고 전한다. 개암사는 주류성 아래 산중턱에 자리잡아 마치 울금바위를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다.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장엄된 개암사 대웅보전의 천장부분. 부처님이 주재하는 정토의 세계를 상징화 하고 있다.

이 절의 역사는 634년 묘련왕사가 기존의 변한 궁전터를 사찰로 고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고려때는 전각 30여동의 큰 사찰이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대웅보전과 3~4동의 부속채만 있을 뿐이고 그들의 배열도 예전과는 관계가 없어 전체적으로 그다지 짜임새 있는 가람은 아니다. 그러나 울금바위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대웅보전의 경관은 일품일 뿐 아니라 이 불전은 조선 중기의 시대적 특징을 대표하는 화려한 불전이다.

임진왜란의 전화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전쟁후 전국 각지에서는 가람복원의 도도한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알거지가 된 형편이어서, 불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따라서 전쟁전과 같이 대규모의 가람을 다시 재건하기는 불가능했고 기껏해야 주불전 한 동과 승방 정도를 지을 수 있었다.

포작·주두·첨차·소로의 장식 연꽃들이 환하게 핀 형상

개암사 대웅보전 역시 임진왜란 40년 후인 1640년에야 비로소 중건되었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불사가 없어서 대웅보전만 달랑 서 있는 단출한 가람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규모가 단출하고 작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지어진 불전들은 대단한 정성과 솜씨로 꾸며졌다. 전쟁을 통해 오히려 숭화된 불심들이 가람의 건물을 장엄하게 장식하는데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그 뛰어난 장식성 때문에 학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우선 기둥을 상부에 놓여진 포작의 주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두 밑에는 한치 두께의 정사각형 관재를 깔았는데 마치 고려시대의 굽받침을 가진 주두같이 보인다.

인근 선운사 참당암에 있는 고려시대 주두를 흉내낸 것일까. 원래 법당이 있던 곳에서 자리를 옮겨 중창되었다는 기록으로 본다면 이전에 옛 법식을 따른 법당이 잔존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중창하면서 옛 건물의 굽받침 주두를 흉내낸 것이 아닐까?

이 건물의 큰 특징은 전면에 올려진 포작들의 장식성이다. 포작을 받치는 주두는 꽃잎 모양으로, 첨차는 연꽃 줄기로, 소로는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연꽃들이 환하게 핀 형상이다. 익산 숭림사 보광전도 투각한 주두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건물같이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조각되지는 않았다. 전면 창호의 화려한 꽃살창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래는 광범한 살창이었다고 전한다.

내부공간의 상징성과 화려함은 외관보다 더욱 충격적이다. 불단을 뒤로 물리고 천장을 3단으로 접어올려서 내부공간은 넓고 높직하다. 내부공간은 한마디로 용들로 장식된 불국토이다. 사방 귀방으로 뽑혀진 부재들 끝을 용머리로 장식하여 여기저기서 용들이 꿈틀대고 있고, 날개를 활짝 핀 극락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용과 봉황이 얼마나 많은지 내부에만도 용 9마리와 봉황 13마리, 바깥으로는 용 2마리와 봉황 9마리, 그리고 도깨비 2마리가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다 화려하게 꾸며진 닫집속에서 5마리의 용들이 꿈틀대고 있다. 불전의 내부는 완벽하게 부처님이 주재하는 하늘의 세계, 정토의 세계를 상징화하고 있다.

이전의 사찰들에서는 (불국사가 대표적으로) 가람전체가 불국토를 상징하도록 구성되었지만 이제 그 상징화의 범위가 법당 내부로 축소되었다. 그만큼 불교세가 위축되었음을, 그러나 정토에 대한 희구는 본질적인 소망임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절집에 많이 등장하는 용은 부처를 호위하는 여덟 수호신(팔부신중) 가운데 하나다. 용에 대한 신앙은 원래 인도 중국 한국의 토착신앙이었지만 불교에 습합되면서 호위신앙으로 변모된 것이다. 인도에서는 용을 25가지로 분류하며, 중국에서도 응룡 축룡 복룡 교룡 규룡 기룡 사룡 기룡 등 많은 종류로 나누어왔다.

대웅보전의 많은 용들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용들의 생김새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이 건물을 감상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발가락까지 사실적 묘사

제천 명암리 미륵불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중생을 위해 나투신 부처님은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언제부턴가 자신의 위엄도 버리고 코를 스스럼없이 떼어주었다. 그래서 더욱 자상하고 친근감을 더해주는 돌부처는 자연스럽게 우리들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았다.

이렇듯 코가 문드러진 불상중 하나인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미륵동 미륵불은 특이하게 목화석으로 조성됐다. 목화석은 돌의 결정체가 굵어

목화석 사용 특이 삼국시대 만든 듯

조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암리 불상은 유난히 섬세하고 부드럽다.

미륵불입상은 높이가 2m40cm, 견폭 62cm, 두고 38cm, 흉폭 37cm 크기로 대형이며 원형보존이 잘 돼 있다.

두상은 소발에 육계를 하고 있으며 약간 좁은 듯한 이마에 백호공이 있다. 초생달같은 눈썹과 마모되어 눈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지만 미소를 머금은 행인(杏仁)형의 눈, 코, 입은 눈썹에서 흘러내려 중심을 잡고 있다. 또 양감이 풍부한 얼굴과 예쁘게 사실적으로 조성한 귀 등 전체적으로 귀인상이다.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 의문(衣紋)은 가사를 두른듯 하고 큰 법의는 가슴아래부터 U자 형태의 물결무늬가 부드럽게 발등까지 흘러내렸다.



○제천 명암리 미륵불은 특이하게 목화석으로 조성됐다.

수인은 통인으로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쪽으로 내밀었는데 약지와 소지를 구부린 왼손은 흔히 고식(古式)불상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복련의 연화좌대에 원형기단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서 있는데 직립형으로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유영렬회원은 "불상의 조성형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유행한 석존 5인의 하나인 통인, 통견, 6등신 비율, U자 형태의 옷주름, 양감있는 사실적인 신체의 표현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남원 미애여래 입상 고증=정영호 박사

고려불상…명문은 후대에 새겨



○남원 양기리에 있는 미애여래입상. 원만하고 뚜렷한 상호와 배수로가 설치된게 특징이다.



남원 양기리의 미애여래입상(본지 243호 14면 참조)은 법의의 두터움과 형식적인 광배표현, 신체적 육감으로 보아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됐다.

병풍같은 바위중앙에 양각으로 조성돼 있는 미애불은 손목 등 일부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눈, 코, 입의 형태가 뚜렷하다. 대체로 상호는 원형감이 풍부하고 목에도 삼도가 뚜렷하다. 특히 미애불이 있는 바위 상단부에 양쪽으로 홈을 파서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을 만든 것이 눈에 띈다. 미애불 왼쪽에 있는 명분은 마모등 보존상태로 보아 후대에 새겨졌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고침 지난 243호 14면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사진이 '학도암 미애관음보살상'과 바뀌어 바로잡습니다.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식

모시는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성을 발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경남 울산 지역 불자님들의 수행 도량이 될 새법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이 터를 잡아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뜻은 부처님과 역대조사 그리고 일체가 내 한마음의 나툼임을 일깨워 주시는 대행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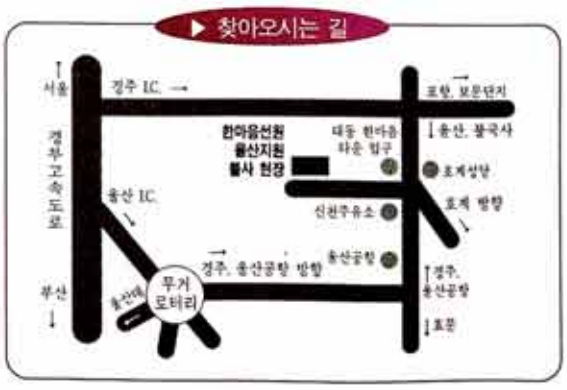
이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 스님을 모시고 상량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이 뜻깊고 의미있는 법석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속에 깊이 안락하기를 발원합니다.

울산지원 사부대중 삼배



● 일시 : 불기 2543년 11월 28일 11:00
●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울산지원 : 052)244-0884 / FAX 052)244-0182
불사현장 : 052)282-5077

▶ 찾아오시는 길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또다시 한 지구 방석에 앉았습니다. 상하가, 동서남북이 다 한 지구에 보편적으로 섞여서 우리가 한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면서도 생활속에서 참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선이란 게 생활과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밤이나 낮이나 뛰듯이 지구도 밤이나 낮이나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뛰고 있거든요. 인간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요.

눈을 감고 있어도 참선입니다. 와선이라 그러죠. 누우면 와선, 일을 하면 행선, 서서 다니면 입선, 앉으면 좌선, 이것이 모두가 겸해서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생활 속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부인 노릇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걸림없이 하시죠? 그와 같이 그대로 생활을 해나가시되 그거를 어떤 놈이 이끌어서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자기의 불성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전의 선지식들께서는 몸을 배로 비유를 했고 그 선장은 불성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편안하게 하십시오.

은혜 보답하게 수행하려면

문 통영 지원의 신도입니다. 먼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감사올립니다. 매 법회 때마다 큰스님께서는 커다란 코끼리를 내려주시지마는 저는 아직 아둔해서 코를 만졌다가 다리를 만졌다가 꼬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큰스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코끼리를 통채로 꿀꺽 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느 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청출어람 하여서 큰스님 그 크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맹세 올립니다.

답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질문으로 알고, 코를 만지든 귀를 만지든 다리를 만지든 그 모든 몸이 한군데에, 내면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잡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마는 내면의 자기를 그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장본인 말입니다. 그게 몸뚱이 하나를 하나로 돌아가게 하죠. 그걸 아셔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아시게 됩니다.

지구의 문제 대처하는 방법

문 두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구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현실을 지켜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환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구 폭발 문제라든지 물 부족, 식량 부족, 이상기후, 양 극점의 얼음 녹는 문제, 지진 발생,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산소 부족 등등 많은 증증을 앓고 있습니다. 큰스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인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것을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갈래 갈래 가지를 벌여서 이름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워야 하지만 이건 참선입니다. 선에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한데, 이 공부할 때도 한군데로, 내면 한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군데다 놓으니까 모아지죠? 그러듯이 일체는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천차만별의 일들을 그것을 어떻게 이름으로 지어서 다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만이 일체가 모두 돌아갑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거를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으면 모두가 움죽거리게 된다구요. 그러나 움죽거리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 안 움죽거리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똑같다. 이것을 해나가려면 잠시라도 찰나찰나 이렇게 안 움죽거리게 할 수 있어야만이 움죽거리게 할 수 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즉 말하자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미래도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도 현실로, 미래도 현실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일초 전 일초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삼세를 둘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냥 한군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 여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장이 되고 관세음도 되는 것이니 마음을 자유롭게 쓰세요

그건 왜냐하면 한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젭니다. 이것은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기만 하면 앞서에 입력된 건 모두 다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해결을 하되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할 때도 있고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원심력과 구심력의 의미

문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용(用)에 있어서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보통 살아나가는 데 그런 생각들을 안하시고 사시지만 우리는 공생으로 삽니다. 공생으로 살죠? 우리 몸뚱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 까닭에 공심입니다. 그리고 또 공체입니다. 그 생명들의 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체입니다. 그리고 이 움죽거리는 것도 공용입니다. 모두가 분야 분야를 맡아서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야 분야 맡아서 움죽거리는 자체를 공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공용으로 움죽거리는 거를 원식에서 이렇게 모든 거를…, 이게 즉 말하자면 공식으로서, 공식이라고도 하고 원식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모든 거를 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서는 이렇게 집어먹는 데도 시간이 가고 그렇지만, 공식일 때는 하나를 집어먹어도 전체를 집어먹어도 집어먹는 사이 없이 집어먹게 되고, 함이 없이 하게 되고, 주는 사이 없이 주게 되고,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으로서 우리가 해나가는 데는 그 여러가지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이 한데 모두 어우러져서, 즉 말하자면 원공이고 원식이죠.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부.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셨지 보살이라는 이름을 내놓질 않았단 얘기죠. 그런데 그후에 보살이라는 이름이 방편으로 생긴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마음을, 즉 말하자면 할 일이 많으니까 이 부서는 지장으로 이름을 지어서 맡아라, 이 부서는 관세음으로 맡아라, 이 부서는 칠성으로 맡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맡고 자기의 진짜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연등불이다, 즉 자기 자성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등불이라고 한다면 연등불이 자기한테 뜻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에게 석가가 되라 하고 수기를 내리셨다고 그랬죠? 그러한 모두를 주신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한테 주신 거라 이겁니다. 깨우친 분들은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말만 들어도 벌써 몇천리 몇만리, 몇천년이 지난 일도 알고 있단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뭐 걸림이 없죠, 모두가. 이 진리는 하나니까 수십만 명이 깨우친다 하더라도 한 분입니다. 일불(一佛)입니다. 일불이 전체 허공에 꽉 찰래도 차고 좁쌀 알갱이만 하게도 될 수 있고 아주 모습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너무나 광대해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계신다 해도 우리들 몸과 둘이 아니요, 우리들 마음과 둘이 아니요, 우리들 생명과 둘이 아니요, 우리들과 항상 둘 아니게 굴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지장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관세음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부서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자유스럽게 써라, 지장으로 될 때는 지장으로 되고 아버지로 될 때는 아버지로 되고 또는 부인으로 될 때는 부인으로 되고, 남편으로 될 때는 남편으로 되듯이 보살이 지장이다 관세음이다 이러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쓴다면 자동적으로 된다" 하고 말씀하셨죠. 정말이지 그 부서의 용도에 맞춰서 하면 그냥 관세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런 거를 멀리만 생각하고 여럿으로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로써 경전을 내놓은 것도 우리가 살면서 그 도리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몸뚱이와 내 불성이 둘이 아니고 배와 선장이 둘이 아니듯이 운전수와 차가 둘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따로 보살을 찾고 부처를 찾고 그러지 마시고 부처는 자기 내면의 한군데에 있으니 자기 속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가슴 속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서 샘물을 퍼가지고 천차만별로 쓸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큰스님 오래 머물러 계셨으면…

문 큰스님 감사하옵니다. 오늘은 끝없는 길을 걷는 중에 감사 회향과 한 가지 청법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몇년전 저는 인생의 회의를 맞아 비교적 평안했던 삶이 싹 쓸려가고 집도 직장도 잃고 14가지의 병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부처님 형상에만 공양할 줄 안다면…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처 형상만 공양할 줄 알았지 자기부터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불자로서 부처님 잘 모시겠다고 하며 역으로 부처님을 욕되게 한다면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콩 한쪽을 부처님 전에 놓을 수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인공에 모든 걸 종합해서 공한 도리로 함이 없이 놓았다면 우주 전체의 일체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그 콩 한쪽은 다시 남아서 또 먹을 수 있다. 부처님 전에 돈을 놓지 못했다, 공양을 넉넉히 올리지 못했다 해서 개운치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은 남보다 많이 놓았다 해서 든든하다 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 놓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향 한 개를 꽂아도 그 향기가 우주를 다 쌀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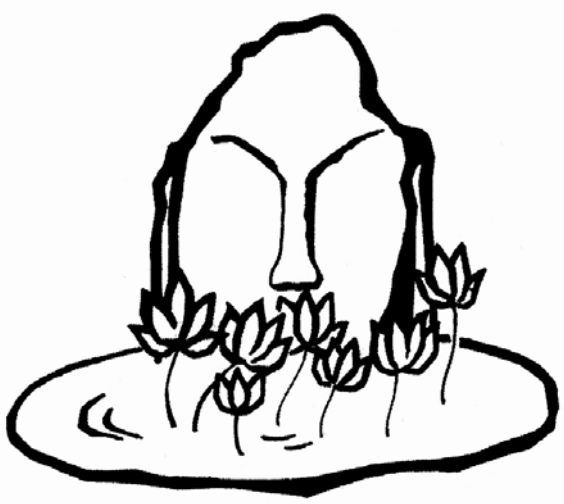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정화수 떠 놓고, 내게 돈 놓고, 내게 공양 올리라고 가르친게 아니다.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빌어야 나 잘되고 가족 잘되는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 부처님 법을 모르고 죄업을 잔뜩 짊어지는 게 된다.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가슴에는 불을 켜지 않고 바깥으로만 불을 켜려 하니 밝아지질 않는다. 본래로 밝은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기를 제도하고 주변을 윤택케 할 것인가.

경배는 주인공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독경을 해도 그 독경 소리가 삼라 대천 세계에 모두 퍼지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경을 읊조리면 불보살께서 들이시고 온 누리에 두루 퍼지게 된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닌 마음으로 경을 읽고 주를 송할 때 진정한 공덕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그저 주는 주고 송은 송일 뿐이다. 그 깊은 이치를 모른 채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외고 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망에는 그 정성이 걸리지 않고 그저 자기나 들을 뿐이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나 천수경을 외울 때면 우리는 찰나찰나 여여하게 돌아가는 유위법과 무위법을 외우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법을 따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옴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잊지 않고 꼭 해야만 염불인 줄 아는데 세울 게 없는 사람에게는 한생각이 곧 염불이 될 수 있다. 한생각이 그대로 활용이요, 그대로 법륜이니 어찌 그 법을 어기고 입으로 외워야만 맞는다 하겠는가.



지극한 정성으로 불을 켠다면 그 불은 우주와 더불어, 내 마음과 더불어 하나로 합쳐서 항상 켜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로 인등을 켜야 한다 하고, 석달 열흘 그렇게 밝혀야 한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인등이 아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의 불을 켜면 항상 인등을 켜 놓은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인등이다. 마음이 밝아야 항상 밝은 것이니 인등을 켜 놓았다고 밝아진 것은 아니다.

인등을 백일 간 켠다, 천일 간 켠다 하는데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백일만 돌아가나, 천 일만 돌아가나? 또 우리는 백 일만 밝게 살것인가, 천 일만 밝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일 초도 머무름이 없이 항상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등을 켠다, 안 켠다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

식구 숫자대로 인등을 켜 놓고 잘 되기를 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찌 불 켜 놓은 것이라 하겠는가. 불은 이미 자나 깨나 마음의 불로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켰다가 꺼지는 그 불로 정성을 들인다고 하니 그 불 꺼지고 나면 그 후로는 그만 빌고 그만 살겠다는 것인가.

법당에 촛불을 천 개 밝히는 것이 마음에 촛불을 한 번 밝히는 것만 못할 수가 있다. 마음의 불을 켜면 우주 전체가 알지만 촛불을 촛불로만 켜면 그 켜는 곳에서밖에 모른다.

잘되고 잘못되고, 좋고 나쁘고가 전부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주인공에게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일체가 그 자리라 일심이 만법으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니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둘로 보아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마음 한 번 내면 일체 제불이 다 아는 것이라 따로 법당이 없고 기도처가 없으니 생활 가운데서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진실하게 관한다면 생활이 그대로 기도요 수행인 것이다.

내 안에 관세음 보살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아서 주장자 하나 탁 던질 때 어디에고 적응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부처는 내면에 있으니 따로 찾지 마세요

☞ 15면에서 계속

이 세상에 혼자 내동댕이쳐졌더랬습니다. 어느 날 유리창에 비쳐진 자연이 실제인 줄 알고 유리창을 향해 열심히 날개짓하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죽은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무수히 날개짓 하던 새는 죽으면서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 했을까요? 새에게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었더라면 잠시 날개짓을 멈추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살펴서 바람을 따라 대자연으로 나갔을텐데. 죽은 그 새를 하얀 목련나무 밑에 묻어주면서 저 역시 무작정 날개짓만 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인간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열린 창은 어디 있는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하며 잠시 서서 주위를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잡지에서 평소 신뢰하던 번역가께서 두 딸에게 남긴 유서를 읽게 됐는데 물질적 유산은 없고 책 4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중 한권이 〈한마음요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2만원은 제가 죽과 간장으로 거의 20여 일을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하루를 살더라도 알고 죽자. 대행 큰스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되셨을까 하며 그 순간의 껌 재산 2만원을 던져 〈요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이 저를 지옥에서 황금빛 세계로 건져 올려진 제 삶의 최대의 선택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다 읽고는 바로 이것이다 확신하며 지원을 찾아 두 딸만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망쳐진 인생 앞에 자폐증까지 겹쳐 사람 대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이끌어 내셨고 스님 뒤에 서 있던 저는 무조건 스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인공만 부르면 수입이 없던 저에게 안양 갈 차비가 생기고 천도재비가 저절로 생기고 알든 모르든 선원만 왔다갔다만 해도 걸쭉하고 촛농같은 업의 강이 녹는 것이 느껴지며 큰스님 법문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려지고 큰 두뇌가 쩍쩍 열리고 온 세포들이 활짝 문을 열고 살아났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저의 생활을 완전 보장해 줄테니 안양에 가지마라 할 때도 있었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 먹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하며 큰스님 법문처럼 주인공만 믿고 발랑 나자빠지는 공부를 했더니 허공이 쫙 열리며 벼랑이 벼랑이 아니요, 허공이 허공이 아닌 꽉 찬 우주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잡고 울고 주인공 잡고 웃고 한 걸음 한 숨마다 주인공 마음 알고자 느끼고자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걸어온 세월이 지나, 현대 의학으로 불치라 하던 병들도 다 낫고 부초처럼 떠돌던 생활을 끝내고 아름다운 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물질들이 막 날아와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서도 큰스님 법을 받들며 가니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고 제 내면을 원만히 하는 보물같은 재료였고 참결손과 므두와 하나되는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 감사 회향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법을 청하옵니다.

지난 10월 첫째주 큰스님 법문 중에 "부처님께서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아난이 채 못 들어서 더 사시다 가시란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들었다. 부처는 남이 원하면 원하는 것까지 해결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물음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큰스님께서 건강하게 더 오래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난은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 주인공에게 모든 의문을 맡기던 중에 〈아함경〉 속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사람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나니 만일 비구 비구니가 사신족을 알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 닦고 익혀 늘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되어 가히 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 겁 뿐만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아난아, 부처는 사신족을 벌써 익히고 행하여 일념으로 잊지 않으니 뜻에 하고 싶은 대로 가히 일겁 이상이라도 살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세 번을 거듭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이때에 아난은 마음에 딴 생각을 하며 마군의 장난을 당해 몽롱하여 깨닫지 못하고 잠자코 있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한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하여 보아라" 아난은 분부를 받고 바로 한 곳에 가서 고요히 앉았다. 이 때 마군의 왕 파순이 부처님께 와서 사뢰었다. "부처님의 뜻은 열반에 들고자 함이 아니시옵니까. 교화할 것을 이미 다 마치었으니 가히 열반할 때이옵니다. 옛적에 부처님이 구르하위에 계실 적에 여러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처가 되어 비록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나 오래 머무르기를 탐내지 아니한다' 고 하셨으니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제도하실 것을 다 제도하셨으니 열반에 드십시오" 부처님은 말을 듣고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날까지 열반에 들지 않은 것은 나의 제자 모든 비구 비구니들이 다 지혜롭게 경과 계법을 받아 실천하여 도에 들어오지 못한 이를 이끌어 배움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것이며 또 나의 청신사 청신녀들이 지혜를 얻어서 경과 계율을 받아 실천하여 도에 들어오지 못한 이는 도에 들어오고 법을 받은 이는 성취되기를 기다린 것이니라. 파순아, 이와 같이 내가 이 사부제자가 다 법의 뜻을 얻어서 서로 널리 가르치고 전하여 모든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쳐 배움을 성취하게 하려고 오늘에 이르도록 열반하지 않았느니라"

어느거든 마음하나 돌려서 한군데다 맡긴다면 우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아 천차만별로 쓸수 있어요

마군은 또 사뢰었다. "그것이 만족된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었다. "너는 잠자코 있어라. 지금부터 석달 뒤에는 열반에 들리라" 마군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갔다. 부처님은 곧바로 앉으시어 선정에 드시매 삼매 가운데에 나머지 목숨을 놓아버리셨다. 이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사무쳐 비추기를 끝이 없었다. 아난은 마음에 놀래어 온몸의 털이 오싹하여져 빨리 부처님께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놀랍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땅이 이렇게 움직이오니 이 어이된 인연이옵니까" 부처님은 아난의 물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땅이 움직이는 것은 여덟 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어떤 것을 여덟이라 하는가. 저 땅은 물 위에 있고 물은 바람에 의지하고 바람은 공중에 의지한다. 공중에 큰 바람이 있어 때로 스스로 일어나면 곧 큰 물이 어지럽고 큰 물이 어지러우면 곧 땅이 두루 진동한다. 이것이 그 하나이다. 다시 아난아, 가끔 도를 얻은 비구 비구니 및 큰 위신력이 있는 하늘이 물의 성질의 많은 것을 관찰하고 땅의 성질의 적은 것을 관찰하여 그것을 알려고 스스로 힘을 시험해 보고자 하면 곧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둘이다. 다시 아난아, 만일 처음에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 태에 들어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으면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그 셋이다. 다시 아난아, 보살이 처음으로 어머니 태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으면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넷이다. 또 아난아, 보살이 처음으로 위없는 정각을 이루면 그 때에는 큰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그 다섯이다. 다시 아난아,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이루어 악마나 혹은 악마의 하늘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모든 하늘이나 세상 사람으로는 능히 굴릴 수 없는 위없는 법바퀴를 굴리면 곧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여섯이다. 다시 아난아, 부처님의 교화가 장차 끝나려 할 때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고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곧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일곱이다. 다시 아난아, 여래가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할 때에는 땅이 크게 진동한다. 이것이 그 여덟이다. 여래가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 적에 이르러 광명이 두루 비치고 천신이 참례하여 오면 곧 대지가 움직이나니 이것이 여덟째 인연이니라" 하시자 아난이 "옛적에 부처님 말씀을 듣자오니 만일 제자가 사신족을 알고 많이 닦고 실천하여 일심으로 잊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어 가히 일겁 이상을 죽지 않을 수 있다 하시었습니다. 부처님 도의 덕은 이보다 더 크시니 오래 머무르실 수 없나이까?" "너가 이제서야 말하니 이미 늦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신족에 대한 말을 세 번이나 하였는데 끝내 잠자코 혼침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군의 장난을 받고 있더니 이제 와서 무엇이라 하는 것이냐"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시절이나 요즘 저희들이 겪는 이 시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난은 혼침하였을 지라도 오늘날의 큰스님 제자들은 이 중요한 때에 결코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익은 제자들은 이미 법계의 통신을 완성해 놓으셨을 테고 여러 지원에서 큰스님 건강발원 새벽예불 백일정진에 이미 들어가 지극한 마음으로 큰스님께서 건강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발원하고 있습니다. 법계가 감응하도록. 큰스님, 육체적 재생의 에너지가 필요하시다면 저의 마지막 피 한방울 뼈 한가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다 쓰십시오. 도반 여러분, 지금 우리 다같이 큰스님께 배운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고 우리 모두 큰스님같은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큰스님 건강하시오며 우리 모두를 제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길 지극하게 청하옵시다. 큰스님, 저희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대자대비로 부디 허락하시어 지금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답 집이는 똑똑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게 공부 잘 하는구랴. 하여튼 고맙소. 모든 진리에 관한 건을 이렇게 솔살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도 없이 자기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본래 함이 없이 한다고 했소. 그러니까 하여튼 고맙소. 그리고 피한방울 뼛가루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돌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를 때에 자기 생각만 하고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죄 줘서 자식이 잘된다면 전부 주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식에게 피 한방울을 주면 줬지 뺏지는 않을께요. 허허허. 이 허공에도 에너지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허공을 벗어나서 우주 바깥에도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에너지는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대중 박수)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다 배울 수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모두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겉으로 봐서 몇 분 몇 분 하지 말고 내 몸통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도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책 냈는데 점검해 주십시오

문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하나 냈는데 스님께 점검받고자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뜻을 잘못 썼다든지 진리를 오도했다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내용이 잘못됐든 잘됐든 본인이 쓴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바꾸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또 지극하게 생각할 테고, 그거는 모든 게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지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긴데 태양이 태양더러 그거를 봐달라고 그러면 봐주겠습니까? 그 태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항상 볕을 쬘 때나 곰팡이가 났을 때 이렇게 내다 널고 들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하며 내 모습을 믿지 마시고, 내 모습을 생각하고 착을 두지 마세요. 이 모습은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있는 거니까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서로 진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방편으로 있으니까요. 보살이라는 이름을 경전에 내놓은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한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용도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아플 때 진짜 믿고 관하면 약사가 되죠, 의사가 된다 이 소립니다. 다 말을 하자면 기니까 생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요. 또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마음 하나 돌려서 어느 거든지 그 한군데다가만 맡기면, 한군데 우물에다 물을 부어서 솟아나오게 하는 것과 같으니 한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천차만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그렇게 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 스님네들이 산길을 가다가 서로서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선 여기 못 들어오는 놈은 하나도 깨우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스님들은 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맨 뒤에 오는 스님이 오더니만 발로 그 그린 거를 직직 모두 지워놓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셨으면 그 뜻을 대충 아시리라고 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 둘이 아닌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말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께서도 공덕이 없다는 그 말에 죽었지 않습니까? 양무제가 죽여서 묻었죠. 그랬는데 어느 신하가 달마스님을 봤다고 했죠. 짚신 한 짝을 주장자에다 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소를 파보니까 스님은 없고 짚신 한짝만 있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무슨 까닭에 신발 한짝만 주장자에 꿰가지고 다니셨느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죽었는데 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데 달마대사 당시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현실에 일초 전에서 달마대사가 그랬다면 일초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때로는 누가 아프다면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온 거면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죠?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문서를 떼어야 지금 현실에 그 사람의 유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한군데다 놔라 한군데다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지 이유가 붙지 않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생각이 자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도 되고 생각이 자기를 발전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발전을 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생각이 자식을 길을 잘 걷게 할 수도 있고 삐딱빼딱하게 걷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모두가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로 돌아간다. 세상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딨는고, 이럴 때 어딨다고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분한분 안 계시다면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없죠?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각들 해보세요. 남는 건 자기밖에 없죠. 자기가 있으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삼라만상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겠어요? (가슴을 치시며) 여기죠?

정말 허물없이 이렇게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요다음에도 정한 이치로 또 만나게 되겠죠, 진리가 그러하니까. 다른 혹성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죠, 우리 이 공부는 어느 지장의 부분을 배우고 관세음보살의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의, 즉 말하자면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고 미련한 사람도 가지를 붙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냥 원 하나만 붙들면 그 가지나 그 뿌리나 다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편하고 쉬워요. 위 상투만 쥐고서 다 맡겨라 이랬습니다. 이 상투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으니 다 거기다 맡겨라. 시대가 변해서 누진이라고 해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지금 어린 애들은 컴퓨터라 그러면 아주 아주 잘 알아들죠. 그리고 없어지고 생기는 것도 자기가 입력을 하고 지우고 이러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저께 한 일을 안다 이런 것도 자동적인 그 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마음도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뭐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뜻으로 좀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걸 하든지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는 대로 가게끔 내버려둬요. 그게 공부하는 거니까요. 가다 막히면 돌아서게 돼 있고 가다가 트이면 트이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그 원리를 그냥 배우죠. 그러니까 길다 짧다 이런 것이 둘이 아니게끔 자기한테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 자기가 그것을 써서 다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하여튼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괭개쳐놓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셔야 이 지구가 불국토가 되죠. 그리고 전체 우주의 에너지도 그냥 우리가 마음공부했으니 보이지 않게 다 나와서 보이게끔 전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앞으로는 구비구비 입에다 넣고 먹어서 똥을 누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계기가 올는지도 모르죠. 먹고 싸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도둑질도 강도질도 먹고 싸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자기들 걸어가는 일들만 생각하세요. 또 걸어가다가 남이 뭐란다고 해서 그거를 탓하지 마시고요. 내 공부만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놓고 어떤 거든지 다 놓고 들어가세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17일 정기법회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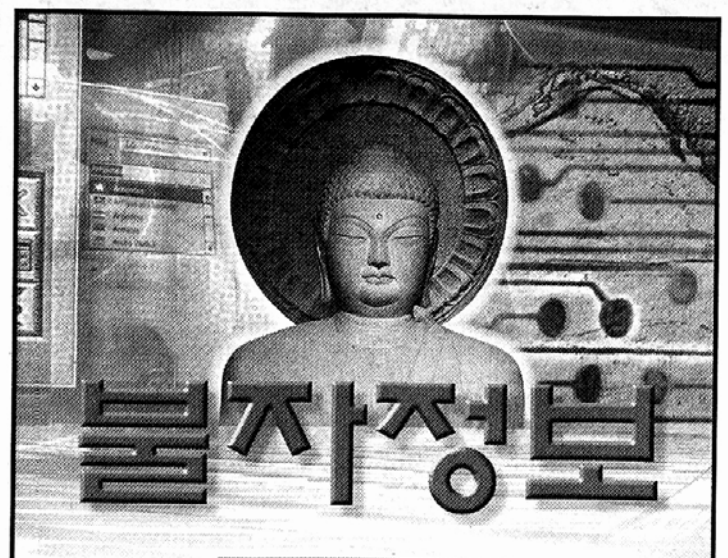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배와 선장 둘아니듯 내몸과 불성 둘아니죠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한 생각에 달려있어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귀 달 마 사 포 교 원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견성-체험지도 책·테프 판매!!
1.생물=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무념·무주처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유념·유주처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깨달음; ?가 나다라는 확신이 서는 경지
4.성불; 하루종일 자신의 의지로 밝고 청정한 본연의 ?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인천 032-528-4117
H.P 011-9020-9303

풍수지리 특강
풍수지리 특강안내
⊙음택, 양택 생활풍수 강의
⊙매주: 화요일 10:30부터 시작
⊙매월 : 1회 현장답사 실습
강사약력
⊙한국일보 문화센타 풍수지리 강사
⊙한국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남경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명당과 생활풍수, 지음
남경풍수지리 연구회
서울 종로구숭인동 70-15(2층)
남경 성필국 선생 직접 강의 (02)763-6949

사주·명리학 강의
기초에서
작용 통변을
확실히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02)386-5520
019)354-1740

구인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 관음사
02) 2234-331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대~60대)
양평군 양동면
정 토 사
0338)
771-8209,8210

비구니 보현스님을 찾습니다
011)405-8445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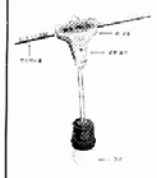
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주민번호 : 580701-2696213
◇성 명 : 최 돌 자 ◇법 명 : 일 행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문외동 159-2 **지장사**
신도일동 외 대표 거사
회장 **홍성태 / 신도회장 박성도 / 신도부회장 강말남**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1. 9.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주민번호 : 450120-1823015
◇성 명 : 김 석 종 ◇법 명 : 도 각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북신동 282-20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1. 20.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종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사찰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특 징
•일체형으로써 접촉 불량이 없음.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함.
•언등 설치시 편리하게 언등고리를 만들었음.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전기배선을 안전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신성기획 02)3431-3789
016)336-3789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사찰안내

포교원 안내
◆위치 : 천안
◇부지 : 80평 ◇법당 : 12평
◇요사채: 20평
◇가액 : 6천 5백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3천5백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740평, 임야 250평)
◆법당 : 30평/ 요사: 40평
포교당 안내
◆안양: 60평(1,500/50만원)시설비절충
◆홍제동: 25평(2500/30만원)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홍성
◆ 부지 : 7,300평
◆ 특징 : 암자 20평 서해바다 전망 좋음
◆ 가액 : 평당 3만원
◆ 위치 : 충남 홍북면
◆ 부지 : 5,000평 ◆ 특징 : 4차선 대로변
◆ 가액 : 답사후 결정
※전국에 소재한 사찰매매, 전세 안내
다보불사 02)3545-056
019)234-5506

포교원 안내
◆위치: 울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 2500세대
◆평수: 30평
◆가액: 전세2,500만원(월세가능)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2) 254-6689
011)9576-6338

포교원 안내
◆위치: 부산시 동래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법당: 30평 (휴게실, 공양실, 거실, 방완비)
◆ 기타포교 당시설완비
◆가액: 보증금500만원(월60만원) 권리금1,800만원
051) 557-2982
011) 482-2091

불사종합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무상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부지 무상 안내
◆전국에 소재한 포교원 무상 안내
◆부전스님, · 공양주보살님 가실분, 모실 분 무상 안내
◆스님의 일반인, 무속인, 보살 및 투기성 있는 상거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국불사
02)351-4447 / 011)736-4447

절터 안내(별장터)
◆위치: 전남 진도군 임해면 죽림 정동향에 위치 (해돋이볼수있음)
◆땅: 4,000천평
◆저수지 : 79ht, 담수량 273,000
◆여귀산(해발457m)안에 사찰위치-등산코스, 바다위 수십개의 섬이 있어 경관 빼어남. 물이 깨끗.
◆사찰서 해수욕장 5분거리
◆국도서 찻길로 사찰까지 약 5분거리
◆방문 답사후 가액 상담 요망
0632)544-0086/0056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법당 : 30평
◇요사 : 60평
◇부지 : 1,400평
◇가액 : 1억(급매)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원 안내
◆부산 온천장 식물원 4거리 경보아파트앞 35평,
- 보증금1천만원 월세30만원
◆대구 송현동 앞산 청소년수련원 맞은편4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세40만원
※시설 일체 무상증여, 권리금 없음.
053)621-2626/0561)744-1689
011)763-1690

사찰 안내
◆위치: 충남 논산시 연산면 대전에서 30분거리
◆부지 : 368평
◆법당 10평, 요사채 30평
◆가액 : 9천만원
0461)735-5850

토굴 안내
◆위치: 경북 봉화군 현동
◆평수: 밭2000천평, 논600평
◆대지 : 105평, 가옥한채
◆산새수려하고 스님이 5년 살았음.
◆가액 : 3,500만원(절충가능)
0573)672-2825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
◆ 부지 : 3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당
◆ 요사 : 방 9개
◆ 바다가 보이며 민가에서 300m 산속에 위치
◆ 가액 : 2억 6천만원
051)257-1080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충북괴산
◆면적 : 임야 27,000평
◆준능림지역, 도로접, 야산
◆가액 : 평당 6천원 (1억 6천만원)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찰 및 부지를 안내하오니 많은이용 바랍니다.
삼호공인중개사
0431)216-7900
011)484-4555 **심청산**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삼존불, 공양실,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2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번지
◇평수 : 1,907평(대지 207평)
◇요사 35평 · 전 1,700평
◆가액 : 9천만원
◇현재 임법당. 야산밑에 큰 고래산이 있고
◇3층계단으로 조성 ◇주차장 완비
◇사찰까지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음.
011)655-3883/011)653-8375

사찰 안내
◆위치 : 창녕 부곡온천 5분거리
◆대지 : 130평
◆법당 : 10평(산신각, 미륵불)
◆요사 : 30평
◆가액 : 6천8백만원
017)310-6482
0551)231-5778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74 개원사
◆대지: 84평, 법당: 10평, 아랫채 8평, 산신각 5평, 창고 7평
◆가액: 9,000만원
0523)385-0854
017)573-0854

만물(급)안내
◆위치 : 강동구 암사 지하철역 입구 (암사 종합시장입구, 300여 사암 집결지역)
◆평수: 약 300여평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140만원)
◆입점 물건, 시설비 포함 2억 2천(절충가능)
02)442-2866/011)769-5090 (주인 직접 상담)

암자터 안내
◆위치 : 용인군에서 이천군 적경 지역인 덕평아이시에서5분거리
◆면적 : 463평(잡종지)
◆가액 : 9천2백6십만원
◆특징 : 진입로와 463평. 토목공사완료 아파트와 주택 거주지역으로 교통이편리함.
0333)683-0338
011)346-800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내
◆평수 : 500평
◆법당, 요사채 2동
◆가액 : 약2억
0593)834-328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법당: 10평
◆부지: 201평(하천부지 150평 포함)
◆방4, 창고1개, 입식부엌, 전기판넬, 기름보일러, 에어컨, 모든 불교용품, 가전제품 완비되어 있음.
◆스님 몸만 오시면 됩니다.
◆교통요지(진주, 합천, 마산, 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 도로에서 100m 위치)
◆가액: 8,500만원
0555)572-3881
011)839-3881/011)872-0528

사찰 안내
◆위치 : 마산시내
◆부지 700평, 임법당, 방4개
◆가액 : 전세5백만원,월4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51)248-7191
011)869-8557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기타 : 주변 주택단지, 철학적합
◆토굴 교환 원함
032)654-5859

토굴 암자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임법당, 방5칸, 산신각(小), 지하수, 약수,
◆ 가액 : 2천만원
011)588-7880
0373)378-0808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광릉 수목원 근접
◆대지 800평, 법당 40(목조) 요사채 80평
◆산세 좋고 계곡 있음.
◆가액 : 5억 7천만원
▶전국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 찾습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함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가액: 6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대지 40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가액 : 6천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시
◆부지 : 3,00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좋음. 계곡있음. 4차선도로서 도보 10분거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사찰 부지 2천평
◆산새수려 계곡접
◆가액 : 5천만원
011)588-7880
0373)378-08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거제2동 (사직운동장 주변)
◆2층 38평(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방2개, 부엌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답사후 절충)
051)505-3729 / 019)255-1818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김장예산 인터넷서 짜세요

(생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인터넷(http://www.garak.co.kr)과 자동응답팩시밀리(02-402-7001)를 통해 당일 시세에 따른 김장비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생강 등 김장재료 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복층아파트 중과세 83평이상

(세금)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복층형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대상기준을 전용면적 74평 이상에서 83평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복층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내부계단 설치에 9평 정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과세 대상인 단층형 고급 공동주택과는 달리 83평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부조리 인터넷으로 신고

(금융) 금융감독원은 금융부조리 근절을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개설했다. 금융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참여의 장'→'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교대근무'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 노동부는 14일 제조업체와 병원, 아파트 경비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교대제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지침을 제정,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들에 대해 '격일제' '2조2교대제' 등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자료 무료게재 처벌

(통신) 내년 7월부터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디지털 복제' 개념이 도입돼 다수가 이용할 목적으로 CD롬으로 복사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렌지주스 마시면 심장병 예방

(건강) 하루 오렌지 주스 3잔을 마시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엘즈비에타 구로스카 교수는 남성 16명과 폐경 여성 9명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 오렌지 주스가 혈액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21% 높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고엽제 DMZ에 대량 살포

미군의 도덕성·한국정부의 무지 '도마위'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서둘러야

베트남의 밀림을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베트남인과 참전 군인들에게 참담한 후유증을 남겨준 고엽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다량으로 살포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8~69년 당시 한국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미 국정부는 18일 자신들이 고엽제 살포를 제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이 당시 한국군 7만여명이 동원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는 5만9천갤런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살포작업의 지휘계통과 책임소재가 한·미 양국간 군사·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을만큼 이 문제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정부의 비도덕성과 우리정부의 무지다. 미국은 지금까지 베트남전 이외에는 고엽제를 살포한 일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자신들은 뒤편에 물러나 있으면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게 하고 한국군으로 하여금 이 맹독성 물질을 살포케 했다. 베트남전 당시 살포작전에 나서는 자국의 헬기 조종사들에게 철저한 보호장구를 착용케 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고엽제를 그냥 제초제로만 알고 장병들을 '죽음의 물질'에 무한정 노출시킨 우리 군의 무지는 한심스러울 정도다. 게다가 베트남전에서의 참상이 드러났음에도 30년이 넘도록 고엽제 살포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살포 작업에 참여했던 상당수 예비역 군인들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고엽제에 노출된 후 선천성 기형아를 낳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당시 살포작업에 동원됐던 한국군 장병 7만여명의 후유증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와 피해보상은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마음에 또다시 고엽제를 뿌려서는 안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상응부경전〉에는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설해져 있고, 〈화엄경〉에도 "온갖 중생의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애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거의 모든 경전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 고통받는 장병들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주길 기대한다.



유전자조작 식품대책 촉구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회원 30여명은 6일 서울 명동에서 정부의 유전자 조작식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유통기한 다된 수입쇠고기 대량 유통

농림부 산하 축산물 유통사업단은 지난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호주산 수입 쇠고기 7백여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이 쇠고기는 97년 11월 호주에서 수입한 것으로 이 가운데 1백40여톤은 당시 유통기한(2년)을 불과 두달 남겨놓은 상태여서 일부는 변색돼 있었다.

지난 9월 유통사업단 냉동창고에서 도매상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중 일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시커멓게 변색돼 일부 도매상들의 반품 요구가 잇따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수입쇠고기가 실제 가정에 공급되는 기간을 고려, 적어도 유통기한 6개월 이전에 정부 방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2020년 암정복"

과기평가원등 '…미래기술'서 전망

인류의 암 정복은 세계적으로는 2011년, 국내에서는 2020년쯤에는 가능하다. 에이즈 치료법은 2008년(국내 2011년)쯤 개발되고, 2005년(국내 2010년)에는 1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배터리가 나온다. 2005년(국내 2008년)에는 수첩 크기의 컴퓨터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해진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6일 '한국의 미래기술, 2000~2025'을 통해 이같은 미래기술의 실현시기를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각 분야의 과학기술자 1천4백44명을 대상으로 1천1백15개의 세부 기술분야에 대해 장기 예측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

암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2007년 유전자 기법으로 암진단이 가능해지고, 2010년 생물학적인 치료법 개발을 거쳐 2011년쯤 암의 모든 유전정보가 밝혀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준은 선진국과 대비해 평균 47.1%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장 앞선 분야는 통신기술로 선진국의 55.5%에 이르렀고, 교통(51.1%), 전자-정보(50.6%), 화학공정(50.1%), 건설-토목(49.7%)이 뒤를 이었다.

시론

답답한 정치



성기서
〈서원대 교수〉

가슴이 답답하다.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낀 새벽 비좁은 골목길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만큼이나 절망적이다.

"국리민복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겠노라"고 선거때마다 목청을 높이던 정치인들이 자기네 당파의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국정을 팽개치고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듯 소모적인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민생현안 관련법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실망과 개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 백만 국민을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만든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은 차치하고라도, 요즘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언론장악문건', '옷 로비 특검', '고엽제 살포 내역·경위 및 주체 논란', '과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특위'에 대한 보도를 보면 답답한 가슴은 벌써 분노의 도가니로 변한다.

정말 대안은 없는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정치 선진국'에서도 이처럼 국민을 얄봐도 한참 얄보는 정치인들은 가차없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물러나는데, 우리 정치판은 왜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걸까?

> "국정 팽개치고 밤그릇 싸움이니 국리민복 '아득'"

정치인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노력해도 정보화와 신기술 개발이 흥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21세기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텐데, 우리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니 말이다.

이 슬픈 현실은 우리 정치인들 대다수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데다 뽑아놓기만 하고 감시하거나 채찍질을 게을리한 유권자들의 태만에서 연기한 것임은 지각있는 불자라면 익히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대열반경〉에 의하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부처님은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하셨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아자타삿투왕이 밧지국을 치려 할 때 부처님의 자문을 구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나라의 번창과 쇠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요약하면, 첫째 밧지국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많이들 모이는가? 둘째 밧지국 사람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돌아오며, 화합하여 밧지국의 일을 처리하는가? 셋째, 밧지국 사람들은 제정된 법을 잘 지키는가? 넷째, 밧지국 사람들은 고령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따르는가? 다섯째, 밧지국 사람들은 여인들과 소녀들을 괴롭히지 않는가? 여섯째, 밧지국 사람들은 조상을 공경하고 법다운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가? 일곱째, 밧지국 사람들은 자격있는 수행자들을 잘 보호하고 편히 지낼 수 있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잘 지켜지면 그 나라는 번영이 예견될 뿐 쇠퇴함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 아자타삿투왕은 밧지국 침공을 포기한다.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이 일곱 가지 가르침은 화합·지계(준법) 그리고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실천 덕목에 기인하고 있다.

이 가르침에도 선인선과와 악인고과의 인과법칙이 암시되어 있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부처님의 위와 같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 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치·경제적으로 보는 국제정세는 말이 좋아 '세계화, 정보화 사회'지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강국들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적자생존의 밀림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가슴깊이 새겨 밥값·이름값·지도자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답답하기만 한 우리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정치인들이시여, 노구를 이끌고 임진왜란을 극복하신 서산대사의 말씀을 한번쯤 가슴에 새겨보시라.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은 후생의 갈 길이 되리라."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해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우이웃에 '정성'을 입힙니다

능인복지관 뜨개질 수요봉사회

회원 24명 조끼·목도리등 뜨개질
생활보호대상 주민 80명에 보시

"실은 시계방향으로 돌려 아래를 끌어서 위에서 돌려 코를 만들고, 맨 아래단은 고무코로, 소매아래까지는 겉뜨기로 62단을 올리세요."

17일 오후 2시 능인종합사회복지관 301호 교육실. 김성욱씨의 지도를 받으며 1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뜨개질에 몰두해 있다. 바늘과 바늘을 잇는 바쁜 손놀림속에 보라색, 하늘색, 회색 빛깔의 조끼들이 한코 한코 모여 형태를 갖추어 간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모여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이곳은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뜨개질 수요봉사회.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위해 지난 10월말 결성됐다. 때마침 여성들 사이에서 수십년만에 뜨개질 붐이 일었고, 동참자도 많았지만 뜨개옷을 만들 털실 후원받기가 어려워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을 구입해 뜨개질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4명이 동참해 저마다 집에서 복지관에서 틈나는대로 뜨개질을 하고 있다.

"시장에 가면 기성복 옷도 많지만 사람의 손이 일일이 가는 뜨개질로 만든 털옷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이라는 생각에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정봉자 회원은 모임에 동참하게 된 연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뜨개질 수요봉사회 회원들은 조끼와 목도리, 스웨터, 모자 등을 만들어 오는 연말 개포 1동~4동 생활보호대상자와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못하는 무허가 집단촌 구룡마을 저소득 주민 등 약 80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겨울 뜨개질 봉사를 마친 뒤에도 조를 편성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과 결연을 맺어 방문봉사활동을 통해 한번 맺은 인연을 지속시킬 예정이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성욱씨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주부들이 집안살림하면서 틈을 내 한코 한코 뜨개옷을 만드는 일은 세심한 정성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이라면서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예쁜 뜨개옷을 들고 조만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뜨개질 수요봉사회 회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줄 털옷을 만들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㉑



권 영 일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장〉

탐욕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
30년간 예불·108배…항공수련도

"예순을 훌쩍 넘겨버린 사람이 더이상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호흡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삼보를 공경할 따름이죠. 부처님 법대로 사는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하왕십리 자택으로 몰려드는 1백여 명의 대중들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40여 년째 역학 강의를 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 권영일 회장(65)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말한다.

30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30분이면 일어나 예불과 함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권 회장이 쉴새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피곤한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매번 반갑게 사람들을 맞는데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하는 진지한 삶의 태도가 근본을 이룬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소짓고 화를 내지 않는 생활 △매일 한가지 이상 선행을 베풀어 공덕을 쌓는 생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삼보를 공경하는 생활을 화두삼아 실천하는 노력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권 회장만의 비결임은 물론이다.

예불 후 20분에 걸쳐 하는 테벳밀교의 기공행법 향공(香功)도 꾸준한 건강유지의 노하우다. 향공을 수련하다 보면 몸안의 모든 기혈이 뚫려 질병이 소멸되고, 몸의 탁한 기운이 소멸돼 절로 즐거워진다는 것.

92년 김해인씨(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고문)에 의해 발족된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 2, 3대 회장을 맡아보며 청소년포교는 물론 재가불자 경전공부을 위해 윤독법회를 매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고 있는 권 회장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병도 없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간신

소년가장 돕기 불교합창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스님)은 27일 오후 7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제3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합창제를 갖는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어린이불자들과 아버지가 함께 출연해 음성공양을 올리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혼성 합창단도 찬조 출연한다.

디지털상담실 후원봉사단

청주 디지털열린상담실(상담실장 홍자운)은 20일 디지털열린상담실 후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후원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상담실에서 정기법회를 갖는 한편 월 1회 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고3생 위한 프로그램

독동청소년수련관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2월1일~31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4시 테크노댄스교실을 운영하며, 콜라텍도 열 예정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3차에 걸쳐 자원봉사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12월7일부터 2회에 걸쳐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2646-6816



◇불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청취자의 상담에 귀를 귀울이고 있는 초격스님.

"방송도 포교의 연장 삶의 고민 함께 풀지요"

BBS '살며 생각하며' 진행 초격스님

"여러분 오늘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뒤로 두고라도 우선 홀가분하지요? 특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더욱 깊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길게 연장하지 맙시다.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입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더 잘 알테니까요."

불교방송 심야 간판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오후11시~0시, PD강선문) 진행자 초격스님(광명선원 원장)은 지난 17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날 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따뜻한 사연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진행도 포교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내세우거나 치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행자가 스님이라는 점에서 불교는 다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10월18일 가을개편이후부터 진행을 맡은 스님은 청취자와 대화하는 쌍방진행인 이 프로그램을 참신함과 진솔함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사는 이야기, 고민거리 상담 등 작지만 개개인에게는 소중한 사연들이 편지나 전화연결로 소개돼 함께 생각하게 한다. 30~40대 주부에서부터 노년층, 청소년 등 청취자의 폭도 그만큼 넓다. 서울 강남 도심에 개척포교당을 내고 청소년공부방까지 운영하는 스님은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교에 대한 인상을 진솔하게 터놓는 타종교인들의 전화방문도 환영한다.

"앞만 보며 사는 바쁜 현대인들이 밤 늦은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있도록 방송을 통해 하루하루 귀중한 인연을 맺어나갈 생각입니다."

위영란 기자

불교방송 조직개편

본부장·아나운서부 신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5일자로 방송본부장 직제와 아나운서부를 신설하는 등 기구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내년 개국 10주년과 2000년대를 대비한 이번 기구조직 개편으로 방송본부장에 홍사성 前불교신문 주필을 임명하고, 기획심의 포교제작 교양제작 보도 아나운서 기술 광고사업 관리부 등 7개 부서장을 발령하고 각 부서에 팀장을 임명했다.

진각종 첫 대중법회 연다

27일 진선여중고서
혜정대정사 밀교 강의

진각종이 창종이래 처음으로 종도들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중법회를 연다.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서울지부 금강회(회장 손성섭)는 통리원(원장 성초)의 후원을 받아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강남 진선여중·고 회당기념관에서 밀교교리대법회를 개최한다. 서울 교구 신도 및 일반인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회에는 불교방송에서 밀교강좌를 맡고 있는 혜정대정사(진각종 교법연구부장)가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부처님의 몸이다'를 주제로 70분간 설법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마련된다. 신도회가 주축이 되어 봉행하는 이번 대중법회를 통해 진각종은 '열려있는 종단'으로서 포교활성화와 밀교의 대중화를 꾀한다. 진각종은 향후 대구 부산 등에서도 밀교교리 대법회를 개최한다는 계획.



◇혜정대정사

한편 이날 법회가 열리기전 문화이벤트로 김현주씨의 국악공연과 금강중창단의 찬불가 공연 등이 열리며 법회현장에서는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강좌〉 〈대일경주심품의〉 등 밀교관련 경전도 구입할 수 있다. (02)913-0751

이경숙 기자

부불련 독경·퀴즈대회 신심겨뤄

어린이 16개팀 참가… '동명불원' 대상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스님)는 14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제14회 찬불가, 독경 및 교리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부산지역 사찰 어린이법회 16개지부 4백여명의 어린이불자가 동참해 실력과 신심을 겨뤘다. 전체 대상은 동명불원 어린이회가 차지했으며, 찬불가부문은 선암사어린이회, 중창부문은 통도사부산포교원어린이회, 독창부문은 보현선원 어린이회, 교리퀴즈 부문은 관음사어린이회가 차지했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 불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신심을 겨루며 한마당을 펼쳤다.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한백 지음 300쪽/전3권 값7,5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구선스님 수행기

소설 觀見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의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의 비밀과 윤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이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봉성기획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구선스님 지음
460쪽/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觀見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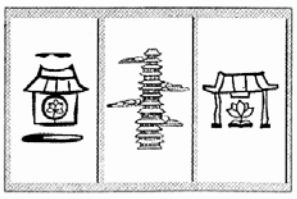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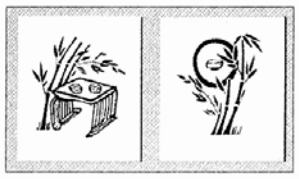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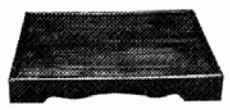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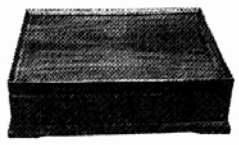
-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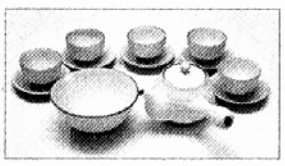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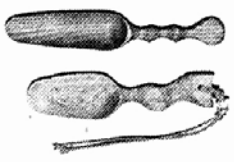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차 시



재질 - 감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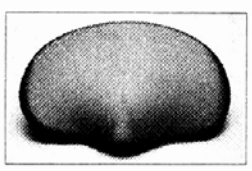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 제306-025009
· 외관등록 제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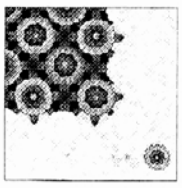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사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응문사 대웅전 정실
가격:₩5,000

옥액자



(대) 17.8×22.5cm ₩15,000
(중) 3.7×18cm ₩10,000
(소) 7×9cm ₩3,000
· 색상 베이지, 분홍, 녹색
· 재질 옥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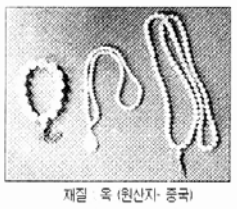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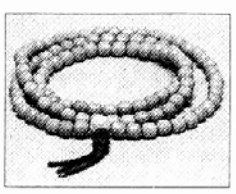
색상 검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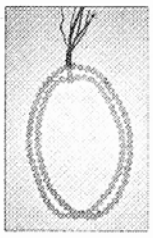
재질 옥 (천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물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코팅 · 골동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용거북시계



가격:₩64,000

한국불교총람



·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한국불교총람 CD



가격:₩60,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0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상반신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0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전신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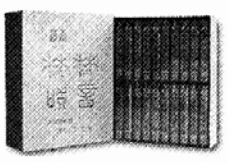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0분
가격: 각 ₩25,000

문구암 스님 범음범패 테잎



가격:₩60,000

청화선사 대법회



비디오 테잎
가격: ₩15,000

부처님 일대기



비디오 테잎 (아동용)
가격: ₩1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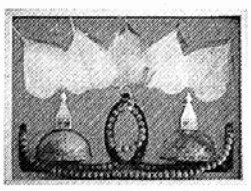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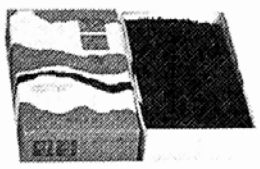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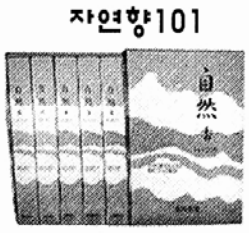
성물내용 성염(오색입)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자연향102

규격 165×85×3cm
가격: ₩4,200

박범훈 작곡집 1

가격: ₩9,500

날개CD

가격: ₩9,500

향나무 열쇠고리

· 안전운행
· 재수대통
· 소원성취
· 달마팅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가격: 각 ₩3,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쑥엑기스

가격:₩5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오보크린

1세트 3개 ₩18,000

전자파제거장치

가격: ₩9,000(2개 한세트)

연꽃양면장수

규격 25×25cm(받침대 포함)
가격:₩600,000

싸이버에밀레종

봉황청동
재질 합금
좌대 30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싸이버에밀레종

팔각개금
재질 주석
종높이 17cm
종지름 12cm
가격: ₩200,000

싸이버에밀레종

사각동록
재질 합금
좌대 26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바라밀 건강칫솔

가격: ₩3,900

반야심경 향로

(기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쫑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에밀레종

평면받침
지름 11cm
높이 16cm
가격: ₩63,000

에밀레종

사각받침
지름 15.5cm
높이 25cm
가격: ₩219,000

에밀레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가격: ₩37,000

학산가족 숫자놀이

아동용CD 3세 ~ 5세
가격:₩20,000

감잎차

가격:₩35,000

법회안내

국청회 '금강경' 강좌



무진장스님(국청회 법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국청회 〈금강경〉법회. (02)730-1249

대불련 초청 법문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 25일 오후 7시 봉도사부산포교원 대불련 부산동문회 창립 35주년 기념 초청법회.(051)255-5675

'수행의 향기' 설법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8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초청법회 '수행의 향기' 주제법회.(02)587-8993

11월 다보법회

원광스님(삼장불교문서포교원 원장) '24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11월 다보법회.(02)703-0108

'진각국사 어록' 강의

김영욱박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문위원)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삼학원 〈진각국사어록〉강좌.(02)765-960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24일 (수)

■강남포교원 건강특별법회=강남 포교원은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약식불이 건강법'을 주제로 건강특별 법회를 연다. (02)539-2631

11월25일 (목)

■불자소프라노 김해경교수 독창회=계명대학교 강사인 불자소프라노 김해경씨가 오후 7시30분 대구 꾀꼬리회관 어린이극장에서 독창회를 연다.
(053)754-0277

■무불선원 '법장스님과의 대화'=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오후 7시 수덕사 주지이자 연구원 이사장인 법장스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02)541-0002

■혜거스님과의 불교진리탐구=대한불교진흥원은 26일까지 충북 다보수련원에서 혜거스님과의 불교진리탐구 '초발심자를 위한 수행'을 연다.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중심으로 공부한다.(02)719-1855

11월26일 (금)

■경불련 창립 8주년 기념식=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안프라자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02)725-6231

11월27일 (토)



◇전국의 어린이법회지도교사를 위한 겨울불교학교 연수회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다.

■겨울불교학교지도자연수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28일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를 위한 겨울불교학교 연수회를 연다.(051)808-4570

■해인사·영암사터 순례=터사랑은 밤 9시 가야산 해인사와 영암사터, 도동서원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02)725-1284

■서불청 일일 한마당 큰잔치=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서불청 1일 한마당 큰잔치를 패스포드에서 연다.(02)730-9108

■능인선원 보살계수계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보살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02)577-5800

■외국인을 위한 탈춤 문화강좌=통도사부산포교원은 오후 2시 포교원내 선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탈춤문화강좌를 연다.(051)816-2241

11월28일 (일)

■국청회 수련법회=국청회는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불자예절과 의식을 주제로 수련법회를 봉행한다.(02)730-1249

■성주사지·무량사 순례=옛돌은 오전 7시 30분 성주사지와 무량사 등지로 수례를 떠난다.(02)2266-1233

■칠불암 사찰생태기행=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은 오전 7시 지리산 칠불암으로 사찰생태기행을 떠난다.(0551)266-0170

■은해사·백흥암 답사=여래지답사회는 오전 7시30분 팔공산 은해사, 백흥암, 중암암 등지로 답사기행을 간다.(02)3445-0202

■선운사 생태기행=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은 오전 8시 전북 고창 선운사로 생태기행을 떠난다.(02)741-4696

■재가연대 고대산 산행=재가연대는 강원도 홍천군 고대산으로 11월 산행을 떠난다. 오전 9시 의정부역에서 집결한다.(02)725-6231

■제5회 포교사고시=조계종 포교원은 제5회 포교사고시를 서울 동국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고, 광주 향림사, 전주 화엄불교대학, 대전 보문고에서 실시한다.(02)720-7060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식=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오전 11시 울산지역의 수행도량이 될 새법당 상량식을 봉행한다.(052)244-0884

종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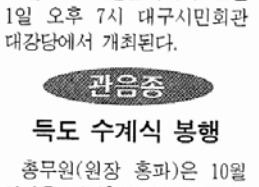
조계종

봉선사 선수련회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동안거를 맞아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겨울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매주 토요일 입재해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겨울 선수련회는 참선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정화시켜 줄 목적으로 개설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 (0346)527-1951

태고종

서광사 복지관 기공



남제주군 서광사(주지 성근)는 10일 불교사회복지관 기공식〈사진〉을 거행하고 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연건평 130평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서광사 불교복지관은 2000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064)764-1417

진각종

스승 7명 퇴임식



통리원은 퇴임하는 스승들을 위한 퇴임식과 기로진원식을 18일 정오 경주 한화 콘도에서 가졌다. 이날 퇴임하는 스승들은 락혜대정사(대명심인당·사진)를 비롯 7명이다.

장애인 돕기 음악회

대구교구청 주관, 총금강회와 금강합창단 주최로 금강합창단 창단 10주년기념 및 장애인돕기 자선음악회가 12월 1일 오후 7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관음종

득도 수계식 봉행

총무원(원장 홍파)은 10월 상달을 맞아 신곡맞이 4중보은(四重報恩) 법회및 득도수계식〈사진〉을 17일 묘각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홍파·법명·지섭 스님을 증사로 득도수계식이 봉행돼 모두 6명이 수계를 받았다. 4중보은 회향법회는 27일 오전 11시 옥천백운사에서 개최된다.



법륜종

법선 총무원장 취임



제5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지천당 법선종사〈사진〉의 총무원장 취임법회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봉행된다. 이날 전 총무원장 효성스님의 이임법회도 함께 열린다. (02)733-4445

원각종

옴천사 통일기원 법회

강진 옴천사(주지 정암·호남 종무원장)는 26일 제2 건국을 위한 국태민안 남북평화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호남의 지도자 스님들과 기관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호남 최대 지장대불 점안식도 함께 갖는다.

총화종

중앙종회 예산안 심의

중앙종회(의장 만오)는 24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44차 종회를 개최한다. 이번종회에서는 올해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0346)592-8891

아미타종

청소년 돕기 두타행

16일 전남 광주시 양동시장과 충장로에서 불우청소년 가장돕기를 위한 두타행을 실시해 여기서 얻어진 46만440원 전액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두타행에는 종정 지산스님 총무원장 법성스님 총무부장 법안스님 등 종단 임원진과 신도 등 120명이 동참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노인들의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 경로당을 찾아 보장구 등을 무료로 수리하고, 이미용서비스,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02)385-1351

▲청소년상담=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청소년 상담을 실시한다. 학업, 가정, 진로, 이성문제 등을 상담한다.(02)571-2988

강좌

▲초발심자경문=조계사는 제5기 〈초발심자경문〉 강좌를 연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열리는 이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회로 나눠 진행된다.(02)720-1390

▲수지침=조계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정통수지침 강좌를 연다. 고려수지침요법학회 신순희씨가 지도한다.(02)720-1390

▲전통문화교실=어울문화원은 여성을 위한 전통문화강좌를 마련한다. 다도실기 및 이론, 국악기초 실기, 장고반, 가야금반 등을 운영한다.(0331)258-9938

▲한식조리사반=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식조리사반을 연다. 매주 월, 수요일 오후 6시에 이론과 실기를 지도한다.(0342)716-4215

▲단전호흡=동산반야회 동산문화센터는 12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정토 단전호흡강좌를 실시한다.(02)732-1206

▲아미타정토대학=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을 12월 2일 개강한다. 한국 인도 중국 정토사와 아미타경, 정토미술 등을 공부한다.(02)732-1206

모집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자를 모집한다. 마포구지역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으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다.(02)365-3677

▲자비신행회 회원모집=자비신행회는 적극적인 신행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신행회 활동에 동참할 회원을 기다린다.(062)222-1165

▲맑고 향기롭게 '푸른모임' 회원=맑고향기롭게는 하이텔의 lotus와 작은 모임 sg1116에서 활동할 새 회원을 모집한다.(02)741-4696

▲도서분류자원봉사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도서분류작업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도서관련학과 전공자 및 도서분류 유경험자면 된다.(02)385-1351

▲방문간호 자원봉사자=부산 개금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노인등 어려운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051)893-5034

▲나눔의 집후원자=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는 외로운 할머니들을 도와줄 후원자를 모집한다.(0347)768-0814

▲도배봉사 및 후원자=부산 진구가정봉사원 과견사업소에서는 영세노인가정 도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051)866-0454

▲복지관 쌀과 부식 후원=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결식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에 필요한 쌀과 부식 등의 후원을 기다린다.(051)816-2241

▲경로식당 자원봉사=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은 주 1회 4시간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구한다.(042)488-6297

▲자비봉사단 단원=울산불교교육원 동문회 자비봉사단은 월1회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단원을 모집한다.(053)565-9001

▲사회교육자원봉사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에게 서예와 동양화를 지도할 사회교육자원봉사자를 구한다. 월요일~토요일 주 1회 1시간이상 봉사가능하면 된다.(02)385-1351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품질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20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잡티가 많으신 분은 탱탱크림을 발라 주시고, 잔주름을 없애고 탄력과 윤기를 주실 분은 아래의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최재품 아로마 테라피 오일



신제품 아로마 테라피 오일의 성분들은 3개의 피부층(각질 표피, 진피)에 영양을 주고 진정시켜 주며 탄력과 윤기를 불어넣어 잔주름을 없애 줍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생성세포가 생성되도록 자극하고 염증을 제거하며 수분을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정화작용을 통하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천연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아로마 테라피 오일은 에센셜 크레이징 오일(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퍼펙트 딥 크레징 오일)과 에이콤플렉스 에센스 오일(문제성 피부의 빠른 개선을 위해 처방된 고기능성 미용 농축액, 레티노이드 성분 함유) 모공을 열어주는 진동 마사지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set)

일주일만 바르셔도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 비젼21 ☎ 02)447-7867

졸탁동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기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챠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홧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침은 마르고 입술타며 눈은 총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거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벅찬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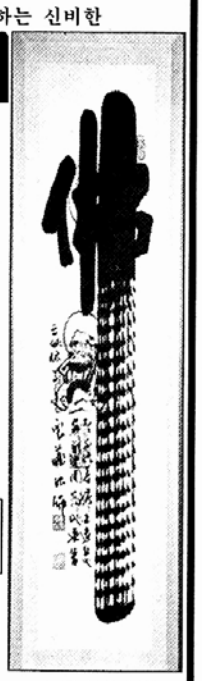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rn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용린佛字체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새생활 옥룡 문화사상

풍수지리공개강좌

풍.수.지.리.를.알.면.부.처.가.보.인.다.
풍.수.지.리.를.알.면.미.래.가.보.인.다.
풍.수.지.리.를.알.면.역.사.를.바.로.보.고.
세.상.을.설.계.할.수.있.다.

4대-지수화풍 = 풍수지리 = 우주천지원소

풍수지리는 고래로 희유한 천지의 진리로서 우주철학의 대법이다.

▶ 강 의 : 견불선원장 세준스님
▶ 일 시 : 1999년 12월 2일 목요일 11시
▶ 장 소 : 아크리스 문화센터(아크리스 백화점 본관8층) 강남 남부터미널 맞은편.
▶ 강의내용 : 도선국사 맥을 이은 風水地理禪解 (풍수지리선해)형기,이기 총망라.
▶ 강좌접수문의 : (02)585-5000 교) 3802-3/4001-2 직)02)587-3108 / 011)706-4090

해인사 장경판전 새단장

2년만에 4개동 기와·서까래 교체
해충·습기 방지…내년 경판 소독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주지 보광) 팔만대장경(국보32호)을 6백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장경판전(국보52호)이 2년여의 해체보수공사 끝에 말끔히 단장됐다.

모두 4개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는 장경판전은 97년 11월 고려각판을 보관하고 있는 동사간전 해체보수를 시작으로 국간판을 보관하고 있는 수다라전과 법보전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이달말 서사간전 보수공사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공사는 4개동의 지붕기와 및 서까래연목을 전면교체한 대작 보수불사로 수다라전 보수에만 7억 9천여만원이 들어가는등 국비와 지방비등 총20억여원이 소요됐다.

지난 64년 전면 해체보수됐던 장경판전은 그동안 수차례 누수현상을 보이다가 86년 빗물이 경판까지 스며드는 상황에 이르자 문화재연구소 김동현씨를 단장으로 하는 판전보수공사지도단이 구성돼 지난 97년, 33년만에 재보수에 들어갔었다.

이번 공사에는 일반기와 1.5배 크기(42×45㎝)의 특대와(特大瓦) 등 기와 4만여장이 소요되었으며 서까래연목에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국산 육송이 사용됐다.

특히 동서사간전의 바닥은 숯, 소금, 황토에다 강회를 섞어 마감함으로써 습기와 해충피해를 방지하고 최적의 보관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서사간전의 경우 판가1단에 경판을 2층으로 겹쳐 보관했던 것을 1단1층으로 보관할수 있도록 판가를 새로 만들었다.



◇2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새롭게 단장된 해인사 장경판전. 내년엔 경판에 대한 훈증소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인사와 문화재청은 현재 경판의 손잡이 부분인 마구리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경판에 대한 대대적인 훈증소독과 담장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전보수를 담당했던 남일스님은 "이번 공사를 통해 판전의 정확한 구조 및 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게 된것은 성과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바에 깨침의 소리 띄웠지요"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7〉

불교방송 첫 전파 탄 이선미씨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 불교방송의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초 짜리 첫 방송개시 멘트로 1990년 5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 역사적인 불교방송은 이렇게 시작됐다.

"방송 데뷔때보다 더 긴장됐었습니다. 신성한 첫 방송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스튜디오에 앉아있었다고 생각하니 순간 숨이 딱 막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냈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송경력 30년째 되는, 몇 안되는 전문 방송인 가운데 한사람인 이선미씨는 잠시 그때의 감회에 젖는 듯 했다.

개국 첫 방송이 나가는 그 시각, 주조실에는 종단 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단체장 등 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죽 들어서서 스튜디오에 시선을 맞추고 라디오로 타고 나올 음성에 귀를 모았다. 이어 "오늘 우리는 사바중생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로 시작해 "BBS 불교방송은 불기 2534년 지금 이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는 마음의 평화, 진리의 구현자임을 경건하게 다짐합니다"로 끝마치는 개국선언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불교방송국이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 연주소를 두고 호출부호 HLSG, 주파수 101.9MHz, 출력 5Kw, FM 스테레오 방식으로 새 전파길을 연 것이다. 이날 개국전부터 전국적으로 불교방송 설립 성금모금에 동참했던 불자들의 감회 역시 대단했다. '반야심경' '찬불가'를 라디오방송으로 듣게 된 감격은 개국 바로 다음날이 부처님오신 날이라 더욱 실감나게 와닿았던 것이다.

"불자들의 여망과 격려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방송이후 일정기간은 불자들이 맹목적이다시피 한 애정으로 들어준 덕분에 실무자들이 더욱 의욕과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유일한 여성부장으로 개국 준비단계부터 참여해서 개국에 앞서 3월1일 시험방송 전파도 탔던 이선미씨는 불교와 맺은 깊은 인연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는다.

데뷔때보다 더 긴장
현재 강단서 후진양성

70년 동아방송에 입사해 방송생활을 시작한 그는 불교방송에 들어올 때만 해도 무종교인이며 불교에 대한 친근한 정서가 전부였다고 한다.

"막상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불교를 모르는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용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불하세요'가 맞는지 '성불합시다'가 맞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큰 힘을 불어넣어주신 분이 정인섭 前사장(당시 전무)님이셨습니다. '공부해 공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시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라디오로 예불소리 목탁소리 법종소리를 듣는 그날이 오기를 염원했던 불자들의 꿈을 실현시킨 감격스런 불교방송 첫 전파를 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아나운서 부장이던 방송인 이선미씨(53·이화여대대학원 강사).



◇불교방송 개국멘트를 했던 이선미씨(위)와 불교방송 전경.

그는 70년대 초창기엔 방송실무에 열정을 보였고 80년대엔 프리랜서로서 프로의식으로 방송을 다듬었다면, 불교방송과 함께 시작한 90년대는 모든 방송 역량을 종합해 기량을 펴기 위해 노력한 종합편으로 회고한다.

"KBS방송 준비차 도서실에 갔다가 우연히 잡지에서 장상문사장님 인터뷰를 읽게됐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며칠후 불교방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두 번 생각도 않고 흔쾌히 선택했어요. 종교방송이라면 불교라는 것이 소신이었으니까요."

지난 98년 퇴사해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는 불교방송이 종교와 방송을 잘 엮어내는 전문방송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선재마을은 1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동체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장성에 실버타운 착공

'선재마을' …108세대 수용

재단법인 여래세상(이사장 지선)은 10일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에서 실버타운 선재마을 기공식을 가졌다.

선재마을은 대지 7천여평에 12평과 22평으로 108세대가 살 수 있는 주거건물이 건축되고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복지관등이 들어선다. 총공사비 20억원이 투입될 선재마을은 (주) 객건설이 건립하여 분양하고 (재) 여래세상이 운영하게 된다.

천운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은 기공식에서 법어를 통해 "노년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불교계가 앞으로 매진해야 한다"며 "부처님의 뜻에 기대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정(백양사주지) 성호(관음암주지) 영조(증심사주지) 시각(만덕사주지) 광민(무각사주지)스님과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회장, 광주남구 정동년구청장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탑사 5층석탑 보수

보물 1187호인 제주 불탑사 5층석탑이 복원을 위해 11일 완전 해체됐다. 2000년 1월에 복원완료될 예정인 불탑사 5층석탑은 그동안 지반붕괴에 따라 기울어진 상태였다.

정영호(교원대 박물관장) 문화재위원은 "제주의 화산회토에 기반정지작업이 부실했고 상륜부 뜨정과 비석머리형 돌의 중압감으로 지반붕괴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불탑사 5층석탑은 고려 충렬왕 26년에 세워졌으며 제주도에서는 유일한 국보급 보물이다.

김원우 기자

찬불가합창제로 화합다져

천안·아산지역 사찰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아산과 천안지역 불자들이 합창제를 통한 지역교류에 나섰다.

27일 오후3시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처님 들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99 천안·아산 불교합창단 찬불가 발표회에는 아산과 천안지역 50개 사암 주지와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창제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아산시사암연합회 영산합창단(단장 만성)과 천안지역 각원사 도솔합창단(단장 대원) 보명사 반야합창단(단장 성철), 불자가수와 불자예술인들이 참가하는 합창제는 매년 아산과 천안지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만성스님은 "찬불가를 널리 선양하고 보급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을 돕는데 일조하기 위해 합창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봉사단체 '보은회' 창립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14일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신도들을 돕기위해 보은회를 창립했다.

지원장 혜묘스님은 축사를 통해 "일방적인 봉사가 아닌 은혜에 보답하는 회향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앞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고도인보살은 "거동이 불편한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문수사 불교문화원 열었다

참선·교리·다도 강좌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가 문수불교문화원(원장 설곡)을 개원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포교에 적극 나섰다.

20일 부산시 용당동에 개원한 문수불교문화원은 30평 규모의 강당과 법당 공간을 갖추고 주민은 물론 불자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원 기념으로 27일까지 티벳불교 사진전을 갖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기강좌를 개설하고 문화를 통한 포교를 시작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좌, 불교기초교리, 현대인을 위한 참선, 다도, 노래부르기 교실, 서예, 어린이 뮤지컬, 테크노댄스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열릴 예정이다. (051)611-3173 천미희 기자

기장 사암련사무실 개원

강좌·신행공간 활용

기장불교 사암연합회(회장 대광)는 12일 사무실을 개원하고 부처님 접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한 사무실은 사암연합회의 업무외에도 기초교리강좌, 한글학교 등을 개설해 지역 주민들의 신행, 정진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코스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2000년 불교달력은 감로카렌다가 1 등 입니다

동자승의 세계 — 크기:大·小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 크기:大·小
대 불(大佛) — 크기:大·小
산사의 향기 — 크기:大·小
한국의 명찰 — 크기:大·小
한국의 석불 — 크기:大·小
살아있는 달마 — 크기:小
북한의 사찰 — 크기:小
불교전통문살의 미 — 크기:小
금강산의 사계 — 크기:小
나한도 — 크기:小
차량용 미니 달력 — 크기:(11×18cm)

〈사진:안장헌〉
대불, 산사의 향기, 한국의 석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한국의 명찰, 불교전통문살의 美는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편집장을 지낸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4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크 기:大(30×31cm) 국6절
　　小(26×26.5cm) 사륙12절
■매 수:표지포함 13매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주문부수:100부이상(차량용 미니 달력 200부이상)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4307·4309 팩스:(02)738-8682
전국 유명불교용품점에 있습니다.

불자들 힘모아 병원열었다

의정부에 '연화복지의원' 개원…불우이웃등 무료치료

지역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병원을 건립해 화제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진료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현회(이사장 인조)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승), 그리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혜승·이하 좋은 모임)은 27일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노인전문병원 '연화복지의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연화복지의원은 연건평 70평의 2층 규모로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을 갖춘 노인 전문 병원으로 재활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 7명이 하루 100~130명을 진료하게 된다. 물리치료실은 동시에 1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2층에는 노인경로당도 마련돼 있어 치료와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화복지의원은 노인복지실현을 모토로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되며, 장애인 재활을 위한 치료와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도 겸하게 된다.

병원부지는 좋은 모임과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가 시로부터 병원건립의 뜻을 인정받아 무료로 임대를 받았으며, 병원건립비용과 1억원이 넘는 각종 의료기기가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의 후원에 의해 이뤄졌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인복지가 취약했던 경기북부지역에서 노인전문의료기관으로는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포교는 물론 지역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이름은 조계종 25교구 봉선사 조실 운경스님이 지었으며,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후원으로 병원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병원이 건립되기까지 모든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온 좋은 모임은 지난 97년 설립돼 지금까지 '자비의 음식 나누기'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인 무료도시락 배달' 등 꾸준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이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회봉사단체로 자리잡아 온데다 노인복지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복지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모임의 이건식 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이 병원을 건립하는데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었다"며 "약사여래불의 중생 치료정신을 계승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병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0351)844-1080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7일 개원하는 연화복지의원. 노인전문병원으로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겐 무료의료보시를 베푼다.



◇추운겨울을 맞아 '반양식' 김장을 담궈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 주는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각 복지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18일 '좋은모임' 봉사대와 관음사 신도회가 벌인 김장담궈주기행사.

복지관 겨울자비행사 '김장김치 나누기' 잇달아

교계 복지관들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호영)은 27일 '맛깔스런 김장김치 포기마다 넘치는 이웃사랑'을 주제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벌인다. 이날 담궈진 김장김치는 지역내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각각 배달된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무의탁 어른신 김장김치 보내기' 행사를 연다.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김장담그기에 참여하고 1천5백포기의 김장김치가 500세대에게 전달된다.

경북 경산 백천사회복지관(관장 설송)도 이달 30일부터 12월2일까지 '제3회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백5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한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도 30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눠드리기' 행사를 통해 무의탁노인과 편부모세대 등 2백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며, 부천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도 27일부터 30일까지 김장김치 나눠드리기 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수현)이 26~27일 이틀간 주부자원봉사자 60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여는데 이어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이달말에, 자양사회복지관이 12월 첫주에, 경복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초에 각각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벌인다.

한명우 기자

김태복소장 공판 내달초로 연기

무죄판결 가능성

101여단 군법당 건립과 관련 뇌물수수 및 금품요구 등의 혐의로 2심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복 소장의 선고공판이 당초 18일에서 12월초로 연기됐다. 이와관련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한웅 담당변호사는 17일 "군검찰이 범죄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데다,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아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군재판부의 평의문 작성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무죄는 아니더라도 군의 체면을 감안,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만약 김 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극도로 위축된 군 포교가 새로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군포교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재경 기자

환경활동 자료집

불교환경교육원 발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환경활동가 자료집 〈생태적 관점에서 다시, 진보를 본다〉를 발간했다.

올해 6월 국가행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은 이 자료집에는 지역운동, 녹색정치, 환경교육, 여성운동과 생태주의, 과학기술과 환경윤리, 환경운동등 8개 주제의 집중마당과 흙살림운동, 댐건설, 한라산케이블카, 종교환경운동, 환경소송등 14그룹의 토론마당이 엮어져 있다. (02)587~8997.

김원우 기자

종단협, 북경회동 대표단 구성

"26일 만나자" 수정제의…월동용품 28일 북한행

종단협의회(회장대행 인곡 태고종총무원장)는 18일 종단협회의실에서 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박태화)이 요청한 월동용품을 28일 선박편(인천-남포)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6월 종단협이 주최했던 불교도 금강산 순례 때 마련한 북한동포 지원기금 1억원을 들여 외투 4천벌과 신발 4천 켤레를 지원물품으로 결정했다. 월동용품은 조불련에 지정기탁된다.

종단협은 또 조불련이 제의한 북경회동에 종단별로 응하지 않기로 하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5개 종단대표와 종단협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 9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조불련에 26일 북경에서 만나자고 수정 제의키로 했다. 북경회동 의제 및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곡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등 12개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신임회장 추대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직무 시작 이후 논의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북한 문화재 남한전시 논의

불교추진위 23일 방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는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공식방문한다.

명진 도각스님과 유지원 사무총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불교추진위 방북대표단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의 남북불교교류 확대, 북한문화재 남한 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문화재 남한 전시는 지난 6월 지선스님을 단장으로 한 불추위 대표단과 조불련이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불교추진위는 이번 방북에서 남북한 불교계 대표의 교환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김원우 기자

경불련 8년 "시민공동체 형성 더욱 매진"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흔)은 26일 오후 5시 30분 세안프라자에서 8주년 기념및 기금마련 만찬행사를 갖는다.

8년을 함께했던 회원과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8년 활동소개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 ▲승무공연 ▲새로운세기 불교시민운동을 주제로한 자유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경불련이 지나간 8년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기의 변화를 주도하고 올바른 실천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21세기에는 최대현안인 기아와 질병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시민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인덕원, 노인요양시설 '호암마을' 개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원장 성운)이 8일 노인요양시설인 호암마을을 설립 개원했다.

호암마을은 치매나 중풍으로 간병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20명의 수용인원을 108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방·양방의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은 물론 정서안정및 사회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한다. (02)385-8205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종무행정CD '가람지기' 보급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실장 만성)은 18일 종무행정 프로그램 '가람지기' 1.0판 CD롬을 완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사와 지역별 교육을 통해 사찰에 무료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람지기'는 기획실이 종무행정 전산화 사업에 착수한 지 4년만에 완성한 것으로, 종단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람지기에는 신도명부, 축원카드 작성 및 보관 등 일반적인 사찰 신도관리는 물론 종단의 각종 문서를 내장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연꽃마을, 노인복지회관 수탁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15일 전남 광주시로부터 남구 월산동 614-4번지 소재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연건평 25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양·한방 진료와 주간보호실 등을 운영하게 되며, 각종 취미교실과 교양강좌, 노인문제 상담 및 취업 알선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개관은 12월초로 예정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재가연대 선거논평 발표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6일 '신임총무원장은 교단의 신뢰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재가연대는 "교단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들이 출가수행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무소유와 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한국전력 분할매각 반대

전력산업 분할매각을 반대하는 불교계 318인은 19일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성타(불국사 주지) 명진(불추위 집행위원장)스님 등 318인은 성명에서 "효율화를 이유로 한국전력의 사유화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가치를 이윤에 귀속시키는 독과점의 논리일뿐 국민의 뜻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산반야회 인도음악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4일 오후 7시 30분 동산교육회관에서 한인동호회(회장 정무진)와 인도대사관의 후원으로 '작은 인도음악회'를 연다.

한국과 인도의 교류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인도 성악가 판디트 요티 스와룹 판데씨가 인도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인도음악전문가 김창수씨가 음악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02)722-0108

이은자 기자

불교강의안내

중생의 각성(覺性)을 계발하기 위해
여기에 작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소위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서 곧바로
불지(佛智)에 직입하는 조그마한 모임입니다.

노우선사와 함께하는 동안
좋은 수행이 될 것입니다.

개 요

⊙ 일반기초 교리반
- 개강 : 99년 12월 2일부터 (양력)
매주목요일 13시 ~ 15시
- 내용 : 일반적 불교교리 전반

⊙ 경전연구반
- 개강 : 99년 12월 6일부터(양력)
매주월요일 13시 ~ 15시
- 내용 :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금강경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선원
주 지 노 우 선 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13
02)408-1866

신입/경력 종무원 모집

본 종단 교세확장에 따라 근면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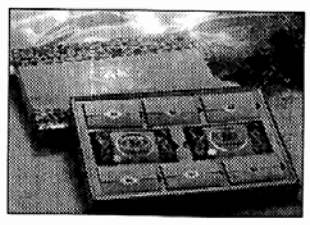
1. 응모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병력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35세 미만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인원: 00명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종단 소정의 양식)
나.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종단 소정의 양식)
나. 자기소개서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5. 제출기간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99.11.29(월) ~ 12.11(토)
나. 접수및 문의처:
135-082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 02-552-1080~3
FAX : 02-552-1082
http: www.chongji.or.kr
※입사원서는 종단 홈페이지 방명록에 있습니다.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을
불교 총지종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 달 의 책



임제록 강의 상, 하

독특한 선풍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임제 의현(臨濟義玄, ?~867).

'견성성불(見性成佛)'과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임제 의현의 가르침은 한국불교에 '조계종'이라는 뿌리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고 이기영 박사의 『임제록 강의』는 생전(生前)의 하문적 열정과 심혈을 기울였던 불교 연구의 한 면을 보여 주면서 후학들에게 채찍질이 되고 있다.

이기영 지음
A5신 370, 400쪽
값 9500 10000원
한국불교연구원



만행 ·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 2

현각 스님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진리를 찾아 걸어온 이야기.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계기로 출가하고 수행하고 있는 현각 스님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숭산 큰스님의 영어 법문집인 『선의 나침반』의 국내 출판을 앞두고 출간되는 이 책은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불교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비전이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각 지음
A5 250, 236쪽
값 각 7000원
열림원



길을 찾은 사람들

앞서 살다 간 성현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

이 책에는 그런 성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원효에서부터 만해 한용운, 도산 안창호, 공자, 맹자, 육조 혜능, 조주 선사, 간디, 네루에 이르기까지 먼저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말하던 그들의 삶과 숨결이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이들에게 반가운 이정표 구실을 할 것이다.

김홍호 지음
A5신 336쪽
값 9800원
솔



누가 문화재를 벙어리기생이라 했는가

수많은 문화재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진열장 안에서 조용히 관람객들을 맞으며 문화재에 얽힌 역사적 내력이나 그 문화재를 소장했던 소장자들의 사연은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이 책은 문화재에 얽힌 수많은 일화들을 소장자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하고 있다. 함들었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온전히 살아남은 명품들을, 문화재로부터 한걸음 물러나 있던 일반인들도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계희 지음
A5신 282쪽
값 9000원
다른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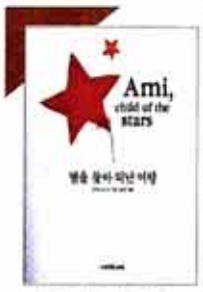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금강경』은 대승 경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이다.

인류 최고의 지혜를 금강경에서 발견했다는 도올 김용옥은 이 '강해'에 경생의 종교적 체험을 녹아부었기 때문에 그의 투철한 탐구정신과 해박하고 걸찍한 언어 구사를 간날 수 있다. 늘 거칠고 과격적인 언어 구사로 세간에 화제를 뿌려온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해 준다.

김용옥 지음
A5신 408쪽
값 9800원
통나무



별을 찾아 떠난 여행

순진무구한 어린 소년 페드로와 낯선 곳에서 온 그의 친구 아미가 하룻밤 사이에 격게 되는, 약간은 허무맹랑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진실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 진실은 '사랑만이 행복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사랑뿐만 아니라 공기처럼 너무 흔해서 때때로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데, 때묻지 않은 동심이 그립거나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이들은 한번쯤 읽어볼직한 따뜻한 이야기이다.

엔리께 바리오스 지음
황성식 옮김
A5 반양 102쪽
값 6800원
나무심는사람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금강산은 신산(神山), 화엄불국세계, 풍악, 개골, 열반, 지달 등으로 불리면서 일만이천의 화강암봉이 기기묘묘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명산이다.

조선 성리학을 이념 기반으로 하여 조선 고유 문화가 절정기였던 진경시대에 겸재는 우리 산천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진경산수화라는 기법을 찾아냈다. 겸생을 금강산 그림에 주력했던 겸재의 금강산 사생 답사를 따라가다보면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함께 여행할 수 있다.

최완수 지음
A5신 반양 332쪽
값 15000원
대원사



원효어록 100선

원효 스님의 저서는 그 양에 있어서도 방대하지만 경율론(經律論) 삼장을 분석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명쾌함과 창의성은 독보적이다.

이 책은 현존하는 20부 23권의 원효 스님의 저서 가운데 특정 부분만을 발췌하여 편저자 나름대로 일반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붙였다. 또 편저자는 부분적으로 발췌하다보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된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 책을 전문 서적이 아닌 교양 서적으로 읽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영일 편저
5E 양장 246쪽
값 10000원
불교춘추사



무염국사 無染國師

신라 구산선문 중의 하나인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조인 무염국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무염국사는 불교와 조사선의 차이점을 구분한 독특한 선사상을 남겼고, '해동의 성자'로도 불렸으나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성주사지(충남 보령)에 있는, 최치원이 쓴 무염국사 비문을 해석한 것으로 신라말 혼탁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선의 계승에 힘썼던 무염국사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정섭 지음
A5신 344쪽
값 6000원
불교통신교육원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한산시寒山詩



김달진 역주 / 최동호 해설
세계사 / 값15,000원

먼저 한산자(寒山子)의 시 한 수를 보자.

내 집은 진정 숨어 살기 좋아라. / 안과 밖 두루두루 세상 티끌 멀리했네. / 풀밭을 거닐다가 절로 같이 되었구나. / 구름을 바라보다 이웃으로 삼으니, / 노랫소리 돕기에는 새가 있으나 / 법의 뜻을 물으려니 사람이 없네. / 아아, 오늘의 이 사바나 무여(娑婆樹)여 / 너는 몇 해를 한 봄으로 삼으려나!

숨어 살며 도 닦는 이의 심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시라 하겠다. 이미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그는, 시간으로부터의 초탈을 꾀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한산시(寒山詩)』는 달리 『삼은시집(三隱詩集)』이라고도 불린다. 한산자(寒山子)의 시라 전해지는 3백 수 와에 풍간(豊干)의 시 2수와 습득(拾得)의 시 50여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사람 모두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들의 실재를 알리는 전기적 자료들도 신빙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시를 통해 유추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 불교적인 교훈시가 있는가 하면 승려를 비판하는 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교의 주술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사상적으로 불교를 택한다. 불로장생이나 연금술 따위의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교의 헛된 집착을 조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한 권을 보자.

내 이 세상 돌기 삼십 년 / 그 동안 헤매어 돌기 천만 리. / 강으로 나갔더니 푸른 풀 우거지고 / 국경에 이르매 붉은 티끌 아득했다. / 핫되이 약 만들어 신선도 구해 보고 / 부질없이 시도 짓고 책도 읽었다. / 이제 비로소 한산으로 돌아와 / 개울을 베고 누워 귀를 씻노라.

한산이 돌아온 그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불성이라고 말하기에도, 마음자리라고 말하기에도 미땅치 않다. 문장 자체에 아취(雅趣)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산의 시는 결코 수사(修辭)에 매몰되지 않는다. 거기에 바로 한산시의 매력이 있다. 그는 천상, 수행자이면서 시인이고 시인이면서 선사이다.

다시 그의 시 한 귀퉁이를 엿본다.

아아, 두려워라 삼계(三界)의 수레바퀴 / 생각생각 쉬지를 못하는구나. / 겨우 거기서 벗어났다 했더니 / 어느새 다시 잠기고 마는구나.

그렇다.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모든 인간은 구도자일 수밖에 없다.

문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새로운 독자 개발에 힘써야…

불교 출판의 역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며 『고려대장경』도 불교 출판 문화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불교 출판의 역사는 곧 우리 나라 출판의 역사이다. 이렇게 우수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시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불교계 출판사의 경영 전략이 일반 출판사보다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 출판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획과 다양한 홍보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달력 제작, 선물용 각종 소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렇게 긴박한 도서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무수한 책 속에서 불서는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교계 출판사들의 새로운 시각이다. 불자만 독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독자는 상품에 따라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점 기획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들의 영세한 재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가장 급선무가 바로 시장 확장이다. 무한한 출판 거리를 갖고 있는 불교 출판이 독자 개발을 위해 확고한 전략을 편다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은 분명하다.

창간 독서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성낙주 지음
비봉출판사
A5신 반양 268쪽
값 12000원
7일고원 미술

석굴암에 대한 찬사는 무수히 많지만 실제로 그 아름다움은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석굴암은 그 유명세에 걸맞는 관련 서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학술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을 위한 감상 차원의 안내서는 거의 없다.

이 책은 철저하게 감상자의 시각에서 쓰여졌으며, 독자들은 토함산 밑자락에서부터 석굴암 내부를 휘돌아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저자와 동행하듯 밟도록 되어 있다. 또한 106컷의 도판 자료가 실려 있어 석굴암의 미를 감상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석굴암의 창건 동기와 그 주체에서부터 석굴암 전체 구조와 낱낱의 조각상들을 관통하는 미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 총체적으로 바라보려는 보기 드문 시도라는 점이다.

석굴암을 전 세계의, 전 인류의 보물이라고 자랑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석굴암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석굴암이 호국 사찰임을 거부하고 '김대성 설화'의 재해석을 통해 원효의 참회 및 화쟁 사상이 그 미학적 뿌리를 이루고 있음을 최초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석굴암에 대해 전 세계의, 전 인류의 보물이라고 자랑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석굴암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은 늘 지지부진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 한다. 또한 몇몇 사안에 대해 상식에도 값하지 못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석굴암 연구와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면서, 편견을 거두는 열린 자세만이 석굴암학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철학회 지음 / A5신 448쪽
값15,000원 / 예문서원

이 책을 말한다

『역사 속의 중국철학』
우리의 시각으로 살펴본 중국 철학사

김충근 기자

동양의 사상을 이끌어 온 중국. 그들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장대년 · 풍우란 등의 대가나 중국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에서 출간된 중국 철학사를 주로 접해왔다. 우리 손으로 직접 써 낸, 제대로된 중국 철학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 『역사 속의 중국철학』은 중국 철학을 연구하는 우리 나라 소장 연구자 16명이 짜집기를 탈피해 일관된 관점을 세워 연구한 성과물이다. 노자지의 오랜 하문 여정 끝에 나온 산물이 아니어서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의욕과 열정이 가득 찬 젊은 연구자들의 땀흘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작업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 연구자들이어서 거대한 중국 철학사를, 일관된 체계를 지니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은 한 권의 책 속에서 다양한 철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사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철학사는 두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공자와 맹자에서 주희로 이어지는 '도통의 역사'를 강조하거나 노자와 장자에서 곧바로 현학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끈 잇기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관념의 전개를 중시하는 철학사이다. 또 하나의 사상은 생산력이라는 물적 토대 위에 올려놓고 철학을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역사로 규정하는 철학사이다.

이 양 극단을 달리는 두 관점의 철학사는 모두 각각의 맹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역사라는 객관적 조건은 배제한 채 관념의 철학사를 전개함으로써 '꼴 역사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후자는 성긴 그물로 자신들의 철학사를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역사라는 획일화된 이론 틀 속에 넣은 결과 중국 고유의 사상적 특성을 놓치고 있다. 즉 중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서구 중심의 틀로써 철학사를 재단하려 한 것이다.

『역사 속의 중국철학』은 이런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국 철학을 역사라는 무대 위에 올려 놓았으나 그물코를 촘촘하게 덧댐으로써 중국의 특수성과 그 속에서 전개된 사람들의 삶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유가부터 모택동주의까지 중국이 걸어온 격변의 시기를 조명하고 그 위에서 전개된 사상들을 투시해 보려고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현실에 가장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동안 중국 철학사에서 소외되었던 현대 신유가나 모택동주의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 · 4운동 이래 동서 문화 논쟁과 인생관 논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현대 신유가나 현재의 중국을 잉태한 모택동주의를 살펴보는 것은 사유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벌거벗은 채로 나가면서 한편으로 전통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하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1. 만물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 신술래 지음/ A5신 206쪽/ 솔리/ 값 7,000원
2. 잡초는 없다 — 윤구병 지음/ A5신 262쪽/ 보리/ 값 6,800원
3. 영원한 자유 — 성철 큰스님 지음/ A5신 330쪽/ 장경각/ 값 6,000원
4. 장자가 노자를 이야기하다 — 임어당 지음, 장순용 옮김/ A5신 332쪽/ 자작나무 값 8,500원
5. 위대한 영혼의 스승이 보낸 63통의 편지 — 간디 지음, 라다크리슈난 엮음, 이재경 · 유영호 옮김/ A5신 484쪽/ 지식공작소/ 값 12,000원
6. 인생을 건너는 지혜의 징검다리 — 구보 순료 지음, 남지연 옮김/ A5신 256쪽 일출 / 값 6,500원
7. 오래된 미래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A5신 204쪽/ 녹색평론사/ 값 5,000원
8. 숨어 사는 즐거움 — 허균 지음, 김원우 옮김/ B6 236쪽/ 솔/ 값 5,800원
9. 원효 — 고영섭 지음/ A5 292쪽/ 한길사/ 값 8,000원
10. 함께 사는 아름다움 — 정화 지음/ A5신 388쪽 /시공사 / 값 10,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5,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